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韓國古代史學會

학술회의 자료집

충주 고구려 비발견의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9.
11. 22 (금)
9:30~18:00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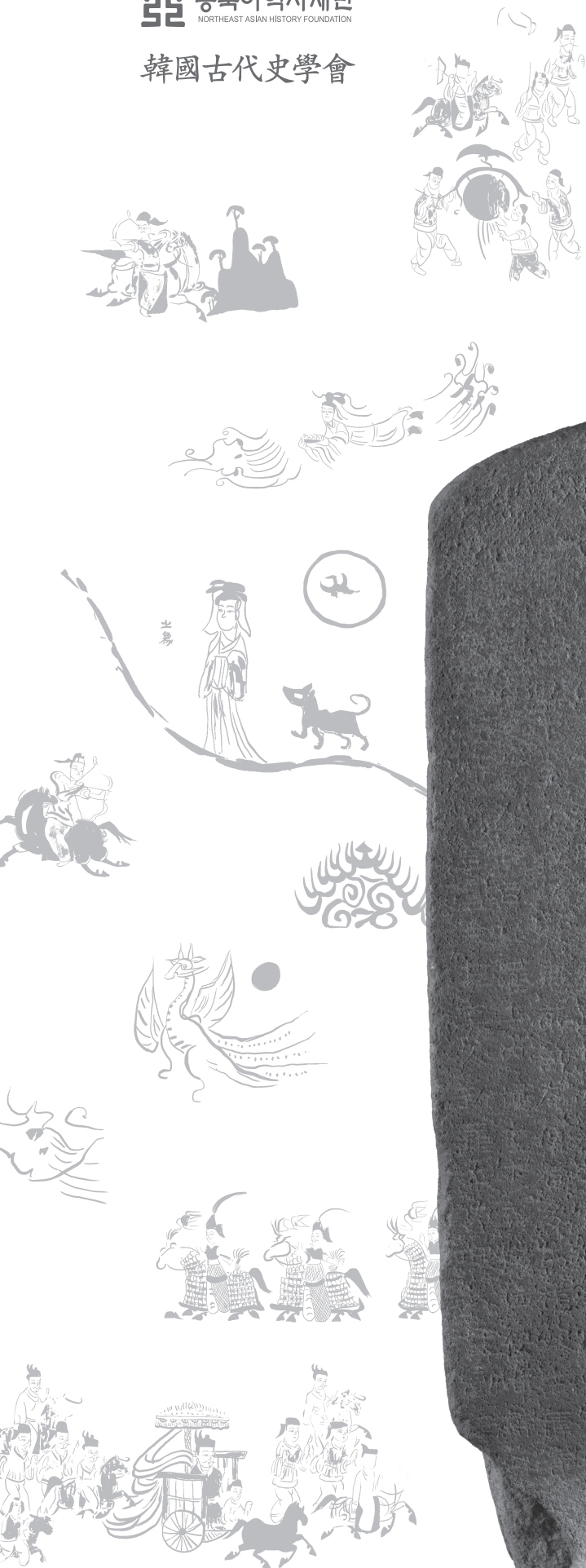
韓國古代史學會

학술회의 자료집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9.
11. 22(금)
9:30~18:00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9. 11. 22(금) 9:30~18:00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제1부 개회식

사회 |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 09:30 개 회
- 09:50 기 조 발표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회고와 전망
장준식(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 10:30 휴 식

제3부 주제 발표

사회 | 정호섭(고려대학교)

- 13:30 충주 고구려비의 단락 구성과 건립 시기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장창은(제주대학교)
- 14:10 충주 고구려비의 高麗 太王과 新羅 寐錦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박찬홍(국회도서관)
- 14:50 忠州 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정운용(고려대학교)
- 16:30 휴 식

제2부 주제 발표

사회 | 윤선태(동국대학교)

- 10:40 충주 고구려비 판독을 위한 과학적 조사 방법
조영훈(공주대학교)·안재홍(한국과학기술원)
- 11:20 충주 고구려비 판독문 재검토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박찬규(단국대학교)
- 12:00 오 찬

제4부 종합 토론

사회 | 공석구(한밭대학교)

- 16:50 종합 토론
발표·토론자
- 18:00 폐 회

CONTENTS

기조 발표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회고와 전망	6
장준식(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충주 고구려비 판독을 위한 과학적 조사 방법	14
조영훈(공주대학교)·안재홍(한국과학기술원)	
충주 고구려비 판독문 재검토	36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박찬규(단국대학교)	
충주 고구려비의 단락 구성과 건립 시기	70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장창은(제주대학교)	
충주 고구려비의 高麗 太王과 新羅 寐錦	104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박찬홍(국회도서관)	
忠州 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	118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정운용(고려대학교)	
토론문	133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회고와 전망

기조 발표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1978년 가을에 발족한 충주의 문화재 애호단체인 예성동호회는 당시 충주검찰청 유창종 검사의 주도로 창립되었다. 충주 지역에 살면서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아마추어 문화재 애호인들의 모임인 이 동호회의 활동은 세간의 눈길을 끌 만한 모임이었다. 동호회 구성원은 당시 한국예총 충주지회장을 맡고 있던 김풍식(신경외과 전문의)·최영익(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김예식(중원군청 공보실장)·장기덕(미덕중학교 교장)과 필자 등이 창립 발기인이었다. 충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답사 활동에 의해 충주 양성면 봉황리에서 삼국시대에 조성된 마애불상군과 단양군 영춘면에서 『삼국유사』의 義湘傳敎 10刹 중 하나인 비마라사의 위치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979년 3월 2일 자로 유희장이 의정부 검찰지청으로 전보되자 2월 24일 유 회장의 송별 답사 및 기념 촬영을 위해 중앙탑(국보 6호) 일대로 답사를 갔다. 중앙탑 부근에서 기와 편들을 수습한 후, 인근 용전리의 입석마을 어귀에 있던 입석을 조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입석의 존재는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회원인 장기덕 교장이 용전리 입석은 “당시 중원군문화원 이동호 원장의 先代로서 경상감사를 역임한 분에게 조선 숙종이 하사한 사패지지에 관한 경계석”이라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다. 우리는 입석이 사패지의 표석이든, 경계석이든 간에 일단 조사를 해보자 하여 입석마을에 도착했다. 돌기둥 형태의 입석은 전체적으로 이끼와 청태 등이 두텁게 덮여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 부분 부분에서 글자가 확인되어 이것이 단순한 입석이 아니라 석비였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의 전면 하단부에서 ‘國土’, ‘土內’, 측면 상단(지금의 4면)에서 ‘安城’이라는 글자를 확인했다. 특히 ‘安城’으로 읽힌 글자를 보고 필자는 “경기도 안성이 왜 여기에 나오지? 안성까지 이동호 선생의 땅이었나”라며 중얼거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비문의 婁城을 ‘安城’으로 읽었던 것은 훗날 고모루성으로 밝혀졌지만……. 입석이 아닌 비석을 조사하면서 손가락으로 자획을 확인하는 과정의 사진은 1979년에 발간된 『예성문화』 창간호에 게재되었다. 이 돌기둥이 종래에 알려져 왔던 백비 또는 입석이 아니라 石碑로 확인된 것은 1979년 2월 24일 오후 2시께였다. 그러나 이때는 비석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훗날 ‘충주 고구려비’로 탄생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 그런데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979년 예성동호회의 조사 때는 비석에서 글자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논지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월 24일 최초의 답사 중 비석의 여러 부분에서 글자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1979년 6월 단국대에서 개최된 중원고구려비학술회의에 유창종·장준식·김예식이 참관 후 동년 7월에 발행된 『예성문화』 창간호의 33~37쪽까지 김예식이 “중원고구려비 발견 경위”를 게재하였는데, 이 내용을 한자도 수정·가필하지 않고 전재해 보겠다. 그는 글의 서두에 “이 글은 발표에 직접 다섯 분의 선생님과 그리고 다른 많은 학자 분들이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새삼 중원 용전리 고구려비를 지상에 알리도록 한 원천적인 역할(발견이라 해도 좋고 제보라고 해도



1
1979년 2월 24일 입석의
고비를 판독하는 모습

좋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회원들의 중론에 따름이요, 추후도 공명심에서 발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역사적 금석문인 중원 용전리 고구려비 발견에 ‘內在’되어있는 향토 문화 애호인들의 이야기에 누군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후략.....

한편, 1981년 완공된 목조 보호각의 현판인 「보호각 건립기」(현재 고구려비 전 시관에 전시되어 있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서각되어 있다.

“이 비는 입석마을의 표상으로 오랫동안 마을 어귀에 서 있던 것을 충주 지방 문화재 애호 동호인들의 모임인 예성동호회에서 찾아 학계에 알려 79년 4월 8일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단장 정영호 박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구려비 임을 고증하였다” 후략.....

예성동호회는 충주의 역사·지리적 환경 때문에 신라 진흥왕의 비가 충주 인근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의 충주시립박물관이 위치한 논바닥에 옛 비석이 매몰되어 있다는 동네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수없이 파보기도 하였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당시에는 문화재보호법 등을 알지도 못한 용맹함(?) 때문이었던 것 같다. 또 어떤 분께서 금가면 어느 산 속에 大角干銘의 古碑가 있다 하여 금가면 하담리 일대 산을 헤집고 다니기도 하였다.

이후 입석리의 이 비석에 대한 회원들의 궁금중은 급기야 청주대학교 박물관장인 김영진 교수에게 자문을 청하는 연락을 취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3월 초순경 충주에 온 김 교수와 만나서 입석마을로 가는 도중, 김예식 씨가 충주시 신니면에 소재한 견학리 토성을 먼저 답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비를 조사하자고 하여 일행은 신니면으로 향했다. 견학리 토성에서 반월형 석도와 석검, 석부 등을 수습하여 한껏 들뜬 마음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 마을에서는 전통 혼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동네 분들은 초면인 우리를 반갑게 혼사 집으로 이끌었고, 일행은 후덕한 시골 마을의 인심에 녹아들어 탁주를 마시고 덕담을 나누는 동안 시간이 흘렀고, 일행이 타고 온 차량 제공자인 허인옥 씨가 약속 때문에 시내로 간다고 하여 비석의 조사는 다음 기회로 미뤄졌는데 그 ‘다음의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

았다.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고구려비 학술 조사는 청주대학교 박물관이 주관했을 개연성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일 이후 필자는 유물에 대한 선입감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다음에 보자’는 게으름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되는지 깊은 깨달음으로 남았다(선입견이 고구려비를 판독하는 데 많은 어려움으로 적용된 것은 후반에서 밝히고자 한다).

당시 단국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필자는 이 비석에 관한 정보를 정영호 박물관장에게 보고하였고, 3월 하순경 친분이 있었던 문화재관리국의 신영훈 선생으로부터 4월 5일에 동국대학교의 황수영 박사가 전년에 발견한 봉황리 마애불 상군을 조사하기 위해 충주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다.

1979년 4월 5일 아침 일찍 뜻밖에도(?) 정영호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황수영 박사와 일본인 학자들이 충주에 가니 만났으면 한다는 내용이다. 공교롭게도 당일에 본인의 약혼식이 있어 김예식 씨에게 안내를 부탁하였고, 12시경 중원군청에 도착한 네 분의 학자와 회원인 김풍식·김예식·이노영 선생과 탁본을 도와 줄 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두 명이 입석마을로 향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전년도에 발견된 봉황리 마애불에 대한 조사를 주목적으로 오신 불교미술학자들이었다. 예성동호회에서는 원로학자들이 오셨으니 마애불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비석을 보여드리고 자문을 구하고자 했다. 비석을 안내하는 자리에 탁본 도구를 준비해서 갔다는 것은 이미 2월의 첫 조사 때 비석에서 글자를 확인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봉황리로 가는 길에 일행 모두가 입석마을에 들려 잠깐 동안 비석을 실견하는 시간을 가진 후 황 박사와 고베대학의 모리 교수·규슈대학의 다나카 교수와 김예식 씨는 1978년에 발견된 충주시 양성면 봉황리의 삼국시대 마애불상군을 조사하러 갔다. 김예식 씨가 일인 학자들이 마애불을 조사하는 동안 황 박사님께 입석의 古碑를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을 했더니 “글쎄요. 진흥왕 순수비 류의 비석 같은데 내 마음은 온통 그 편에 가 있군요.” 라고 답한 것으로 볼 때 황 박사님은 조금 전에 보았던 입석마을 고비의 중요성을 이미 예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황리에서 마애불의 조사가 진행되던 같은 시간, 입석마을에서는 정 박사와 이노영 선생, 학생 두 명이 탁본을 하였고, 탁본이 완료될 무렵 마애불에 다녀온 황 박사의 일행과 합류하여 충주 시내 충인동에 소재한 산다방으로 갔다. 필자는 약혼식을 마치고 다방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실내 장식용 병풍에 정 박사가 가져온 탁본을 걸치고 살펴보던 중에 황 박사는 이미 이 비의 중요성을 간파하신 듯 “나는 혈압이 있어 흥분하면 안 되는데.....”하시며 거듭 차를 주문하여 일행을 긴장시켰다. 황 박사는 이 비를 진흥대왕의 순수비로 추정했다. 비문의 서두를 ‘五月中眞興大王’으로 판독하고 이내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다.

이 비석은 당초부터 高麗大王을 眞興大王으로 판독할 만큼 마멸이 심한 상태였다. 황 박사는 이 비석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조사를 정영호 관장에게 하명하고 일행과 함께 귀경하였다. 이틀 후인 4월 7일 오후 단국대 박물관에서는 교수·조교·학생 등 27명의 학술 조사단을 편성하여 충주 입석마을에 도착했다. 정영호



관장의 지휘로 비석에 더운물을 부어가며 나무젓가락과 칫솔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비석 전체에 덮인 이끼와 청태 등을 제거했다. 다음날인 8일 오전부터 불순물 제거 작업과 병행해 탁본을 하였고, 완료된 탁본을 방 안의 벽면에 걸어놓고 여러 학자가 한 글자, 한 획씩 판독에 들어갔다. 한 글자, 한 필획을 놓고도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판독된 글자 중 참석자들의 합의가 도출되면 한 자씩 기록하는 난해한 작업이 아침부터 진행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비석의 국적은 물론 정체성도 특정하지 못하였다. 그만큼 마멸이 심한 원인도 있지만 '전부대사자', '하위발사자', '대형' 등 고구려의 관직명과 '신라토내당주', '신라토내', '모인삼백', '신라매금' 등 마치 상대편에서 신라를 지칭하는 문구들로 판독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라 진흥왕대의 비석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학자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판독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 있던 주민들이 "서울에서 대학자들은 안 오고 소학자들만 와서 해석을 못 하는 것 아니냐?"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였다. 오후 3시경 뒤늦게 도착한 건국대학교 김광수 교수는 석문이 진행되는 방안으로 들어오기 전 문턱에 서서 벽에 걸린 탁본을 보며 "그게 왜 진흥대왕이야, 고려대왕이지!"라고 했다. 오전·오후 내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 고민하던 조사단들은 이 한마디 말에 일제히 "아! 아!"라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긴장하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시골 마을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돌덩어리가 한반도의 유일한 고구려비로 탄생하는 역사적이고도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김 교수는 조사단의 버스에 동승하지 못하고 뒤늦게 도착했기에 진흥대왕 또는 신라비라는 선입견이 없었으므로 첫 글자를 '고려대왕'으로 일순간에 판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후 4시 반 경, 조사단의 정영호 관장은 "이 비는 장수왕의 남진정책을 기념하기 위해 고구려의 국원성이었던 충주에 세운 고구려의 비석"이라는 놀랄만한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후 4월 22일,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는 학계의 원로 교수들과 전문가들을 고구려비 현장으로 초빙해 석문 작업과 각기의 의견을 수렴했다.

2
1979년 4월 5일 입석을
실견하는 황수영 박사님

3
중원고구려비
판독 이후 모습

4
중원고구려비
국제학술대회 모습
(2000.10.13)



결과, 이 비는 한국 유일의 고구려비로 장수왕대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고 합의했다. 현장에 참석한 원로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병도·최영희·황수영·이기백·변태섭·김철준·진홍섭·김동현·임창순·신석호·박노춘·권오돈·김정기·안휘준·김석하·차문섭·신형식·서길수 등.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 고증된 이 비가 '고구려비'라는 데는 한 사람의 이견도 없었다. 이와 같은 과정과 학자들의 엄중한 노력으로 '중원고구려비'가 탄생한 것이다.

같은 해 6월 9일 단국대학교 박물관이 주최한 중원고구려비 학술회의에서 이병도·이기백·변태섭·임창순·신형식·김정배·이호영 선생의 발표가 있었고 연구자들은 『삼국사기』의 내용과 비문에 보이는 년간기를 비교 유추하며 건비 연대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열린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 두계 선생은 建興四年銘의 제액 유무를 말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 이호영 선생은 비의 상단에 ○○七年銘의 제액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단국대학교 『사학지』 13호로 발간되었다.

그 후 중원고구려비 발견 20주년을 맞아 고구려연구회에서는 2000년 10월 13~14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비석의 새로운 究明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 22~26일까지 4박 5일 동안 충주에서 고구려비의 새로운 해석을 위한 신석문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50여 명의 금석문 연구자와 역사학자들이 참여하여, 기왕에 판독한 200여 자의 글자 중 10분의 1이 넘는 20여 자를 새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석문 과정은 탁본·흑백 촬영·컬러 촬영 그리고 적외선 촬영을 병행하여 한 글자를 네 가지 방식으로 검토하여 정확성을 기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당시까지는 고대 금석문의 한 글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조사한 예는 없었으니 중원고구려비는 우리나라 석조 문화재 조사에서 적외선 촬영이 시도된 첫 사례가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같은 해 12월 『고구려연구』 10호로 간행되었다.

2004년 10월 고구려비를 방문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고구려비 보존의 문제점과 환경 오염 등을 제기하며 종합정비계획을 지시함으로써 2010년 4월 전시관 건설이 착공되었는데 설계는 이로재의 승효상 대표가, 실내 전시는 열린기획의 조성하 대표가 맡아 2012년 7월에 현재의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이 준공되었다.

충주 고구려비는 발견 당시부터 마모가 심하여 내용 전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발견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중·일 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오늘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을 맞아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하여 한국고대사학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에서 과거의 석문 과정보다 훨씬 발달한 과학적 방법을 응용하여 석문 작업과 입비 연대의 추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충주 고구려비의 현지 조사와 1, 2차의 난해한 석문 과정에서 한 글자, 한 필획을 더 찾으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학술회의가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넘어 우리나라 고대사 정립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학술회의에서 충주 고구려비의 실제적 진실이 더 많이 담보되는 성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학술회의에 앞서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고구려비 발견 당시 형제 비석과 같이 나란히 서 있던 〈七顛八起의 마을〉 비석을 아무 이유 없이 ‘동심’이라는 김치 제조 공장 축대 아래로 옮긴 일이 있다. 이 비는 용전리 입석마을의 청년 조직인靑石會에서 1972년의 수해를 극복한 것을 기념하고자 세웠던 마을의 자랑비이자 표상이다.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七顛八起의 마을〉비석은 고구려비와 나란히 있어서 고구려비 발견 당시의 원위치를 증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형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비석은 1979년 당시의 원위치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시관 내에 비가 위치한 공간의 상단 벽면에 사진도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고대의 碑가 고분 내에 위치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고구려 시대의 비석이 무덤 내부의 조형물이라는 편견과 오해를 갖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편 고구려비를 찾는 관람인들이 “고구려비가 발견 당시에 빨래판으로 사용되었다”는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상의 글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지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이 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고구려비는 1979년 2월까지도 마을의 정순덕 할머니가 비석 위에 고사떡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목격되었고, 세워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 立石이 된 것이다. 따라서 비의 빨래판 사용 云云 하는 오해들은 지금이라도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내부



한편 고구려비는 발견 당시의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40여m 이격된 장소로 옮겨져 세웠다. 이러한 조치는 고구려비의 조사 과정에서 입석마을의 여러 古老들이 비석이 오래전부터 현 위치에 있었던 〈대장간의 기둥〉으로 사용되었다는 한결같은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고자 이곳에 대한 시굴 조사를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슬래그와 목탄재 등 철물 주조에 관련된 자료들이 출토되므로 이곳이 옛 대장간 부지로 판단되었다. 시굴 조사 결과 이곳이 대장간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비석이 대장간 모퉁이의 돌기둥으로 사용되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곳으로 비를 이전하고 보호각을 건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각의 지근에 있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등 공해 요소가 증가되고, 목조 보호각의 창살 틈새로 들이치는 산성비와 조류의 배설물에 의해 비석의 마모가 급속하게 진행되자 문화재청의 실내 보존 의결에 따라 비석의 위치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이 건립되었다.

충주 고구려비 판독을 위한 과학적 조사 방법

조영훈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부교수

권다경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석사과정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I. 서 언

비석은 역사적 사건 또는 이와 가까운 시기에 제작되고, 여기에 제작 연대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 및 문화에 대한 내용을 동시대의 문자로 담고 있어 역사학·고고학·서예 등 여러 분야에 매우 귀중한 연구 자료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는 거의 대부분이 석비로, 2018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석조문화재 567건 중 석비가 총 73건(국보 13건, 보물 60건)이 지정되어 있다. 이는 석탑(총 192건)과 석불(83건)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에 해당된다.¹⁾

그러나 대부분의 석비는 보호각 또는 실내에서 보존되고 있는 경우보다 옥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환경 조건은 석비의 자연적 풍화와 인위적 훼손을 유발하여 문화재로서의 원형과 가치를 상실하게 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한 비석인 울진 봉평리신라비, 포항 중성리신라비, 포항 냉수리신라비 등은 재질과 보존 이력에 따라 조금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표면 마모, 입상 분해, 변색, 생물 오염 등을 겪어왔다. 이는 비석의 형태학적 변형뿐만 아니라 금석문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내 많은 연구자들은 석비의 재질 특성 및 보존 상태 진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²⁾

충주 고구려비(국보 제205호) 역시 1979년 발견 당시 입석마을 초입의 경계석으로 서 있었는데, 지난 약 1,500여 년의 시간 동안 야외에 노출되어 전체적으로 표면 마모와 미생물 피도가 심해 글자의 육안 판독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행히 1981년 비각이 세워지고, 2003년도부터 정기 조사가 시작되고, 2004년도에 응급 보존처리가 시행되면서 보존 상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비문에 대한 원형 보존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 2012년도에 고구려비 전시관으로 이전되면서 보존 상태가 월등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충주 고구려비 연구의 일차 사료인 비문은 인위적 및 자연적 요인에 의해 글자의 원형이 비교적 많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 최초로 탁본이 제작된 이래 수차례 기록되어 왔고³⁾,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⁴⁾ 탁본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간편하고, 주변의 형상 정보를 배제한 채 음각 또는 양각 특성만을 고려하여 비문을 판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창호(2000)⁵⁾, 김양동(2000)⁶⁾, 장창은(2005)⁷⁾, 고광의(2017)⁸⁾ 등은 이러한 탁본 결과를 이용하여 고구려비의 판독을 시도한 바 있다. 고구려비는 이러한 판독 연구뿐만 아니라 고구려비의 건립 목적⁹⁾, 입지¹⁰⁾, 비석 형태의 전개 과정¹¹⁾, 주변국과의 관계¹²⁾, 주요 쟁점¹³⁾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충주 고구려비는 2019년을 기준으로 발견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재 시점에서 관련 선행 연구 결과들의

1) 문화재청, 2019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8』 참조.

2) 조영훈, 이찬희, 심현용, 2013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재판독과 보존과학적 진단」 『문화재』46, pp.48~67.

3) 단국대학교 사학회, 1979 『史學志』13, pp.1~151.

4) 고구려발해연구 편집부, 2000 「중원고구려비 비면 사진 및 탁본」 『高句麗研究』10, pp.9~103.

5) 김창호, 2000 「中原高句麗碑의 건립 연대」 『高句麗研究』10, pp.343~362.

6) 金洋東, 2000 「中原 高句麗碑와 高句麗 金石文의 書體에 대하여」 『高句麗研究』10, pp.577~595.

7) 장창은, 2005 「中原高句麗碑의 판독과 해석」 『신라사학보』5, pp.257~279.

8) 고광의, 2017 「고구려 비에 대한 고찰」 『목간과 문자』18, pp.15~36.

9) 박찬홍, 2013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과 신라의 위상」 『한국사학보』51, pp.145~165.

10) 하일식, 2019 「한국 고대 금석문의 발견지와 건립지」 『한국고대사연구』93, pp.61~105.

11) 강진원, 2017 「고구려 석비 문화의 전개와 변천 : 비형(碑形)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103, pp.197~230.

12) 林起煥, 2000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본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高句麗研究』10, pp.417~449.

13) 張彰恩, 2006 「中原高句麗碑의 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 『역사학보』189, pp.291~322.

가치를 재조명하고, 여기에 새로운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에 밝히지 못했거나 논쟁이 되었던 부분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구려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비문 판독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에 적용할 수 있는 전통적 및 과학적 방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용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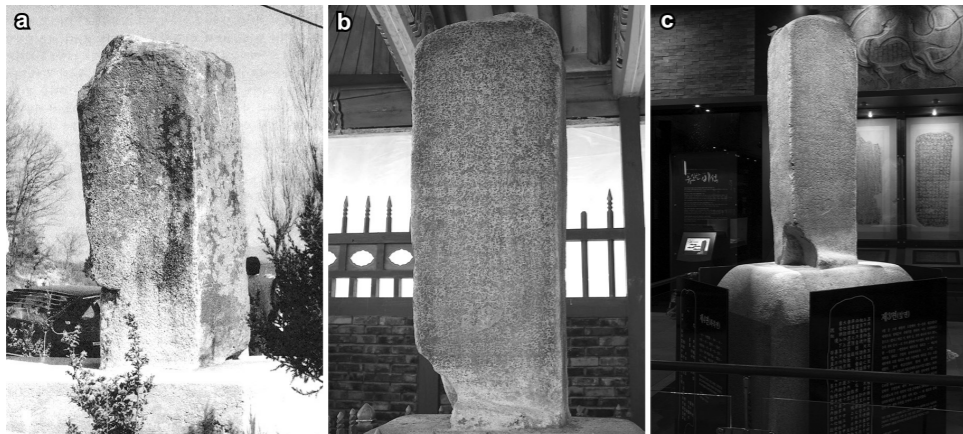
또한 3차원 스캐닝 기반의 수치 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충주 고구려비의 글자 위치, 자간, 물갈이 흔적 등의 배열 및 형상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비문의 미세 형상을 가시화하고, 이를 글자 판독에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개별 글자의 음각 깊이를 분석하여 제작기법을 이해하였고, 동일 자형(字形)을 비교하여 판독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도 판독 이견이 있는 비문에 대해 다양한 영상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해석 범위의 스펙트럼을 줄이고자 하였다.

II. 현황

충주 고구려비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구려 석비로, 5세기 경 고구려의 남진과 신라의 관계를 알려 주는 역사적 유물이자, 고구려의 한강이남 진출을 입증하는 유산으로 추정된다. 1979년 입석마을 입구에서 발견되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발견 당시 비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다(그림 1a). 석비는 돌기둥 모양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4면에 모두 글을 새겼는데, 그 형태가 만주에 있는 광개토태왕비와 비슷하다. 비문은 심하게 닳아 앞면과 왼쪽 측면 일부만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내용 중 처음에 '고려대왕(高麗大王)'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고려는 고구려를 뜻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신라, 백제 3국의 관계를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그림 1] 충주 고구려비의 보존 이력

(a) 1979년 발견 당시 모습¹⁴⁾ (b) 1981년 비각 설치 이후의 모습 (c) 2012년 이후 전시관 내부로 이전된 모습



14) 鄭永鎬, 2000 「中原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意義」 『고구려연구』10, pp.105~127.

충주 고구려비는 1981년 비석의 보존을 위해 비각을 세워 보존하였으나 2003년 국립문화재연구소 현황 조사에서 변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2004년도에 먹물 등 이물질 오염 부위에 대한 세척이 진행된 바 있다(그림 1b). 또한 2006년도에 비각에 방연제를 도포하였으며, 비각이 도로와 인접하고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어 2010년부터 전시관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2년도에 완공하여 비석을 전시관 내부로 이전하고 재설치하였다(그림 1c).

2010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정기 조사 결과에서는 석비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나 보호각 기반 상부의 회다짐이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2018년도 정기조사에서는 비신 상부 및 하부에서 탈락이 확인되나 현재 전시관 내에 위치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고구려비는 1979년 발견 이후 지속적으로 보존 환경이 개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이다(표 1).

[표 1] 충주 고구려비의 변화 및 보존 이력

연도	내용	참고 사항
1979	충주 고구려비 발견	
1981	비각 신축 공사	-
1982	고구려비 조정 공사	-
2003	현황 진단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긴급 보존 처리(먹물 등 변색 부위 세척)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비각 보수 및 주변 정비	충주시
2006	방연제 도포	고당건축사
2010	중원 고구려비에서 충주 고구려비로 명칭 변경	문화재 지정명칭 일제정비사업
2010	전시관 공사 착공	-
2010	정기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전시관 내부로 이전 및 재설치	-
2018	정기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III. 금석문 판독에 적용되는 과학적 조사 방법

1. 전통적 방법

금석문 판독에 있어 탁본은 현재 가장 일반적인 조사 방법이며, 탁본은 문헌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품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 탁본은 금석문과 같은 대상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각자된 글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추출하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¹⁵⁾ 이 방법은 종이와 비석의 마찰 여부에 따라 먹의 표현이 달라져 글자의 상대적 깊이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먹봉에 의해 먹과 종이 비석과 닿으면 어두움으로 표현되고, 반대로 닿지 않으면 밝음으로 나타나 글자의 음각 또는 양각 특성만을 고려하여 판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찰 여

15) 최원호, 고선우, 2016 「각자된 글자의 형태적 시각화를 이용한 금석문 판독 방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7, pp.741~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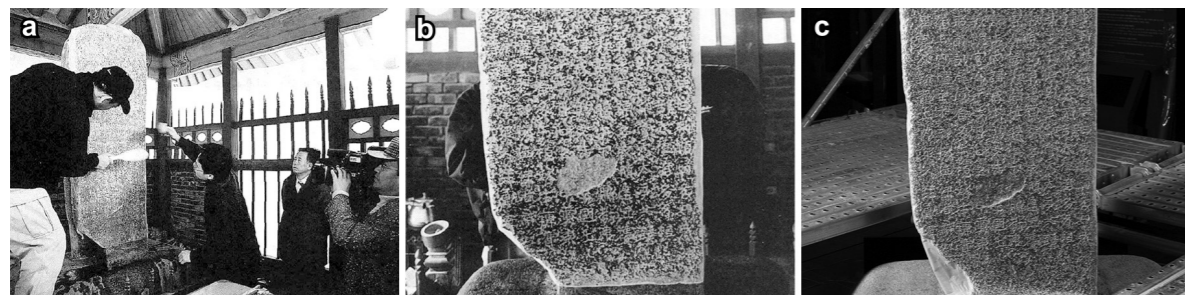
부를 임계점으로 보면, 흑백으로만 표현되는 이진영상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탁본은 적용 대상의 한계가 있고, 재료, 환경, 먹봉 사용 등 탁본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먹봉을 통한 마찰 여부가 밝고 어두움 표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점을 매우 유의해야 하며, 깊이가 낮거나 마모가 심한 글자 역시 먹 번짐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먹에 의한 변색과 같은 이차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고구려비 역시 탁본에 의한 표면 변색이 문제가 되어 2004년도에 보존 처리가 수행된 바 있다. 이 외에도 탁본 결과물을 이용한 직접적인 분석만 가능할 뿐 다각적 분석이 어려우며, 탁본 결과물 자체도 보존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충주 고구려비의 탁본은 현재까지 1979년, 2000년, 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79년은 발견 기념, 2000년은 발견 20주년 기념(그림 2a, 2b), 2019년은 문화재청과 불교중앙박물관 주도의 선본 탁본 확보이다(그림 2c). 이 외에도 개인적 목적의 탁본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구려비 탁본은 결과물마다 글자 표현과 가독성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복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탁본들은 기록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보존 관리 역시 필요하다.

[그림 2] 충주 고구려비의 탁본 현황

(a, b) 고구려비 발견 20주년 기념 탁본 모습¹⁶⁾ (c) 문화재청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선본 탁본



2. 근적외선 반사 촬영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은 표면층을 투과하지 못하고 반사를 한다. 그러나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적외선은 표면 하부층의 수 mm까지 투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적외선을 문화재에 조사한 후 반사와 흡수 정도 차이를 디지털 이미지로 보여주는 기법이 근적외선 반사 촬영이다. 근적외선은 주로 탄소(C)를 상당수 포함한 먹, 골탄, 목탄 등에 흡수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러한 적외선을 많이 흡수할수록 디지털 이미지에는 검게 표현된다. 근적외선 반사 촬영은 그림의 밑그림이나 고서나 목간 등의 흐릿한 글씨를 확인하고, 그림의 손상된 정도를 파악하거나 미완성의 회화를 조사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그림 3a, 3b).^{17) 18) 19)}

충주 고구려비는 발견 20주년을 기념하여 고구려연구회에서 근적외선 반사 촬영을 시도한 바 있다(그림

16) 고구려발해연구 편집부, 2000 앞의 논문.

17)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0, 『나무 속 암호 목간』, 예맥, pp.1~288.

18) 천주현, 유혜선, 박학수, 이수미, 2006 『尹斗緒 自畫像의 표현 기법 및 안료 분석』 『미술자료』74, pp.81~95.

19) 이상욱, 배고운, 남궁훈, 남도현, 정광용, 2018 『능산리고분군 동하층 벽화 보존 상태 진단』 『보존과학회지』34, pp.333~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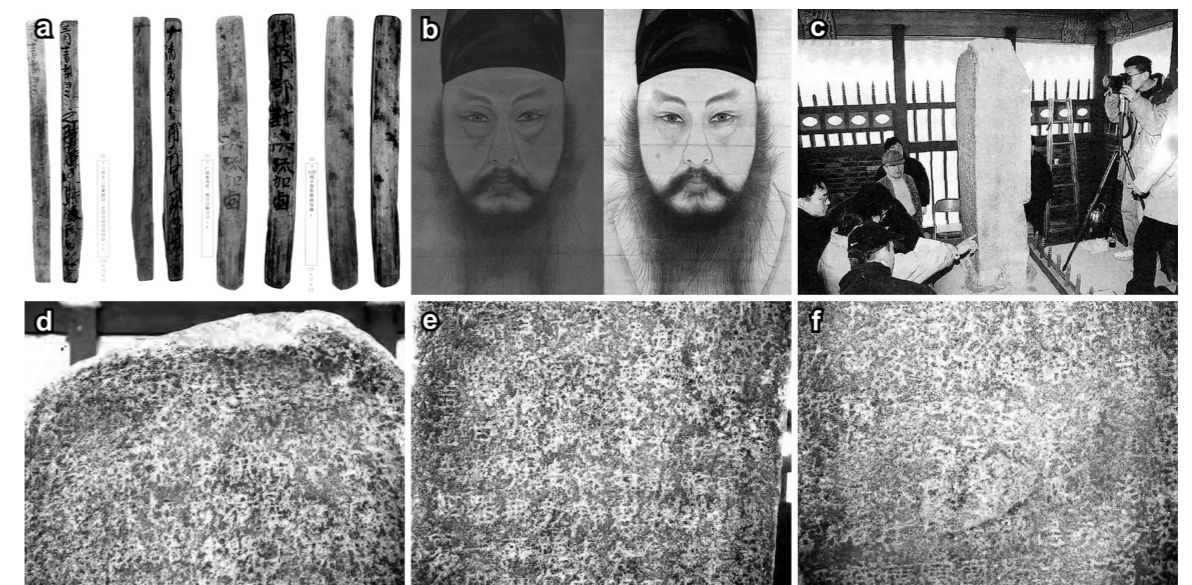
3c).^{20) 21)} 이 결과에 의하면 근적외선 사진을 통해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려운 글자를 쉽게 알아보는데 여러 곳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그림 3d~3f). 이러한 이유를 추정해보면, 고구려비는 발견 이후 지속적으로 탁본이 이루어졌고, 이때 표면에 잔류한 먹 성분이 근적외선을 흡수하여 상대적인 반사율 차이에 의해 일부 글자의 가독성을 높여줬을 가능성은 있다. 이는 표면에 먹 성분이 존재할 때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근적외선 카메라는 렌즈의 필터를 통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주로 통과시켜 가시광 영역의 컬러가 반사율에 따른 회색조로 변한다. 이때 적외선에 가까운 적색의 가시광선도 통과할 수 있어 획득한 이미지는 회색조를 바탕으로 약간의 색을 띠 수 있고, 조명 효과도 반영된다. 이처럼 특정 글자의 근적외선 반사 이미지가 판독에 적합한 조명 방향과 일치할 때 촬영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적외선 반사 촬영의 원리로 볼 때, 표면 형상을 중심으로 판독이 이루어지는 비문의 경우에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다소 의문도 있다. 먹 성분 또는 회색조 이미지에 의한 판독은 모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적외선 반사 촬영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밑그림이나 목간의 글자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금석문 판독에 최적화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다양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고증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근적외선 반사 촬영 적용 사례 및 충주 고구려비 선행 결과

(a) 부여 능산리 사지 출토 목간²²⁾ (b) 윤두서 자화상²³⁾ (c) 충주 고구려비 근적외선 반사 촬영 모습 (d~f) 충주 고구려비 근적외선 반사 촬영 결과²⁴⁾



20) 고구려발해연구 편집부, 2000, 앞의 논문, pp.39~41.

21) 徐吉洙, 2000 『중원고구려비 신석문 국제 워크샵과 국제학술대회』 『고구려연구』10, pp.125~165.

22)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0, 앞의 책, pp.14~15.

23) 천주현, 유혜선, 박학수, 이수미, 2006, 앞의 논문,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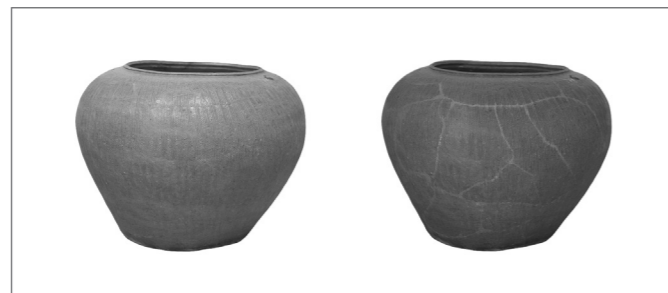
24) 고구려발해연구 편집부, 2000, 앞의 논문, pp.39~41.

3. 자외선 형광 촬영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단파장의 높은 에너지를 갖는 광원으로, 물질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흡수 및 형광 작용이 발생한다. 이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특정 물질이 자외선을 흡수하면 파장이 길어지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형광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때 주로 녹색이나 청색 계열의 선명한 색을 띠게 된다. 이러한 자외선의 형광 특성을 이용하여 표면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 자외선 촬영이며, 문화유산의 경우 주로 도·토기나 금속유물의 수리 부분을 찾는 데 이용된다(그림 4). 또한 회화 작품에 존재하는 바니시의 유무, 색 맞춤, 덧칠 흔적, 각종 오염물 등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다.

자외선 촬영법은 비문 판독에 있어 기존 가시광 영역과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형광 작용을 통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찾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문화재 보존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에서 형광 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글자의 가시화보다는 수리 여부의 판정에 중요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²⁵⁾

[그림 4] 중국 토기의 자외선 촬영 적용 사례²⁵⁾



4. 반사율 변환 영상 촬영

반사율 변환 영상(이하 RTI) 촬영은 Hewlett-Packard 실험실 연구자인 Malzbender et al.(2001)에 의해 개발되었다.²⁶⁾ 이 기술은 광원의 방향과 위치를 달리하여 촬영한 여러 개의 사진을 이용하여 문화유산 표면 형상을 가시화하는 방법이다(그림 5a, 5b). 전용 프로그램에서 픽셀 표면의 법선 값을 계산하고, RTI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촬영된 이미지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하여 사용자가 광원을 조정하며 형상을 관찰할 수 있다.

2001년 최초로 개발된 이후, RTI 촬영은 문화유산의 가시화 연구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상용화된 하드웨어를 통해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그림 5c). 대표적으로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CHI(cultural heritage imaging)는 RTI 촬영에 대한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국외 연구자들은 문양 및 문자의 가시화에 RTI를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소연과 김영민(2013)이 감산사 불상 명문에 대한 재판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²⁷⁾ 이후 많은 연구자가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충주 고구려비는 표면에 암석학적 특징과 음각으로 인한 미세한 조도 차가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각도의 조명을 조사하면 다양한 이미지의 음영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다. 또한

25) TK Asian Antiques, 2019, <http://www.tkasi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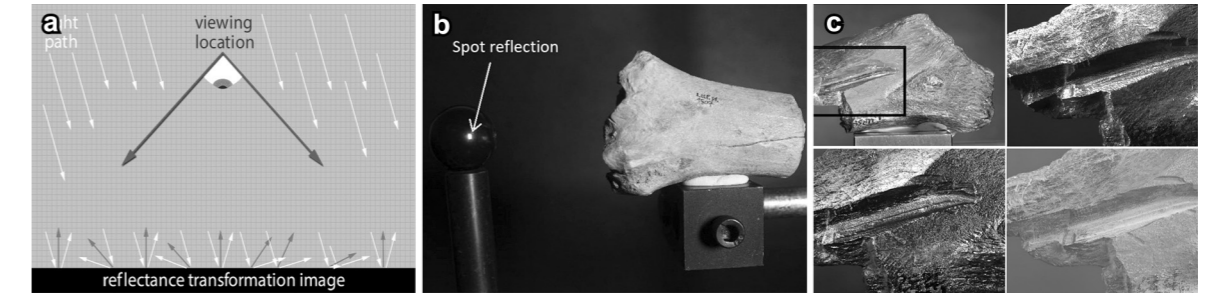
26) Malzbender, T., Gelb, D., Wolters, H., 2001 'Polynomial texture maps,' Proceedings of the 28th annual conference on Computer graphics and interactive techniques, pp.519~528.

27) 신소연, 김영민, 2013 'RTI 촬영을 통한 감산사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 명문 검토,' 『美術資料』84, pp.76~99.

이를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한 후 RTI 전용 뷰어에서 광원 방향을 조절하면 비문 판독에 있어 효율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RTI 촬영은 비접촉식 분석 방법으로, 향후 고고·미술사뿐만 아니라 보존과학, 법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조도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각도로 조명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한 영상에 빛을 비추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음각된 획만 보이는 한계가 있다.²⁸⁾

[그림 5] RTI 개념 및 적용 사례

(a) RTI 촬영 원리 (b) RTI 촬영을 위한 반사구의 위치 (c) RTI 이미지 모습²⁹⁾



5. 3차원 스캐닝

최근 들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3차원 스캐닝과 수치 영상 분석 기술이 문화유산의 기록화와 보존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3차원 스캐닝이란 표면에 투사한 광원의 간섭이나 반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점군(point clouds) 형태의 3D 형상 정보 또는 공간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물의 형상을 측정하고, 측정 데이터를 구조화된 점집합으로 변환하고, 점집합으로부터 3D 형상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상 모델링 과정을 거쳐 동일 형상의 실물이나 컴퓨터상의 디지털 모델로 만들기 때문에 형상 역공학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3차원 스캐닝 데이터는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대상 문화유산의 형상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한 디지털 기록화는 제작 당시의 도면이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소실되거나 갑작스러운 문화유산의 보수 및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3차원 스캐닝 기술은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물론 3차원 스캔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판독에 적합한 방식과 해상도를 획득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충주 고구려비의 3차원 스캐닝은 총 3차례에 정도 수행된 바 있으며, 각 스캐닝은 적용 목적이 매우 다양하였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03)은 문화재의 3차원 콘텐츠 생성 및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인터넷 사이버 뮤지엄을 구축하기 위해 3차원 스캐닝 기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³⁰⁾ 현장 3차원 스캔은 15cm 정도의 길이

28) 허의주, 최강선, 2019 「다항 회귀 분석을 이용한 3차원 비석 데이터 내 글자 새김 추출법」 『전자공학논문지』56, pp.73~80.

29) Morita, M.M., Novoa, F.D., Bilmes, G.M., 2019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First applications in cultural heritage in Argentin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Reports』26, 101899.

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3, 『3D Cyber Museum 기술』 정보통신부.

로 설정하였으며, 데이터 정합을 위해 50% 정도의 면적을 중복시켰다. 이때 사용한 스캐너는 Minolta사의 VIVID700로, 총 스캔 이미지는 232장이며, 총 폴리곤 수는 2,360,000개이다.

박동진 외(2008)는 국내 10개의 비석에 대한 디지털 보존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하여 모형을 제작한 바 있다.³¹⁾ 이때 충주 고구려비의 디지털 기록화를 수행하였는데, 사용된 3차원 스캐너는 Minolta 사의 VIVID910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광각렌즈를 부착하여 평균 1mm의 정밀도로 취득하였고, 비문에 대해서는 표준렌즈를 이용하여 정밀도 평균 0.4mm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문화재청은 2017년도 문화유산 디지털 세트 3차원 기록 자원 DB 구축의 일환으로 충주 고구려비의 3차원 스캐닝을 실시한 바 있다. 이때 사용한 장비는 핸드헬드형 3차원 스캐너인 Artec 사의 Eva와 고정형 3차원 스캐너인 LMI TECHNOLOGIES사의 R3X이다. 이 스캐닝 결과물은 이전과 다르게 비교적 고정밀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웹 뷰어뿐만 아니라 3차원 프린팅용으로 서비스되고 있어 3차원 모델로서 상당히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점데이터(164,926개)와 폴리페이스(329,373개) 개수와 점 간격(4.88mm)이 고구려비의 비문 판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충주 고구려비의 디지털 판독과 전체 형상에 대한 보존 관리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3차원 스캐닝을 통한 디지털 기록화를 수행하였다. 특히 고구려비의 3차원 모델링과 비문 판독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다각적 해석이 가능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중대역 스캐닝으로 고구려비 전시관 전체에 대한 공간 정보를 기록하였고, 비석에 한해서는 두 방식의 핸드헬드형 정밀 스캐닝으로 전체 형상에 대한 상세 수치 정보를 획득하였다. 비문에 대해서는 고정형 고정밀 스캐닝의 해상도를 달리하여 개별 글자의 정밀한 입체 형상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충주 고구려비의 3차원 모델에는 총 5가지의 스캔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각 스캐닝 데이터의 활용성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IV. 3차원 스캐닝 및 디지털 기록화

1. 3차원 스캔

충주 고구려비는 크게 세 가지의 입체 정보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전시관 내 비석이 위치하는 공간 정보이고, 둘째는 비석의 크기와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외형 정보이며, 셋째는 비석의 내용을 담고 있는 비문, 즉 글자정보이다. 그러나 고구려비는 전체적으로 글자의 표면 마모가 심해 글자의 원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3차원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고구려비의 공간, 외형 및 글자의 디지털 기록화와 이 결과를 이용한 비문 판독 및 보존 관리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특히 각 글자의 정밀한 형상 정보와 3차원 수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스캔 범위와 중첩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최대한 원형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다.

충주 고구려비는 원래 가금면 용전리 입석마을 초입에 세워져 있었으나, 비석이 도로에 인접해 있고 지속

31) 박동진, 윤동훈, 심현용, 2008 「3D 스캔을 이용한 비석의 모형 제작 연구」 『慶州文化研究』10, pp.19~36.

적으로 야외 환경에 노출되어 2012년도에 전시관을 설치한 후 내부에서 보존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위치 및 공간 정보에 대한 3차원 디지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시관의 입구부터 고구려비까지 총 29지점에 대해 중대역 스캔을 실시하였다(그림 6a). 고구려비의 공간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중대역 스캐너는 Class 1(IEC 60825-1:2014) 레이저를 이용하는 주행 시간(TOF; time-of-flight) 방식이다. 이 스캐너는 초당 최대 360,000점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고, 단일 측정 정확도는 스캔 범위 10m에서 4mm, 20m에서 7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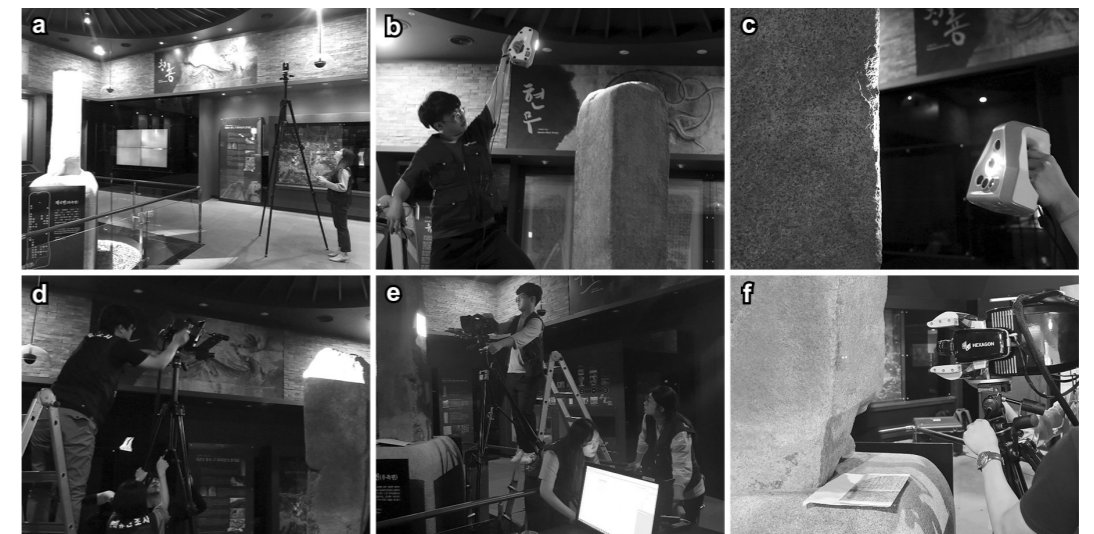
한편 중대역 스캔은 시야각과 낮은 점밀도로 인해 비석의 미세 형상과 비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대역 스캔에 비해 점밀도가 뛰어난 정밀 스캔을 적용하였다. 이 정밀 스캔은 크게 핸드헬드형 방식과 고정형 방식이 있는데, 이 중 전자는 이동성과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장점이 있고, 후자는 해상도와 정확도가 탁월하다. 먼저 비석 전체 형상을 기록하고, 수평적 기준점을 설정하는 데 이용된 방식은 핸드헬드형 정밀 스캔이다.

이 스캔은 한 대의 카메라와 광원(백색광 또는 청색광)을 이용한 삼각 측량 방식으로 작동한다. 연구에 사용된 핸드헬드형 정밀 스캐너는 크게 백색광과 청색광 방식으로, 이 방식은 공통적으로 24bpp의 색상과 1.3MP의 텍스처 해상도를 가지나 해상도, 정확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중 백색광 방식은 최대 0.5mm의 해상도와 0.1mm의 점데이터 정확도를 가지며, 청색광 방식은 최대 0.1mm의 해상도와 0.05mm의 점데이터 정확도를 가지는 고정밀 스캐너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평적 기준점이 되는 받침대를 포함한 비석의 전체 형상은 백색광을 이용한 핸드헬드 스캐너를 이용하였고(그림 6b), 글자를 포함한 비석의 형상은 청색광 방식의 핸드헬드 스캐너를 적용하였다(그림 6c).

한편 고정형 고정밀 스캐너는 구조광을 대상물에 투사하여 대상물의 형상 정보와 수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스캐너이다. 전체 비문의 디지털 기록화에 사용된 3차원 스캐너(LMI TECHNOLOGIES, HDI Advane R3X)는 백색 구조광과 두 대의 스테레오 카메라(2.8MP)를 이용한 삼각 측량 방식이며, 이 연구에서는 12mm 렌즈를 FOV 200mm로 설정하여 40μm의 정확도로 스캔하였다(그림 6d~6e). 또한 마모가 심하고 일부 재판독이 필요한 글자에 한해서는 청색 구조광과 두 대의 스테레오 카메라(16MP)를 이용하는 초고정밀 3차원 스캐너(Hexagon, StereoScan neo)를 이용하였다(그림 6f). 스캔은 FOV 550mm에서 정확도 25μm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6] 충주 고구려비의 현장 3차원 스캔 모습

(a) 중대역 스캔 (b) 백색광을 이용한 핸드헬드형 정밀 스캔 (c) 청색광을 이용한 핸드헬드형 고정밀 스캔
(d, e) 백색광을 이용한 고정형 고정밀 스캔 (f) 청색광을 이용한 고정형 초고정밀 스캔



2. 데이터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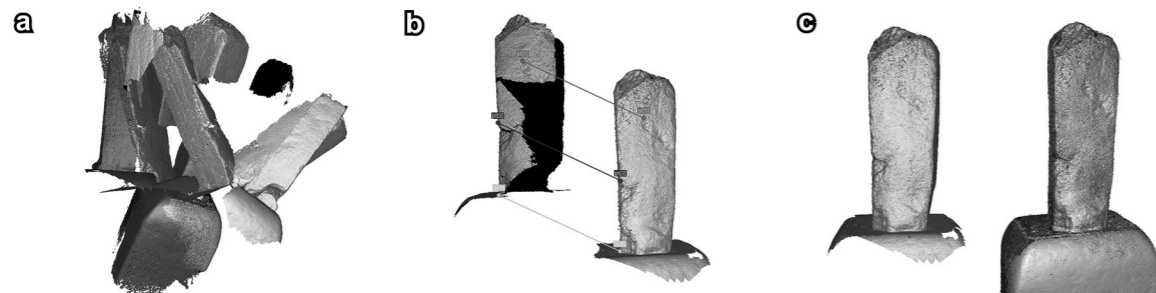
3차원 스캐너로 현장에서 획득한 수치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은 원시 형상 정보만을 제공한다(그림 7a). 따라서 현장에서 취득한 여러 컷의 원시 데이터를 정리하고, 하나의 형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은 정합(registering), 병합(merging), 필터링(filtering) 등을 거치고, 최종 면 보강을 실시한 후 RGB 텍스처 매핑을 거쳐 3차원 모델링을 완성한다. 지상 레이저 스캔은 점군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이 이루어지지만 정밀 스캔은 폴리곤메시 형태로 데이터 처리가 진행된다.

고구려비의 3차원 스캔 결과는 공통 대응점을 지정하여 좌표를 결합하는 형상 정합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때 최대한 좋은 정합 결과를 얻기 위해 평면보다 모서리나 곡률이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정합하였고, 프로그램상의 에러 벡터 보정 기능을 이용하여 정확한 정합을 완료하였다(그림 7b). 정합에 의해 최종적으로 위치가 결정된 각각의 점군 데이터는 아직 하나의 객체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정합이 완료된 모든 스캔 데이터를 불러온 후 각 정합 결과물을 병합하여 하나의 객체로 완성하였다(그림 7c).

고구려비의 병합 결과에는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어 필터링을 통해 데이터 무게를 최소화한 후 정밀 스캔에서 부분적으로 미세하게 발생한 데이터 공백은 면 보강 기능을 통해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스캔 시 획득한 색상 정보의 밝기와 색도 등을 조절한 후 최종 폴리곤메시 모델에 RGB 텍스처를 매핑하여 최종 모델링을 완성하였다.

[그림 7] 충주 고구려비의 3차원 스캔 데이터 처리 과정

(a) 개별 3차원 스캔 데이터 (b) 형상 정합 (c) 정합 및 병합 결과



3. 3차원 모델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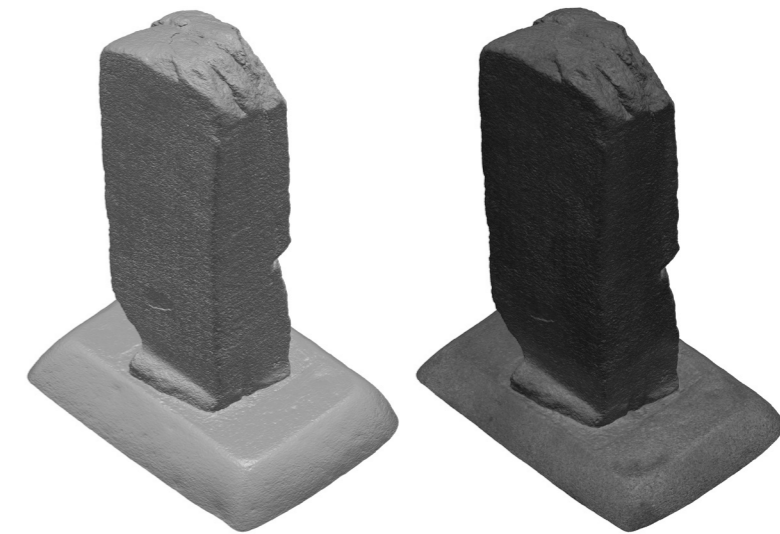
충주 고구려비의 3차원 스캐닝 결과는 전체적인 형상과 비문을 잘 표현하였으며, 폴리곤메시와 RGB 텍스처 매핑 결과 모두 뛰어난 품질을 보였다(그림 8). 이를 토대로 충주 고구려비의 크기를 실측한 결과, 비석의 크기는 전면 기준 폭 560mm × 두께 397mm × 높이 1,552mm이고, 받침석 포함한 크기는 폭 1,124mm × 두께 815mm × 높이 2,876mm로 산출되었다. 또한 받침대를 제외한 비석의 전체적인 표면적은 27,747cm²이고, 부피는 265,353cm³로 산출되었다. 각 면의 폭과 두께는 전면 549 × 1,476mm, 좌측면 396 × 1,403mm, 우측면 343 × 1,444mm, 후면 519 × 1,548mm로 폭은 전면이 가장 넓고, 높이는 후면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5종류 3차원 스캔 방식의 모델링 결과를 대상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 점군 데이터와 폴리곤메시의 개수와 평균 점 간격을 비교하였다. 먼저 중대역 스캐닝은 290,225,180의 점군 데이터로 전시관 전

체 공간을 디지털화하였으며, 특히 비석은 937,013개의 점밀도를 보였다(표 2). 또한 고구려비의 전체 3차원 형상 모델링에 사용된 핸드헬드형 정밀 스캐닝은 평균 0.81mm의 평균 점간격을 보인 반면 핸드헬드형 고정밀 스캐닝은 평균 0.30mm의 평균 점 간격을 나타냈다.

고정형 고정밀 스캐닝을 통한 각 비면의 3차원 모델은 약 4억 3천만 개의 폴리페이스를 가지며 평균 0.12mm의 점 간격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재판독이 필요했던 비문에 사용된 고정형 초고정밀 3차원 스캐닝은 약 4억 5천만 개의 폴리페이스와 평균 0.05mm의 점 간격을 나타냈다. 이처럼 다양한 3차원 스캐닝 모델은 수천만 개에서 수억 개의 점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비석의 공간 및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비문의 배열 특징, 글자의 디지털 판독까지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비문과 글자는 데이터 해상도가 뛰어나고 매우 미세한 점 간격을 보여 디지털 판독에 훌륭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그림 8] 충주 고구려비의 3차원 폴리곤메시 모델과 RGB 텍스처 매핑 모델



[표 2] 충주 고구려비의 3차원 스캐닝 결과

3차원 스캐너	스캔 방식		점군 데이터	폴리페이스	평균 점 간격
Leica, BLK360	고정형 중대역	공간	290,225,180	-	-
		비석	937,013	-	-
Artec, Eva	핸드헬드형 정밀	비석	5,762,113	11,521,439	0.81mm
Artec, Spider	핸드헬드형 고정밀	비석	47,822,892	95,635,972	0.30mm
LMI TECHNOLOGIES, R3X	고정형 고정밀	전면	72,426,103	144,180,474	0.12mm
		좌측면	35,571,433	70,895,939	0.14mm
		우측면	40,339,230	80,257,514	0.12mm
		후면	70,583,998	140,365,697	0.11mm
		전체	218,920,764	435,699,624	0.12mm
Hexagon, StereoScan neo	고정형 초고정밀	일부 비문	185,834,698	454,611,132	0.0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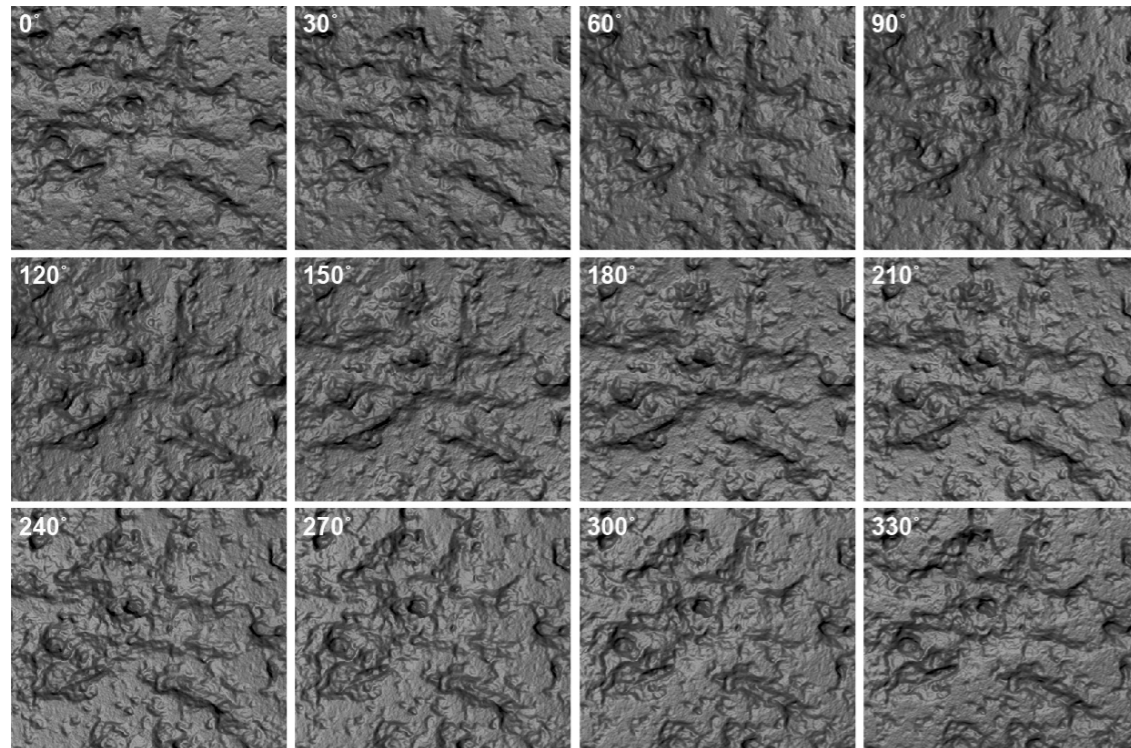
V. 비문 가시화 렌더링 및 디지털 판독

최근 컴퓨터 비전과 영상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시화 렌더링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금속문에 대한 디지털 판독은 비교적 활발히 적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영상 분석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충주 고구려비의 명문을 대상으로 3차원 스캐닝 기반의 가시화 렌더링을 수행하였고, 각 렌더링 기술의 적용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고구려비의 디지털 판독에는 빛, 심도, 곡률 기반의 가시화 렌더링 기술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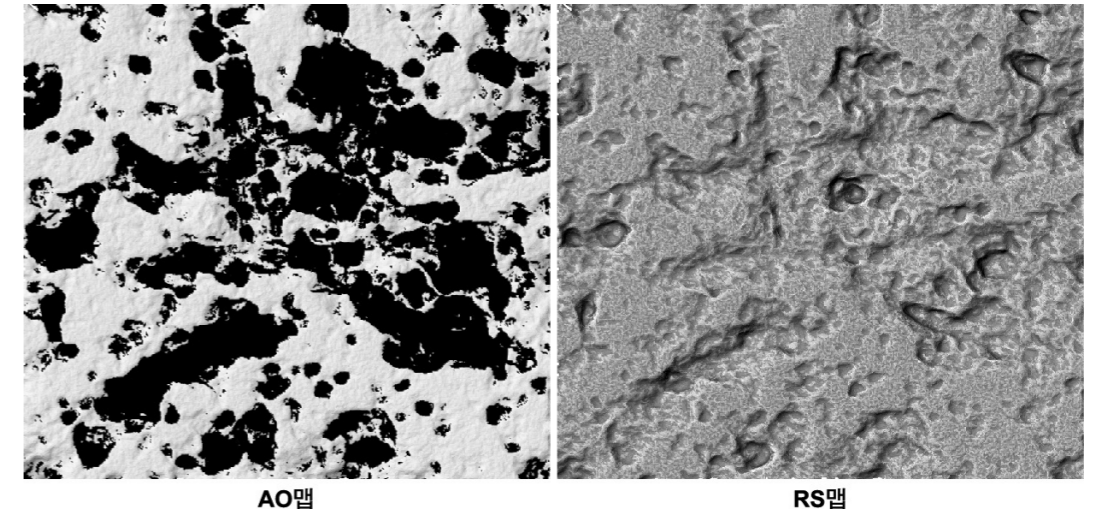
이 중 빛 기반 렌더링은 고구려비 개별 글자의 입체 형상을 대상으로 조명 방향에 따른 음영 효과를 적용하여 글자의 가독성과 가시화를 검토하였고, 이와 함께 엠비언트 오클루전(ambient occlusion, 이하 AO맵)과 레디언스 스케일링(radiance scaling, 이하 RS맵) 렌더링 기술을 적용하였다. 먼저 디지털 조명을 이용한 음영 효과의 경우, 글자로부터 조명을 약 3.5cm 거리에 위치시키고 직경 6cm의 가상의 원을 만든 다음 회전시켰다. 이때 조명이 회전함에 따라 음영이 달라져 글자의 음각 부위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

AO맵은 빛의 차폐로 인한 감쇠 근사치를 구하는 기법이며, RS맵은 표면 곡률과 재료 특성에 따라 반사광의 강도를 조정하는 기법이다. 이 두 렌더링은 문화유산 문양 및 글자 가시화 연구에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충주 고구려비에 AO맵과 RS맵을 적용한 결과, 글자의 음각 깊이와 특성에 따라 명암 및 곡률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나 글자 판독의 가시화 정도가 향상되었다(그림 10).

[그림 9] 음영 효과를 통한 디지털 판독 결과(전면 3행 22자 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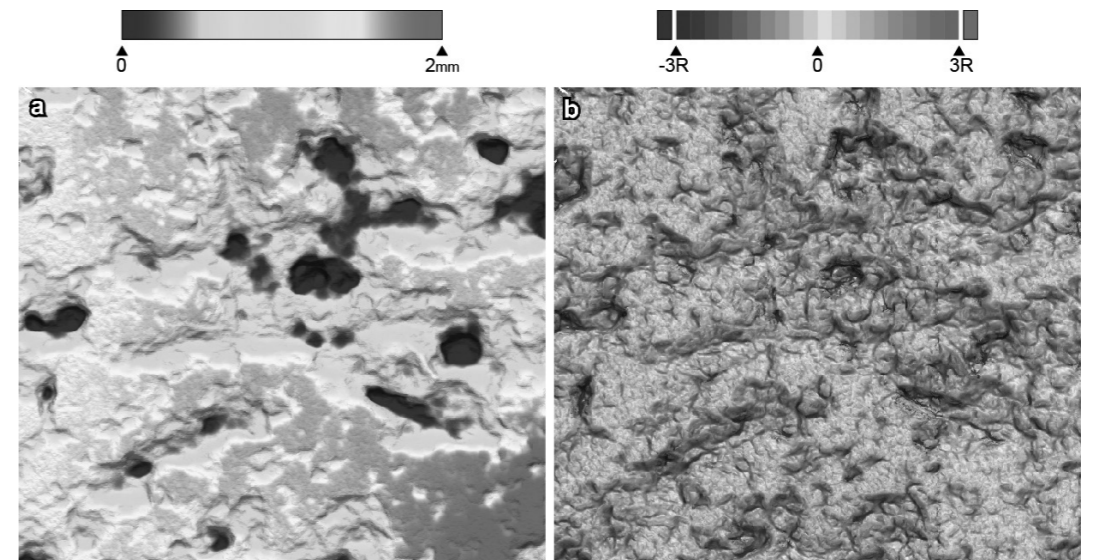


[그림 10] AO맵과 RS맵을 이용한 디지털 판독 결과(전면 3행 22자 共)



3차원 스캐닝 데이터는 각 점의 위치가 좌표로 나타나며, 이 좌표 또는 특정 입체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깊이를 매핑하는 기술이 심도맵이다. 즉, 높이 값(Z축)을 컬러맵으로 저장함으로써 모델의 형상을 가시화할 수 있다. 주로 높이가 같은 지점을 동일한 색상으로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등고선 방식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경사도, 경사 방향, 형상 분석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표면이 충분히 매끈하고, 세부적인 정보가 확실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³²⁾ 충주 고구려비 3행 22자(共)의 심도맵 결과를 보면, 부분적으로 입상 분해로 인한 잡음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필획이 매우 선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그림 11a).

[그림 11] 심도맵(a)과 곡률맵(b)을 이용한 디지털 판독 결과(전면 3행 22자 共)



32) 허의주, 최강선, 2019, 앞의 논문, p.74.

곡률 기반 렌더링은 물체의 곡선 또는 곡면이 흰 정도를 역수로 취해 변화율을 매핑하는 기법이다. 곡률은 곡선이 급변하는 양과 음의 방향에 대한 상대적 차이를 통해 글자가 가시화되며, 이를 통해 비문의 판독이 가능해진다. 충주 고구려비 3행 22자(共)의 곡률맵 결과를 보면, 글자 음각의 경계부를 따라 붉은색의 높은 곡률 수치가 나타나며, 반대 방향으로 푸른색의 낮은 곡률 수치가 매핑되었다. 전체적인 곡률은 -160.8R~50.1R이며, RMS는 1.5R로 산출되었다(그림 11b).

VI. 디지털 형상 분석

1. 비문 배열 및 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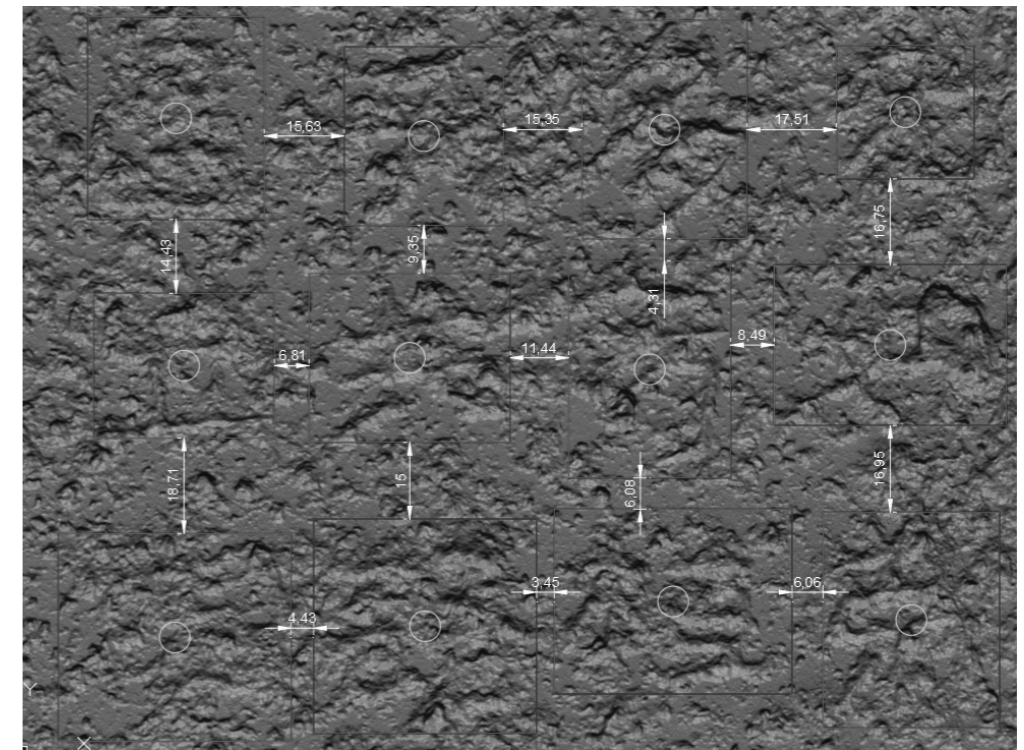
충주 고구려비는 육안상 비문의 일정한 배열을 위한 횡선과 종선이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자 당시 배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비문의 배열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1~4행 21~23자의 상대 좌표를 비교하였다(그림 12). 먼저 동일 행의 X축을 비교한 결과, 1행은 170~174mm, 2행은 122~128mm, 3행은 76~79mm, 4행은 30~32mm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4mm의 범위 내에서 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또한 Y축인 각 글자의 위치를 살펴보면, 21자는 121~125mm, 22자는 75~80mm, 23자는 22~29mm로 최대 7mm 이 내에서 높이 차이를 나타냈다. 위치적 배열 특징만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5mm 내외의 편차를 보였으며, 글자의 행간 중심 좌표가 자간에 비해 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글자의 행 간격은 3.5~17.5mm 범위에서 평균 9.9mm를 보였고, 글자 간격은 4.3~18.7mm 범위에서 평균 12.7mm로 확인되었다. 행과 글자 간격의 표준 편차는 각각 5.0mm와 5.1mm로 산출되었다(그림 12). 12글자에 한해서 분석한 결과이지만 전체적으로 행 간격보다 글자 간격이 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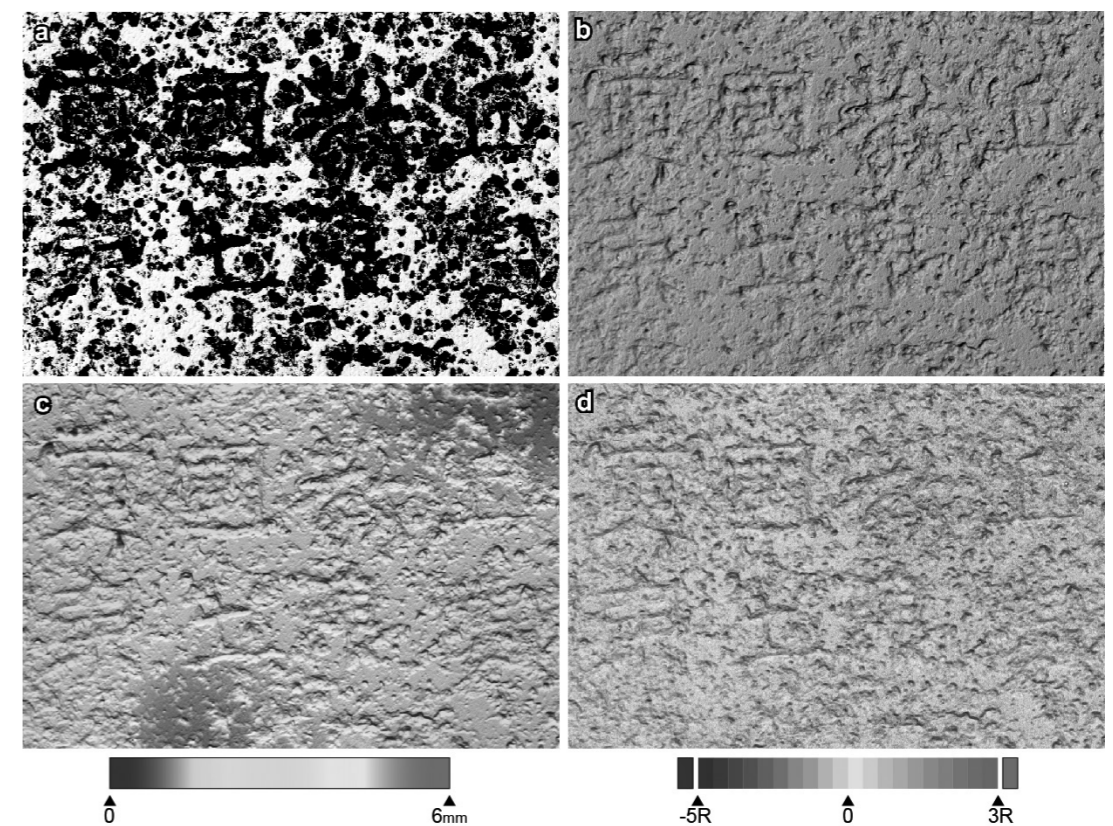
[표 3] 충주 고구려비 비문의 배열 특징

위치	글자	X축 좌표	Y축 좌표
1행 21자	兄	173mm	125mm
1행 22자	如	170mm	80mm
1행 23자	弟	174mm	26mm
2행 21자	多	126mm	122mm
2행 22자	于/兮	122mm	75mm
2행 23자	桓	128mm	29mm
3행 21자	子	79mm	121mm
3행 22자	共	76mm	77mm
3행 23자	語	79mm	25mm
4행 21자	建	30mm	124mm
4행 22자	立	32mm	76mm
4행 23자	處	30mm	22mm

[그림 12] 충주 고구려비 비문 배열 및 간격 분석 결과



[그림 13] 충주 고구려비의 물갈이 흔적
(a) AO맵 (b) RS맵 (c) 심도맵 (d) 곡률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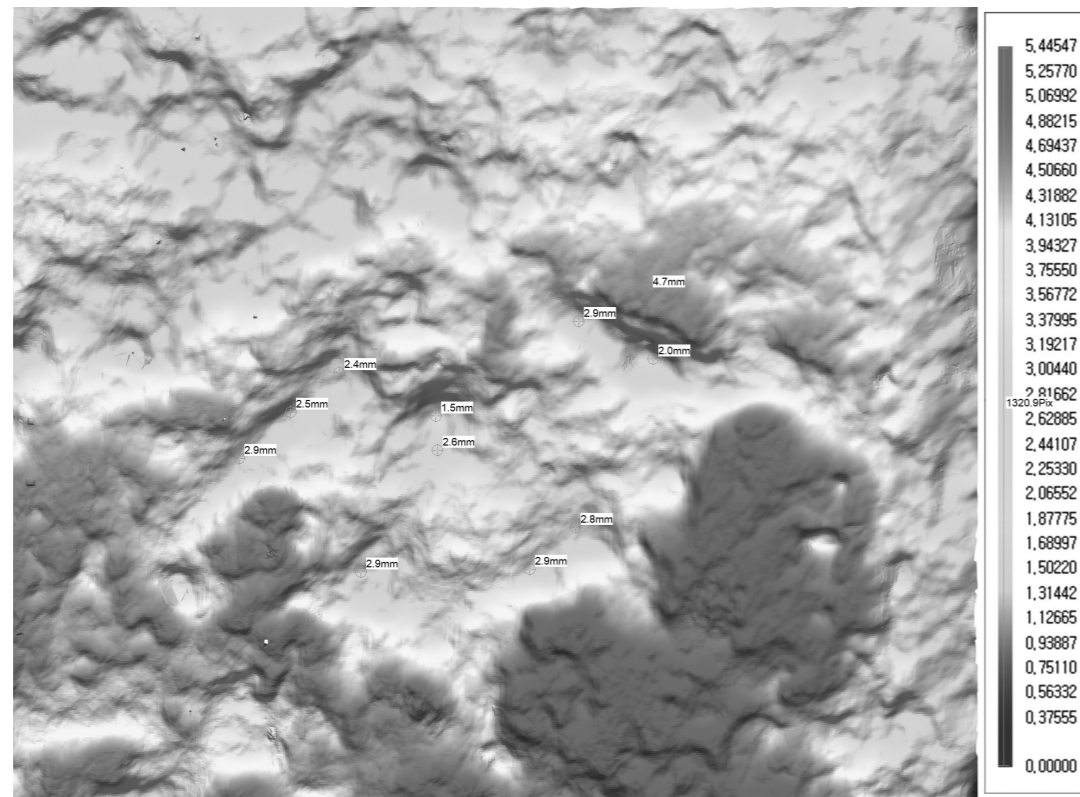
2. 비석 표면 특징

충주 고구려비는 화강암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글자의 음각 부분을 중심으로 표면을 연마한 물갈이 흔적이 관찰된다. 이러한 물갈이 흔적은 울진 봉평리 신라비, 포항 중성리 신라비, 영일 냉수리 신라비, 영천 청제비, 단양 신라 적성비,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등에도 잘 나타난다. 충주 고구려비의 물갈이 흔적을 살펴보기 위해 3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시화 렌더링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 비면 중 전면에서 물갈이 흔적이 두드러졌으며, 표면 마모 현상이 비교적 덜한 하부가 좀 더 확연히 드러났다(그림 13). 이러한 물갈이 흔적은 글자의 가독성을 높여주고, 음각 깊이 정량화에 있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형상 정보라고 할 수 있다.

3. 음각 깊이 분석

충주 고구려비 판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문의 음각 형태이다. 음각이 깊고 선명하거나 물갈이 표면과 대비가 뚜렷할 때 비문의 가독성은 높아진다. 이 연구에서는 고구려비 전면을 대상으로 개별 글자에 대한 음각 깊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 판독 결과와 디지털 판독이 일치하는 글자를 '상'으로 분류하였고, 글자 판독에 이점이 존재하거나 디지털 판독의 어려움이 있는 글자를 '하'로 구분하였으며, 각 글자별 15개를 선정하여 음각 깊이에 대한 영상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14).

[그림 14] 충주 고구려비의 심도맵을 이용한 음각 깊이 분석 방법



먼저 '상'으로 분류된 글자 15개를 대상으로 음각 깊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0.6~5.1mm 범위의 비교적 넓은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음각 깊이는 2.5mm로 산출되었다. 이 중 수치적으로 가장 깊은 글자는 2행 4자(知)로, 1.7~4.5mm의 범위에서 평균 3.0mm를 나타냈다. 한편 고구려비 비문 중 판독 '하'로 분류된 15글자에 대한 음각 깊이 분석 결과, 0.9~3.4mm의 범위에서 평균 1.8mm로 확인되었다. 이 중 음각 깊이가 가장 낮은 10행 6자(△)는 전체적으로 2.0mm 이내에서 평균 1.5mm를 보였다(표 4).

[표 4] 충주 고구려비 비문의 음각 깊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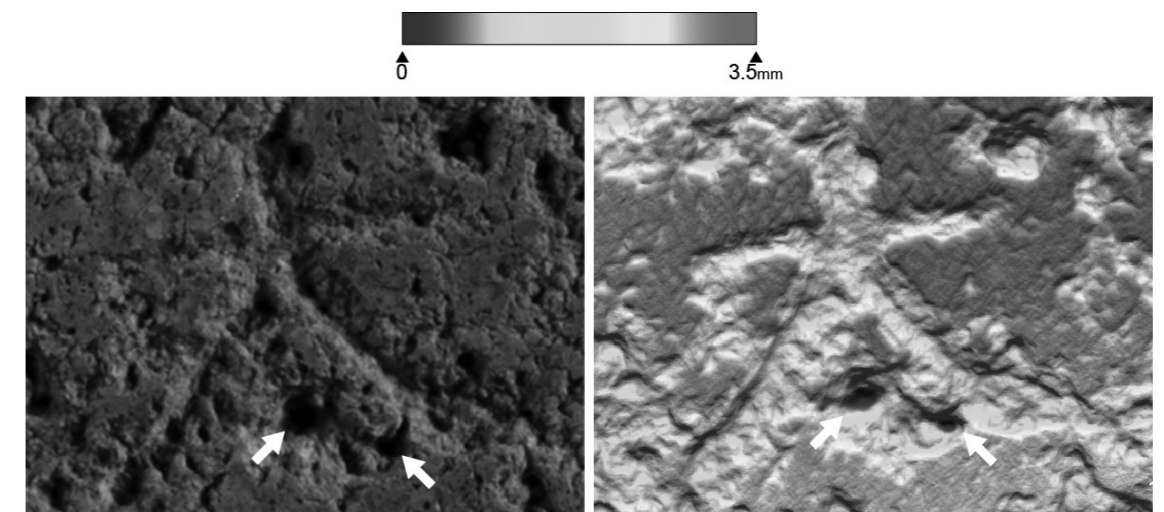
대상	평균	최소	최대
판독 '상'	2.5mm	0.6mm	5.1mm
판독 '하'	1.8mm	1.7mm	4.5mm

4. 재질 특성과 판독 영향

충주 고구려비는 국내 대부분의 삼국시대 비석과 마찬가지로 화강암으로 제작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2003) 역시 충주 고구려비의 암석을 흑운모화강암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암석을 육안 관찰한 결과, 일반적인 화강암으로만 명명하기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동이다. 정동은 암석 속에 생긴 틈이나 공동으로, 내벽에 자형의 석영 혹은 형석 등의 결정들이 뿔뿔한 상태로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구려비 일대의 지질도 상에는 정동질 화강암에 대한 보고가 없어 향후 과학적 재질 특성과 산지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석 전체적으로 정동이 관찰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고구려비의 암종을 정동질 화강암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정동은 이차 오염물과 수분의 유입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풍화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주요인이다. 그러나 다행히 고구려비는 현재 전시관 내에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정동에 의한 손상은 큰 우려 대상이 아니다.

[그림 15] 정동을 보여주는 3행 20자(太)의 사진 및 심도맵 결과



오히려 정동이 글자의 판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3행 20자(太)를 보면, 大의 획은 매우 선명하나 점이 있는 부분은 정동으로도 보인다(그림 15). 특히 이 점은 좁은 면적에서 상당히 수직적으로 깊이 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大의 음각 특성과 상반되는 특징으로, 이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주 고구려비의 암석학적 특징인 정동은 분석한 글자 이외에도 오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재질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VII. 고찰 및 결론

충주 고구려비는 2019년 발견 4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고구려비의 건립 목적, 입지, 전개 과정, 주변국과의 관계, 주요 쟁점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고, 특히 발견 직후부터 최근까지 비문에 대한 판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판독은 주로 탁본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나, 최근 3차원 스캐닝과 영상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판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3차원 스캐닝 기반의 디지털 기록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선행 판독 결과의 가치를 높이고, 기존에 밝히지 못했거나 논쟁이 되었던 비문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였다. 특히 고구려비의 글자 위치, 음각 깊이, 행간 및 자간 특징, 물갈이 흔적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비문의 미세 형상을 가시화하여 디지털 판독의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충주 고구려비의 디지털 기록화는 총 5종류의 스캔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각 방식별로 점군 데이터 및 폴리페이스의 개수와 평균 점 간격을 산출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정형 고정밀 스캐닝은 약 4억 3천만 개의 폴리페이스를 가지며 평균 0.12mm의 점 간격을 보였고, 일부 디지털 재판독이 필요했던 비문에 사용된 초고정밀 3차원 스캐닝은 약 4억 5천만 개의 폴리페이스와 평균 0.05mm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데이터 해상도가 뛰어나고 매우 미세한 점 간격을 보여 디지털 판독에 훌륭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따라서 고해상도 3차원 수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문과 개별 글자의 디지털 판독을 위해 빛, 심도 및 곡률 기반의 가시화 렌더링을 수행하였다. 먼저 AO맵과 RS맵의 결과를 보면, 글자의 음각 깊이와 특성에 따라 명암 및 곡률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나 글자 판독의 가시화 정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도맵은 부분적으로 입상 분해로 인한 잡음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필획의 깊이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났으며, 곡률맵은 음각의 경계부를 드러나게 하였다. 전반적으로 심도맵의 활용성이 가장 높았지만 글자의 형태와 풍화 상태에 따라 AO맵, RS맵 및 곡률맵의 적용성도 뛰어났다.

충주 고구려비 비문의 배열 특징을 살펴본 결과, 개별 글자의 위치는 4~5mm의 범위 내에서 편차를 보였고, 행 및 글자 간격은 각각 평균 9.9mm와 12.7mm로 산출되었다. 이 비석은 표면 물갈이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 글자의 음각 깊이가 정량화에 있어 기준점이 되었고, 탁본 및 디지털 판독에서 '상'으로 분류된 글자는 평균 2.5mm의 음각 깊이를 나타냈다. 또한 비문 판독 중 '하'로 분류된 글자는 평균 1.8mm의 음각 깊이를 보였다. 이러한 필획 분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구려비의 암석학적 특징인 정동이다. 특히 '太'의 경우, 大의 획은 매우 선명하나 점이 있는 부분은 정동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글자 판독 시 재질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탁본으로 진행했던 비문 판독을 3차원 스캐닝 기반의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큰 의미가 있

고, 향후 지속적인 판독이 가능하도록 아카이빙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최초 연구 계획 당시 다른 금석문과 유사한 판독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글자의 마모가 심하고 2mm 이내의 음각 깊이를 가지는 글자가 많아 판독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 현재 3차원 스캐닝을 통한 디지털 기록화는 완료했으나, 약 400여 자 중 정밀 영상 분석은 전면을 중심으로 약 50% 정도 완료되었다. 특히 디지털 판독 과정 중에 금석문 전문가들의 고견이 있어서 연구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영상 분석은 선행 디지털 판독에서 유용성을 보인 기술을 중심으로 적용하였고, 이 외에도 국내외적으로 RTI와 새로운 컴퓨터 비전 방식 등이 함께 적용되고 있어 향후 디지털 판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구축한 고정밀 3차원 수치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영상 분석 기술과 접목하여 충주 고구려비 판독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진원, 2017 「고구려 석비 문화의 전개와 변천 : 비형(碑形)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103

고광의, 2017 「고구려 碑에 대한 고찰」 『목간과 문자』18

고구려발해연구 편집부, 2000 「중원고구려비 비면 사진 및 탁본」 『高句麗研究』10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2018 국가 지정 건조물 문화재 정기 조사 : 충북·충남」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0, 「나무 속 암호 목간」, 예맥

김창호, 2000 「中原高句麗碑의 건립 연대」 『高句麗研究』10,

문화재청, 2019,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8」

박찬홍, 2013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과 신라의 위상」 『한국사학보』51

徐吉洙, 2000 「중원고구려비 신석문 국제워크숍과 국제학술대회」 『고구려연구』10

金洋東, 2000 「中原 高句麗碑와 高句麗 金石文의 書體에 대하여」 『高句麗研究』10

신소연, 김영민, 2013 「RTI 촬영을 통한 감산사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 명문 검토」 『美術資料』84

안재홍, 공달용, 원광연, 2013 「문화 및 자연 유산의 해석을 위한 3차원 스캔 모델의 가시화: 공룡 발자국의 기록과 해석 사례」 『한국HCI학회 논문지』8

이상욱, 배고운, 남궁훈, 남도현, 정광용, 2018 「능산리 고분군 동하층 벽화 보존 상태 진단」 『보존과학회지』34

이찬희, 조영훈, 김선덕, 2012 「함안군 대치리 공룡 발자국 화석의 3차원 영상 분석과 손상도 평가 및 과학적 보존 처리」 『지질학회지』48

林起煥, 2000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본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高句麗研究』10

장창은, 2005 「中原高句麗碑의 판독과 해석」 『신라사학보』5

張彰恩, 2006 「中原高句麗碑의 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 『역사학보』189

鄭永鎬, 2000 「中原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意義」 『고구려연구』10

조영훈, 이찬희, 심현용, 2013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재판독과 보존과학적 진단」 『문화재』46

천주현, 유혜선, 박학수, 이수미, 2006 「尹斗緒 自畫像의 표현 기법 및 안료 분석」 『미술자료』74

최원호, 고선우, 2016 「각자된 글자의 형태적 시각화를 이용한 금석문 판독 방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7

하일식, 2019 「한국 고대 금석문의 발견지와 건립지」 『한국고대사연구』9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3, 『3D Cyber Museum 기술』 정보통신부

허의주, 최강선, 2019 「다항 회귀 분석을 이용한 3차원 비석 데이터 내 글자 새김 추출법」 『전자공학논문지』56

Anderson, S.E., Levoy, M., 2002 「Unwrapping and visualizing cuneiform tablets」 『IEEE Computer Graphics and Applications』22

Malzbender, T., Gelb, D., Wolters, H., 2001 「Polynomial texture maps」 『Proceedings of the 28th annual conference on Computer graphics and interactive techniques』

Morita, M.M., Novoa, F.D., Bilmes, G.M., 2019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First applications in cultural heritage in Argentin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Reports』26, 101899

TK Asian Antiques, 2019, <http://www.tkasian.com/>

문화재청 홈페이지 : <http://www.heritage.go.kr/>

재검토 충주 고구려비 판독문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은 고구려 시대의 비석, 목서명, 금속기명, 토기명, 와전명 등 문자 자료의 종합적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료가 부족한 고구려사 연구에서 남북한 및 중국 지역에서 보고된 금석문 자료를 파악하여 자료집으로 제작, 고구려 연구의 기초 자료 확보하고 이를 학계에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 하에 필자는 2019년도 기획연구 과제로 ‘충주 고구려비의 금석학적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비가 발견된 지 40주년을 맞아 재단과 한국고대사학회가 공동으로 충주 고구려비를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기획하게 되었고 사전에 두 차례에 걸친 공동 판독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진은 기존에 접하지 못한 3D 스캐닝 데이터와 RTI 촬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비면을 고해상으로 촬영한 디지털 사진과 문화재청의 협조로 탁본 제작 과정을 참관하였고 양질의 탁본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휴관일에 현장 작업을 진행하면서 10회 가깝게 비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판독 작업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파악된, 특히 그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제액 부분과 간지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II. 선행 연구

충주 고구려비는 1979년 충주 지역의 문화재 애호가들의 모임인 예성동호회에 의해 처음 문자비로 확인되었다. 이후 동호회 회원인 장준식(당시 대학원생)의 제보를 받은 정영호 교수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학술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단은 단국대학교 사학과와 국문과의 차문섭, 박천규, 이호영, 김상현, 남풍연, 장명환, 이화숙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세종대 정장호, 건국대 김광수, 동국대 장충식 교수 등 27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단은 4월 7일부터 8일까지 비가 발견된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이끼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탁본을 제작하였으며 현장에서 판독 작업을 진행하였다. 비문에서 ‘高麗大王’이라는 글자를 확인함으로써 이 비석이 고구려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의 조사 경위와 이후 학계의 연구 성과는 그 해 檀國大學校 史學會에서 발행한 『史學志』 제13집에 중원고구려비 특집호로 실렸다.¹⁾ 게재된 논문은 중원고구려비의 발견 조사와 연구 전망(정영호),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이병도), 중원고구려비의 몇가지 문제(이기백), 중원고구려비의 내용과 년대에 대한 검토(변태섭), 중원고구려비소고(임창순), 중원고구려비의 몇 가지 문제점(김정배), 중원고구려비의 제액의 신독(이호영) 등 모두 7편이다. 발표 논문은 주로 비문의 판독과 해석, 이를 근거로 한 비의 건립년대 및 성격, 특히 당시 신라와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비면은 발견 당시 이미 훼손이 심하여 3면비인지 4면비인지 논란이 되었다. 초기 연구자들은 대개 4면비일

1)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9, 『史學志』13.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다만 비문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면이 전면인지에 대해서는 그 뒷면의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었다.

또한 비문의 건립 연대에 대해서는 ‘고려대왕’, ‘신라매금’ ‘여형여제’ 등이 판독됨에 따라 신라가 고구려에 예속되었던 5세기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특히 ‘十二月廿三日甲寅’을 판독함으로써 해당하는 년도는 449년(장수왕 37년), 480년(장수왕 68년), 506년(문자왕 15년) 등으로 좁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비는 당시 학계의 몇몇 대가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다소 자의적인 판독과 해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전면 상단의 공간에 분명한 필획이 존재한다는 점은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었지만 비면의 상태가 훼손이 많아 판독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병도 선생은 판독에 골몰하던 중 꿈속에서 ‘建興’이라는 글자를 보았다고 하고 탁본상의 자적을 ‘건흥’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비가 발견된 이후 20년이 지난 1999년에 우리 학계에서는 고구려연구회가 주도하여 비문의 정확한 판독을 위한 공동 판독회를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였다.²⁾ 판독회에서는 발견 초기에 채택한 탁본과 당시 현지에서 뜬 양질의 탁본을 서로 비교하고 조명을 이용하여 비면의 사진 촬영하고 개별 글자의 도판화 및 컴퓨터로 처리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모든 글자를 검토하였다.

판독회는 비를 발견할 당시 참여하였던 학계 원로 대부분을 초청하였으며, 한창 연구력이 왕성한 30~40대 신진학자들도 대거 참여시킴으로서 학자들의 고민을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학제간 연구를 위해 역사학, 고고학, 문화사학, 국문학, 한문학, 서예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골고루 참여하였다. 비석이 서있는 근처 숙박지에서 4박 5일간 합숙하면서 진행된 판독회 결과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비가 발견될 당시부터 모두 몇 면에 새겨져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4면비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우측면에서 ‘前部大兄’이라는 고구려 관직명을 판독하였고 역시 뒷면의 ‘巡’자형을 읽어냄으로써 뒷면에도 글자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면 상단의 ‘年’자를 확인함으로써 이 비에 題額이 있다는 데 석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새로 읽어낸 총 19자 중에서 석문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확정된 글자는 11자이다. 새로 읽어 추정된 글자는 8자이고 지금까지 여러 견해로 논의되었던 글자를 석문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결정한 글자가 6자이다. 전체 글자 200여 자 가운데 1/10이 넘는 글자를 새로 읽어내고 논란이 되고 있던 부분을 포함해서 6자를 확정함으로써 충주 고구려비에 대하여 보다 진전된 연구를 위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충주 고구려비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비를 처음 학계에 소개한 정영호 교수가 ‘중원고구려비의 발견 과정과 의의’라는 주제로 기초 강연을 하였고, 이어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이도학),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연대에 대하여’(木村 誠) 등 모두 12편의 새로운 논고가 발표되었다. 비의 건립 목적, 비문에 나타난 이두적 성격을 연구한 논문이나 고구려 국명의 변천이나 신라 또는 신라비를 비교 연구한 것은 새로운 성과라 할 수 있다.

금석문의 연구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확한 판독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발견 당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한 석문과 이후 고구려연구회가 주최한 판독회를 통해 작성된 석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비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다양한 탁본과 사진 등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비교하면서 견해 차이를 좁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의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 먼저 기초 자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왕의 두 차례의 걸친 논의는 결과를 중심으로 개별 논문으로 남았을 뿐, 실제 판독 등에 활용

2) 고구려연구회편, 2000, 『중원고구려비 연구』, 학연문화사, 129~267쪽 참조.

되었던 탁본이나 사진 자료들이 충분히 자료화되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탁본 도판을 일부 논문집에 수록하기는 하였지만 편집과 인쇄 상태가 좋지 못하고 지나치게 축소되어 자료의 실상을 정확히 전하기 어렵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이해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의미를 부여했음에도 비의 시기별 탁본과 사진 등 제대로 된 자료집이 출간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학계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Ⅲ. 판독의 기초 자료 확보

1) 비면의 디지털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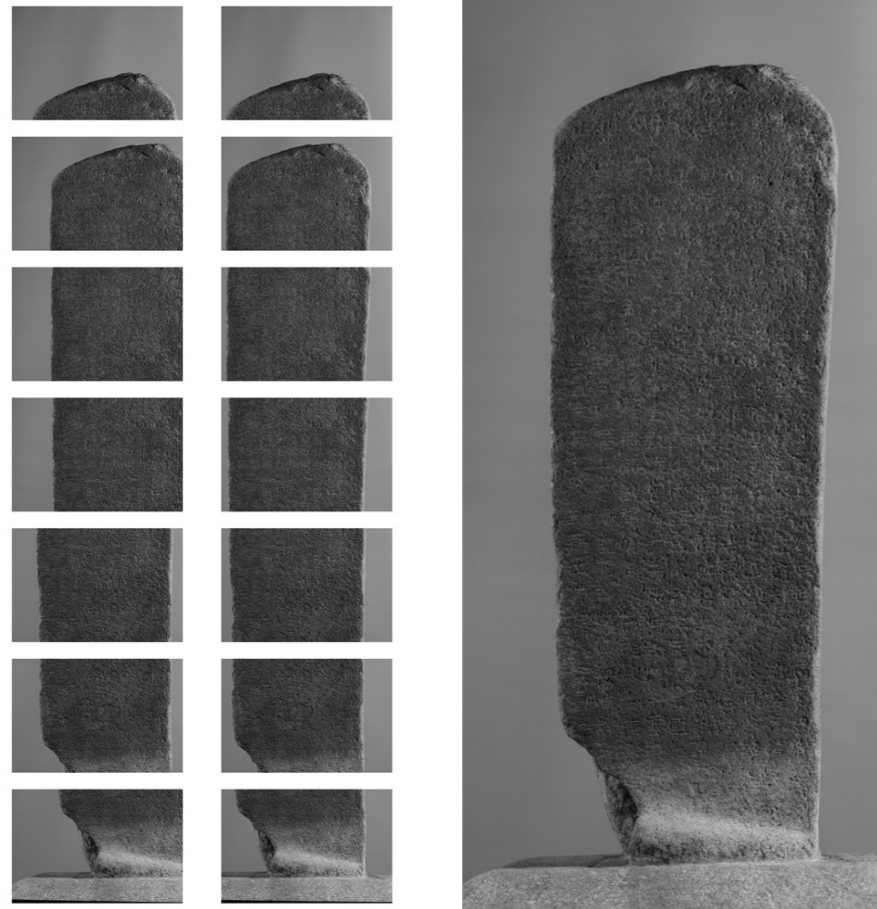
카메라 Body는 CANON EOS 5DsR(5000만화소), Lens는 CANON 100mm를 사용하였다. 조명(Strobo)은 모노타입 600W 4개에 각각 Umbrella를 장착하였고, 체계적인 전문 소프트웨어와 비면의 색감을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 QP card 와 Color Checker Passport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수평계, 레이저 거리계 등을 사용하여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유물의 이미지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고해상 데이터 확보를 위해 각 비면을 분할하여 촬영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각 비문(4개 면)의 사이즈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글씨가 가장 많이 남아있고 면적이 제일 큰 3면을 기준으로 넓이 55cm, 높이 144cm 임. 3면을 촬영의 기준점으로 하여 카메라의 거리와 가로, 세로의 표준 사이즈를 정하였음

- 비면 중심부를 기준으로 표준 사이즈는 가로 60cm, 세로 40cm 만큼의 면적으로 1cut씩 촬영
- 비면의 제일 낮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좌우로 이동하면서 제일 높은 위치까지 총 14cut 촬영
- 비면의 사진 데이터 용량(초고해상 스티치 촬영 부분), 1개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총 14cut 필요(TIFF파일 기준 사진 데이터 용량: 13.8GB)
- 모든 cut들은 주변의 다른 cut들과 30% 이상의 부분을 중첩되게 촬영
- 실제 비면과 동일한 면적의 초고해상도 결과물 확보, 실제 비면과 동일한 크기로 프린트가 가능하며 비면의 디테일을 완벽 재현하여 이번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글씨 판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
-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해 렌즈는 100mm(f2.8)를 사용하였으며, 해상력을 살리면서 적절한 피사계 심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리개 값은 F9.5로 하였음



좌우2, 세로7 = 14cut

초고해상 스티치 사진

2) 탁본 및 디지털 사진 촬영

① 현장 탁본 및 포토샵 처리



비면 부착 탁본

포토샵 반전

포토샵 흑백 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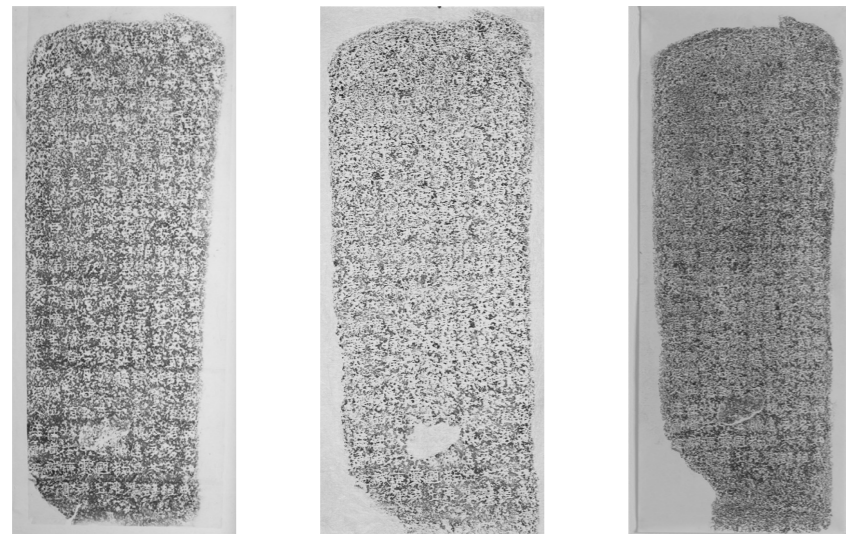
② 탁본 정밀 촬영

- 각 비면 분할 사진 촬영 과정(고해상 데이터 확보)
- 카메라 Body는 CANON EOS 5D MARK 4, Lens는 CANON 100mm를 사용하였음. 조명(Strobo)은 모노타입 600W 2개씩을 좌, 우에 설치 후 Umbrella를 장착하였고, 체계적인 전문 소프트웨어와 비면의 색감을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 QP card와 Color Checker Passport를 사용하였음
- 탁본의 제일 높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이동하면서 총 6cut 촬영
- 모든 cut들은 주변의 다른 cut들과 30% 이상의 부분을 중첩되게 촬영
- 비면의 사진 데이터 용량(초고해상 스티치 촬영 부분)
- 1개 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총 6cut 필요(TIFF파일 기준 사진 데이터 용량: 1.3GB)



원탁본 3면 초고해상 스티치 과정 컷(6 cut)

③ 역대 탁본 비교



1979년 탁본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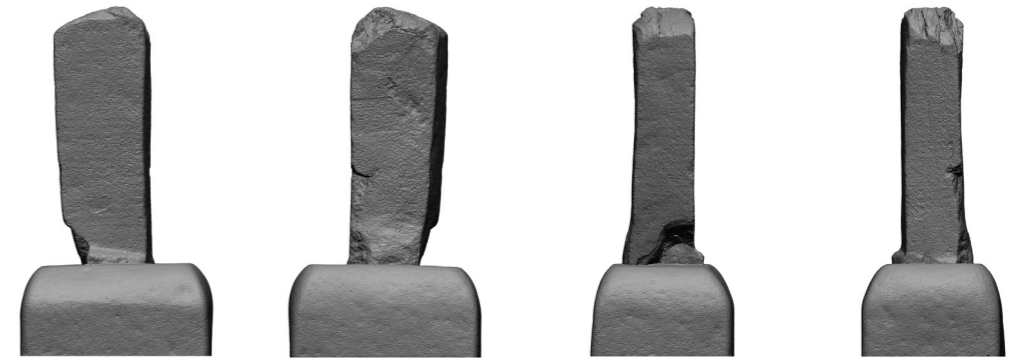
2000년 탁본
(고구려연구회 소장)

2019년 탁본(배접)
(문화재청 소장)

2) 3D 스캐닝

3D 스캐닝이란 표면에 투사한 광원의 간섭이나 반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점군(pointclouds) 형태의 3D 형상 정보 또는 공간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물의 형상을 측정하고, 측정 데이터를 구조화된 점집합으로 변환하고, 점집합으로부터 3D 형상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상 모델링 과정을 거쳐 동일 형상의 실물이나 컴퓨터상의 디지털 모델로 만들기 때문에 형상 역공학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3D 스캐닝 기술은 정밀 수치 자료를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 건전성 평가, 3D 프린팅 적용, 콘텐츠 제작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비문의 판독을 위해 충주 고구려비의 3D 스캐닝과 명문의 가시화 렌더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고정식 고정밀 스캐너와 핸드헬드형 정밀 스캐너로 비석 및 명문의 3D 수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획득한 3D 스캔 데이터는 후처리 과정을 통해 최종 3D 모델로 완성하였다. 또한 완성된 3D 스캐닝 결과를 이용하여 컴퓨터 그래픽 기법 중 하나인 렌더링을 적용하여 명문 가시화를 진행하였다. 기존에 판독된 명문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렌더링 기반의 노말맵, 탁본맵, 표면질감향상맵 등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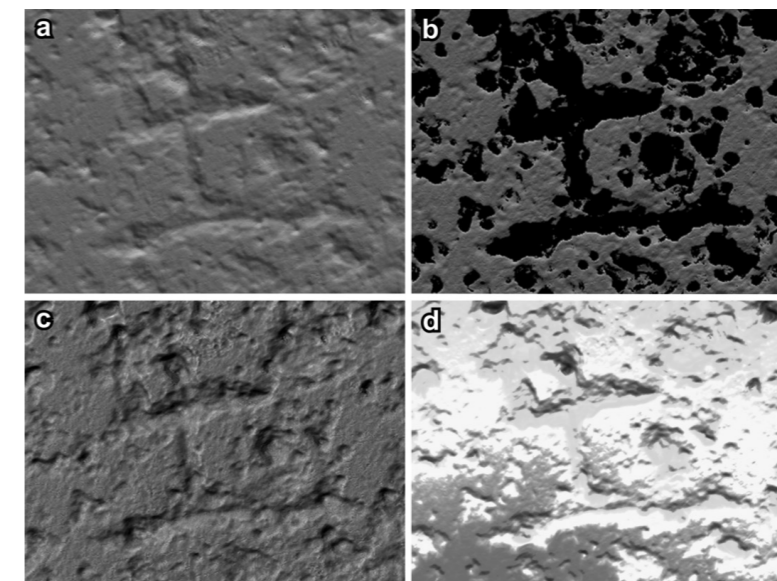
전면

후면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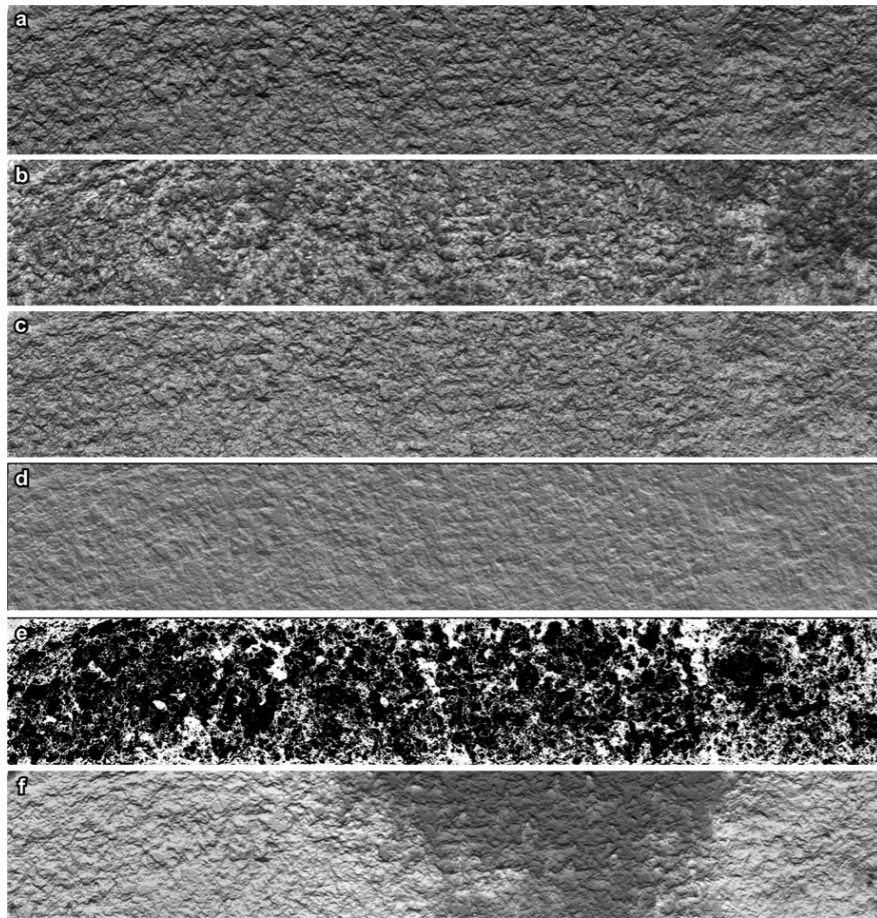
우측면

충주 고구려비의 3D 폴리곤메쉬 모델



가시화 렌더링 결과(전면 6행 23자 : 土)

- a) 노말맵 렌더링 결과
- b) AO맵 렌더링 결과
- c) 표면질감향상맵 심도맵 결과
- d) 심도맵 렌더링 결과



전면 제액 부분 가시화 렌더링 결과
(a) 폴리곤메쉬 모델 (b) RGB 텍스처 매핑 결과 (c) 곡률맵 (d) 노말맵 (e) AO맵 (f) 심도맵

3) RTI 촬영

RIT(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는 반사율 변환 이미지 촬영으로 2001년에 처음 개발된 이미지 기반 기록 방식이다. 금석문의 판독 방법으로도 활용되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에 조명을 비추어 촬영하는 기법으로 한 각도에서 촬영한 여러 장의 디지털 사진을 합성 가공한 다음, 이 자료를 'RTI 뷰어'라는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가상의 빛을 이용하거나 명문 이미지를 확대·축소하는 등의 조작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다양한 조명 위치에 의한 RTI 촬영(전면 상부)

금석문 탁본은 판독에 여전히 유용하지만 비의 표면 상태에 따라 명문이 선명하지 않은 부분은 필획과 훼손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 비면에 RTI 촬영을 할 경우 명문의 윤곽을 더 또렷하게 보정하여 탁본 자료에서 확인이 어려운 명문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과 2013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주 감산사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 명문에 대해 RTI 촬영을 실시하여 새롭게 글자를 판독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³⁾

IV. 비문의 판독 및 고찰

1) 題額

충주 고구려비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나름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면 상단에 과연 제액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최초 조사 시 연구자들 간에도 설왕설래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은 좀 장황하기는 하지만 당시 발표문과 학술 좌담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통해 충주 고구려비가 발견된 이후 비문에 대한 판독과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참가하고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던 이병도 교수의 언급은 흥미와 함께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이 비가 4면비라고 한다면 본래의 전면, 다시 말해서 行文의 序頭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였는가가 문제인데, 아무리 보아도 현재의 (우리가 보는) 전면이 원래의 전면인 것 같다. 왜냐하면 첫줄(제1행)에 「高麗大王」云々の 글자가 새겨져 있고, 또 나는 碑額上에 분명히 「建興四」三字의 횡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필시 「高麗建興四年」의 횡서인데, 「高麗」2자와 「年」자가 마멸된 것이라고 나는 본다. 建興은 당시 고구려의 연호로, 제1행 첫머리의 「五月中」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建興4年 5월중」이라고 읽을 수 있다. 좌측면 額上에도 이러한 횡서의 유무를 검색하여 보았으나, 전혀 자형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이 「高麗大王」운운과 額上의 建興연호를 발견한 후로는 이 면이 본래의 전면인 것을 나는 더욱 확신한다.”⁴⁾

발표 이후 학술 좌담회에서도 자신의 논지를 재차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첫 꼭대기가 문제인데, 첫 꼭대기에 액전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어요. 일전에 내가 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建興 두 글자가 나타났다는 말이야, 아 눈

3) 신소연, 김명민, 「RTI 촬영을 통한 감산사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 명문 검토」, 『미술자료』 84, 국립중앙박물관, 2013.

4) 李丙燾,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 제13집, 22쪽.

이 번쩍 뜨여가지고 전등불을 켜고 옆에 있는 탁본과 사진을 보니까, 그 글자가 나온다 말이에요. 興字가 예서로 옆으로 조금 비뚤어졌습니다. 대개 보면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는데 자꾸 의심을 해도 아니되고, 또 의심한 곳에 의심을 하지 않는 것도 안 된다고 보아요. 좌우간 建興 두 글자는 年號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日帝時代에 中原, 즉 老隱面에서 발견된 小形金銅佛像光背에 「建興五年歲在丙辰」이라고 하였는데, 이 年號가 黃壽永교수는 百濟의 것이 아니라 高句麗의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여기에 더욱 自信을 굳히는 동시에 建興앞에는 高麗 두 글자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마멸된 것 같고, 또 建興四(四字까지는 어지간 한데) 다음에는 年字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高麗建興四」이라고 풀고 本文 첫줄의 五月을 거기에 直結시키면 아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⁵⁾

즉 전면 상단부에 횡서로 된 ‘高麗建興四年’이라는 제액이 존재하는데 확실히 읽을 수 있는 것은 ‘建興四’라는 세 글자이고 앞부분 ‘高麗’와 마지막 글자인 ‘年’자는 마멸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이호영 교수는 자신이 관찰한 바를 근거로 반박하였다.

“斗溪박사님께서 高麗 建興四年이라고 읽으신 文章에는 흥미가 있습니다. 제가 더듬어 읽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建興은 읽을 수 없지만 적어도 四年이라고 하는 글자는 상당히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도 四字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탁본을 보았을 때에 四字보다는 七字가 훨씬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제 의견을 修正했습니다. 왜냐하면 年字를 확실히 年字로 본다면 그 세 개 글자는 本文의 글자보다는 거칠고 가늘게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廣開土大王 長壽王 文咨王을 연결시켜서 내용을 檢討한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얘기가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建興四年이라고 읽으신 斗溪박사님 그 밑에 두 字가 더 있습니다. 그 두 字가 더 있는데 제가 읽기로는 別陽(陽)字하고 언덕 원(原)字 陽原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때에 陽原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原字가 들어가는 王이 그 이후에 세분이 安原王 陽原王 平原王이 있는데 이때 新羅의 경우는 眞興王初期가 되고 陽原王初期에는 언간히 맞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베성이 굉장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적어도 原字인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때에 陽原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 碑의 建立年代는 여러 선생님께서 추정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新羅와 高句麗 사이가 가장 惡化되었을 때에 어떻게 忠州에 이 碑가 建立될 수 있었나. 현재 상식적으로 생각 할 수 없는 또는 三國史記를 통해 본 우리의 인식을 떠났다는 점에서 제 말이 좀 語不成說이다. 이렇게 저 자신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팔순의 노대가와 소장학자 간에 서로 다른 견해가 강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목도되는 듯하다. 결국 조사를 주도했던 정영호 교수가 나서서 수습하고 있다.

“제가 그동안 일곱 차례 충주를 다녀왔습니다마는 5次調査를 떠나기 바로 전날 斗溪 선생님께서 오라고 해서 宅에 가 뵈었더니 拓本을 내놓으시면서 이것을 보라고 그래서 이것이 建興四하고 年字

5)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9, 「中原高句麗碑 學術座談會議錄」, 『史學志』 제13집, 114쪽.

가 붙을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에 탁본을 펴놓고 보니까, 정말 建字 興字 四字인 것 같아요. 그러면 建興四年일 것이다. 建興四年으로 보이더군요. 그리고 現場에 가서, 새벽 4時 5時면 일어 나서 창고 정리하듯 들어가서 후라시로 딱 비추어보면 그것이 그럴듯 하면서도 그렇지 않구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햇빛을 비추어가면서 보면 아침에 보았던 글자가 또 달라져요. 光線에 따라서…… 하루에 두 字 읽어내고 석 字 읽어내는 것이 어떻게 힘이 드는지…… 그래서 지금 이호영 선생이 아주 좋은 말을 해주었는데, 이호영 선생이 現地에 같이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깐 또 그렇게도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한 말씀이 放學 동안에 어떻게 機會가 돼서 내려가서 적어도 두 서너 차례 더 내려가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끼를 좀, 손가락 가지고 좀 베껴보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 이상 더 判讀이 안되겠다 할 때까지 判讀을 해서, 그 이상 안 되면 이 일은 國家에서 어떻게…… 여기 金正基博士께서 와 있지만…… 光線을 비추어 어떻게 하든가, 뽀를 떠서 하든가 해서 判讀부터 해야 解釋이 내려지지, 判讀이 정확히 되지 않는 데서 여러 가지 얘기해 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려 봅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던 이병도 교수가 비의 판독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힌다.

“사실 判讀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의심이 난다고 해서 자꾸 의심하면 안 되니까, 의심할 때에 의심 안 하는 것도 안 되고, 의심 안 할 때에 의심하는 것도 안 되니까 中道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즉, 의심할 곳에 의심하고 의심 아니할 곳에 의심하지 않는 태도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하도 寤寐不忘 끝에 꿈에 建興年號가 나타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학술회에서는 이들 세 사람 이외에는 더 이상 제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병도 교수의 現夢 운운한 강하고도 단정적인 발언에도 워낙 비면의 훼손이 심한지라 전체적으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호영 교수의 주장은 크게 어필되지는 못하였지만 이후 논고를 통해 정리되어 『史學志』 제13집에 실리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선학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동안 필자가 파악한 내용을 추가로 언급하고자 한다. 다만 확보한 모든 자료의 기술적 처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초보적인 판독 내용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충주 고구려비 전면 상단 우측 끝부분은 비면이 약간 낮아지면서 우측면으로 넘어가는 형태이다. 비문의 본문 위쪽으로 한 줄 정도 공백을 두고 가로로 글자들이 흔적이 나타난다.

첫 번째 글자는 본문 제2행 ‘上’자의 위쪽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글자의 중심에서 비의 좌측 끝 부분까지는 9cm, 위 끝 부분까지는 9.5cm 지점이다. 글자의 높이는 약 3cm이고 너비는 약 4cm이다. 글자 상단 부분이 넓고 깊게 패여 있고 그 좌측에도 이 보다는 약간 좁고 낮게 패인 흔적들이 나타난다. 탁본에서 글자의 상부는 패인 흔적으로 인해 먹물이 묻지 않아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자획의 판별이 쉽지 않지만, 하부에서 ‘水’자 형태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水’자 우측에는 정확히 분명하고 상부에도 패인 부분을 가로지르는 획이 보이고 있다. RTI 촬영 사진과 배접 탁본 및 배접하지 않은 탁본을 비롯하여 3D 스캐닝 ao 처리 사진 등을 통해 전체적인 글자의 형태는 ‘永’자로 확인된다. 광개토태왕비나 천추총에서 발견된 ‘千秋萬歲永固’명 전돌의 ‘永’자와 비슷한 형태이다.

‘永’자 좌측에도 다소 복잡한 형태의 필획들이 보인다. 가로획과 세로획이 엇갈려 있어 자형 구분이 쉽지 않다. 특히 원래의 필획이 아닌 것들과 혼재된 듯한데, 아마도 후대에 비면에 인위적으로 추각한 것들일 수 있다. 사실 1500년 이상의 세월을 겪은 비석은 자연적 풍화 이외에도 인위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가 멸망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흔적 지우기를 시도했을 수도 있고 지상에 노출된 상태였다면 원래의 비문과는 무관한 낙서 행위도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비면에 새김 흔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문으로 볼 수 없는 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글자를 이병도 교수는 첫 번째 글자와 함께 ‘建興’으로 읽은 듯하고 이호영 교수는 ‘熙’자로 보았다. 하지만 상부에 ‘白’자 형태가 비교적 뚜렷하고 그 양옆으로 삼각형에 가깝거나 혹은 역삼각형 형태의 필획들도 나타난다. 하단부에는 가로획과 세로획들이 다수 엉켜있지만 ‘木’자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상부와 하부의 형태를 결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樂’자에 가깝다. 다만 ‘木’자 하부에 좌상에서 좌하로, 또는 위아래로 이어지는 획처럼 보이는 것들은 원래의 글자인 ‘樂’자 위에 덧 새겨진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광개토태왕비의 ‘樂’자 형태와 유사한 결구로 보인다.

세 번째 글자는 ‘七’자이다. 이병도 교수는 ‘四’자로 보았고 이호영 교수는 ‘七’자로 보았다. 가로획은 우측으로 약간 올라가는 형태이고 획의 끝 부분에서 미세한 파괵의 흔적이 나타난다.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고대사학회가 주최한 판독회에서 제2획의 가로획 부분을 짧게 치켜 올렸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훼손된 흔적으로 보인다. 오히려 제1획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구는 고구려 광개토태왕비나 덕흥리 고분 묵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글자는 ‘年’자이다. 이병도 교수는 마멸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호영 교수는 ‘年’자로 읽었다. 이 글자의 좌측 부분은 물갈이 흔적이 잘 남아 있어 필획의 구별이 비교적 잘 되며, 2000년 고구려연구회 판독회에서도 제액의 글자 중에서 유일하게 확인하였던 글자이다. 첫 번째 획은 세로가 짧은 ‘丿’ 형태이고 그 아래로 3개의 가로획이 있다. 그리고 이들 필획을 중간에서 관통하는 세로획으로 구성되어 있어 광개토태왕비와 유사한 자형 결구이다.

다섯 번째 글자와 여섯 번째 글자는 ‘歲在’이다. 이 글자들을 이호영은 학술 좌담회에서 ‘陽原’자로 제시하였으나 이후 논문에서는 ‘歲辛’자로 고쳐 읽었다. ‘歲’자 부분은 상부의 ‘山’자 형태는 비교적 명확하고 그 아래쪽에 비스듬한 세로획들과 이 세로획을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획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개토태왕비나 천추종 출토 ‘千秋萬歲永固’명 전들의 자형과 비슷하다.

여섯 번째 글자는 ‘在’자이다. 이호영 교수는 처음에는 이 글자를 ‘原’자로 보았으나 후에 ‘辛’자로 읽었다. 아마도 상부에 있는 획을 점획으로 보고 하단 마지막 가로획 아래쪽으로 빠져 나간 흔적을 실획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3D 자료를 보면 아래쪽 빠져나간 흔적은 뒤집힌 부채꼴 형태로 떨어져 나간 훼손 흔적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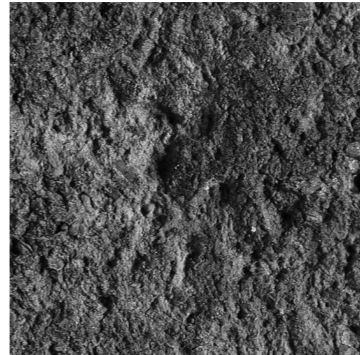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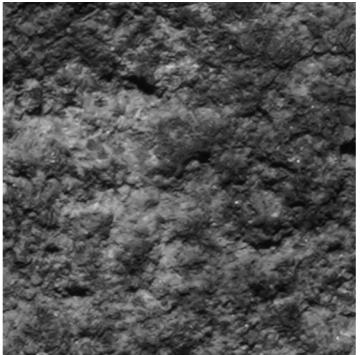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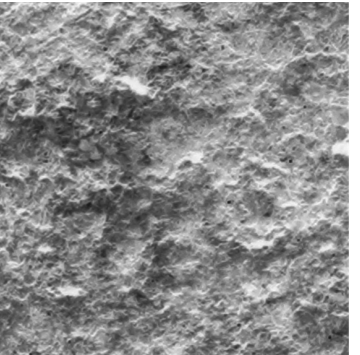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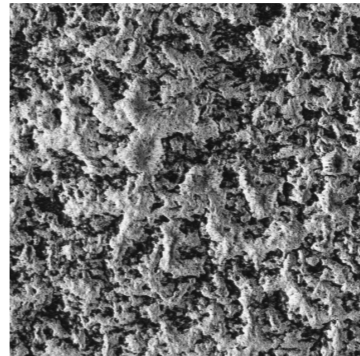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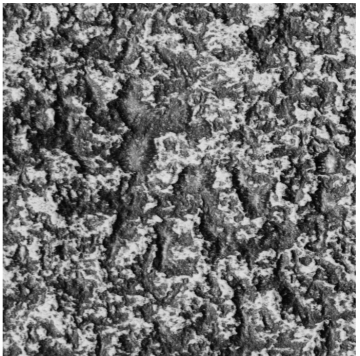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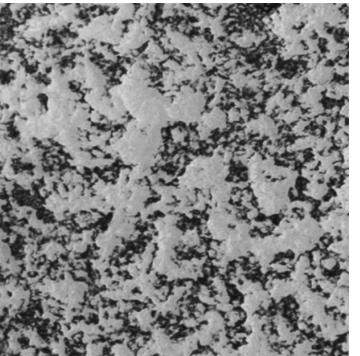
앞에서 판독된 여섯 글자는 ‘永樂七年歲在’로 읽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永樂’은 광개토태왕의 연호이고 그 ‘七年’은 곧 397년이며 이 해의 간지는 ‘丁酉’이다. 따라서 판독이 정확하다면 당연히 그 다음 일곱 번째 글자는 ‘丁’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호영도 추정만 바 있지만 ‘酉’로 보이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자는 다른 글자들에 비해 다소 작고 刻字 수법도 앞의 다른 글자들에 비해 얇게 새겨졌다.

그렇다면 ‘丁’자는 ‘在’자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 두 글자 사이의 공간에서 찾아보았다. 그런데 필획으로 보이는 흔적을 찾기 어려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자획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없다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던 차, ‘酉’자의 상단에서 ‘丁’자로서 유의미한 세로획의 흔적을 발견하였다. 세로획은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2/3 지점에서 좌측으로 꺾이고 다시 끝 부분에서 좌상향으로 치켜 올린

전형적인 ‘丁’자의 세로획과 같다. 다만 상부의 가로획이 비석의 끝 부분을 따라 비스듬하게 형성된 석결과 맞닿아 실획과 혼동을 줄 수도 있다. 즉 ‘丁酉’ 간지는 횡서 방식이 아닌 종서로 새겼던 것이다. 이렇게 종서에서 횡서로, 또는 횡서에서 종서로 서사 방식을 혼합하는 경우는 고대의 간독이나 서간문 등에서는 보이지만 금석문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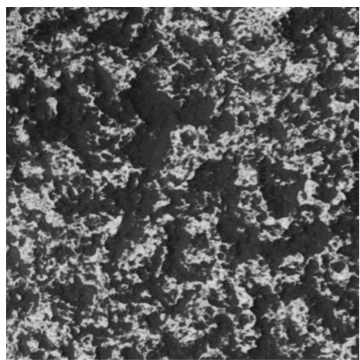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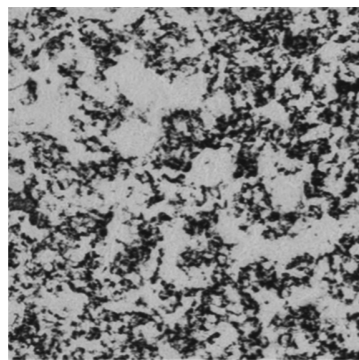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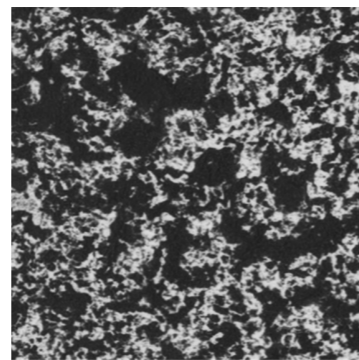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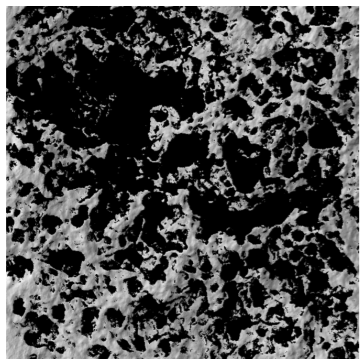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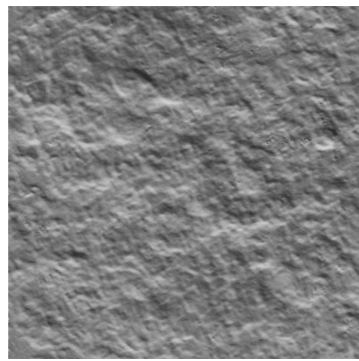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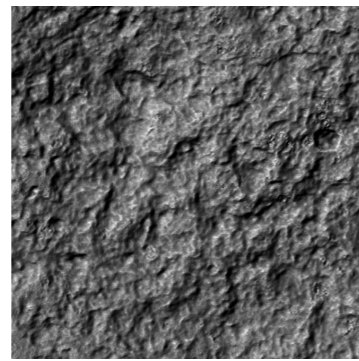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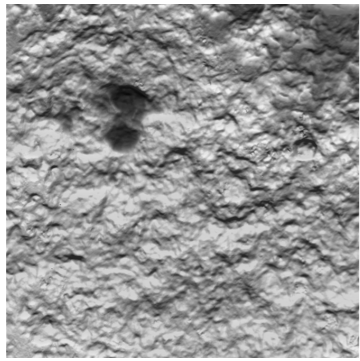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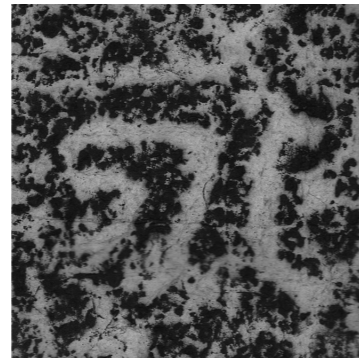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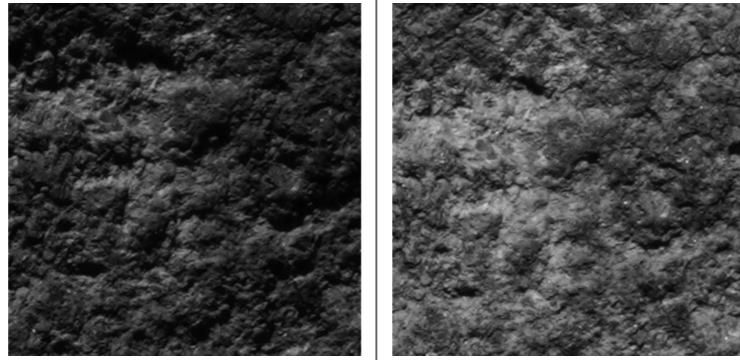
이상 제액 부분에서 판독한 글자는 ‘永樂七年歲在丁酉’ 여덟자이다. 고구려에서 이러한 연호와 간지를 기재하는 방식은 광개토태왕비의 ‘永樂五年歲在乙未’를 비롯하여 ‘建興五年歲在丙辰’명 금동 광배⁶⁾ ‘延嘉七年歲在己未’명 금동여래입상 광배⁷⁾ 등에도 나타나고 있어 동일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맥상으로도 본문의 ‘五月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 판독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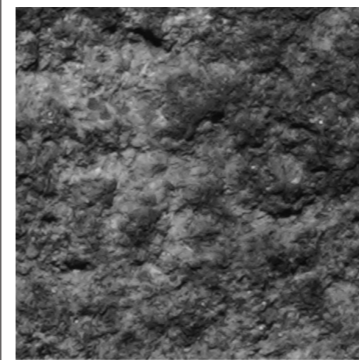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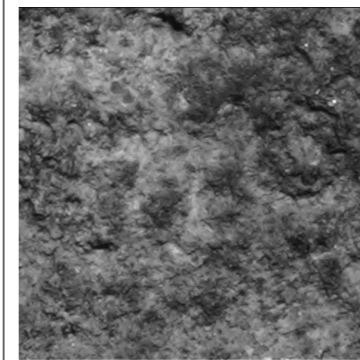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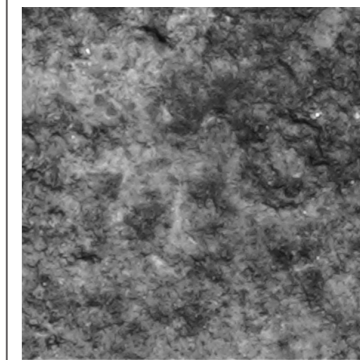
▶ 題額 0-1 : 永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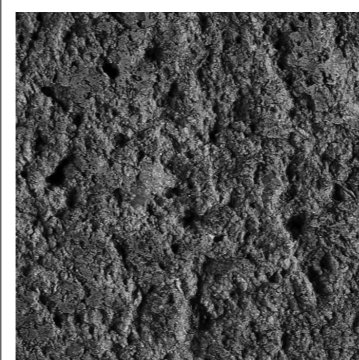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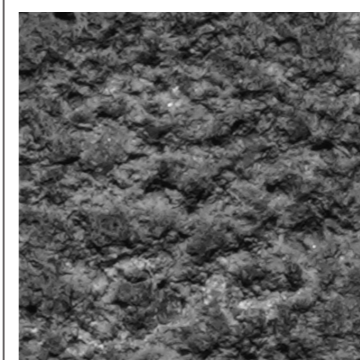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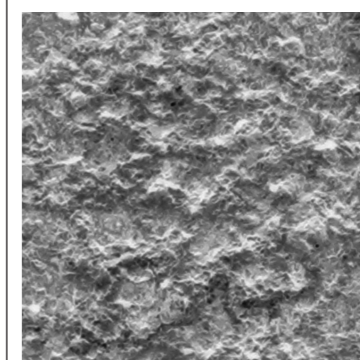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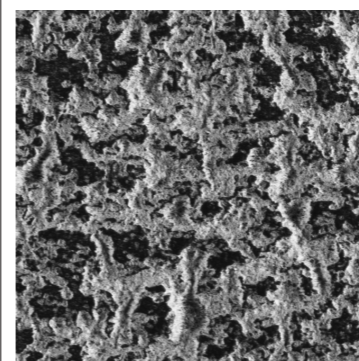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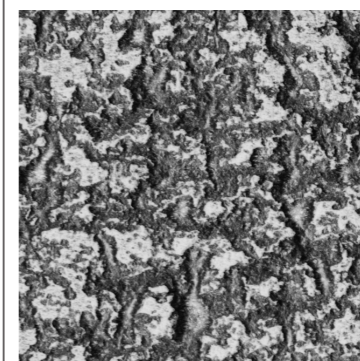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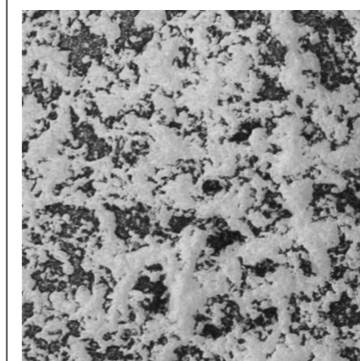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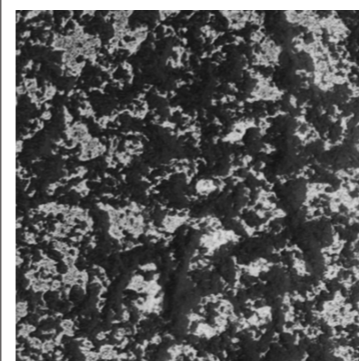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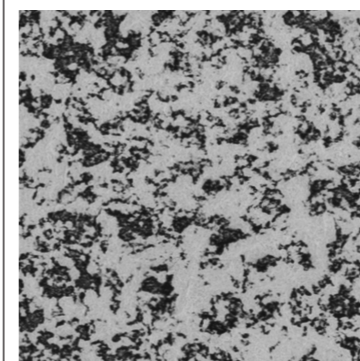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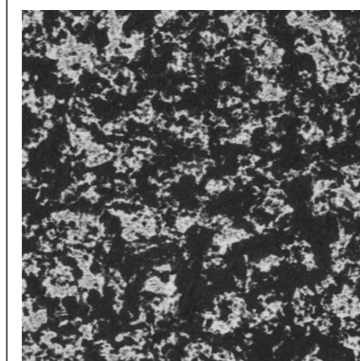
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앞의 책, 132~1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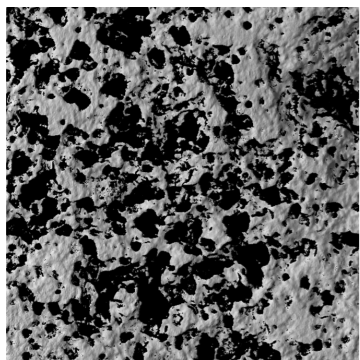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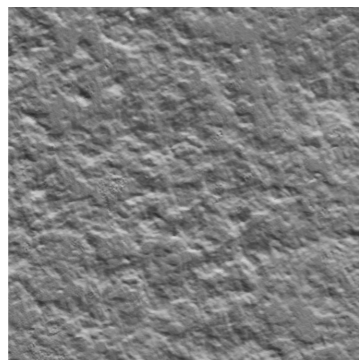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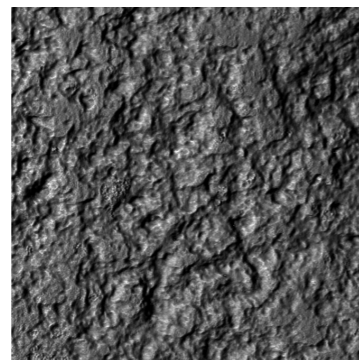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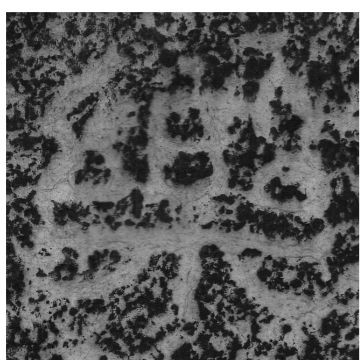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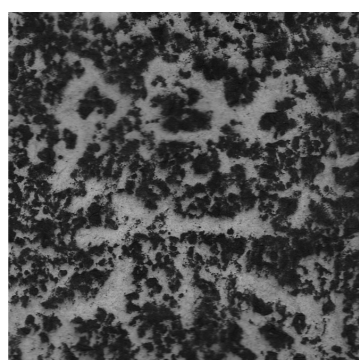
7) 黃壽永, 1963, 『高句麗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 『美術資料』8.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3D ao	3D no	3D rs
		
3D de	광비혜1-5-7 '永'	광비혜1-7-1 '永'
		
천주총 '永'	다양한 각도로 빛을 준 RTI 사진(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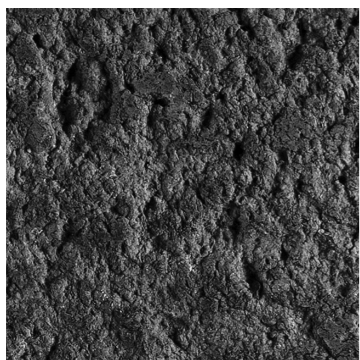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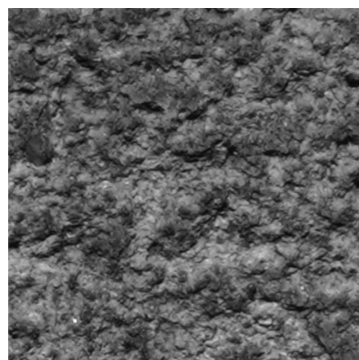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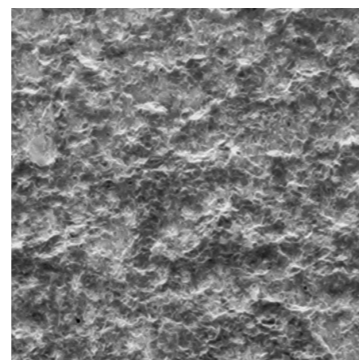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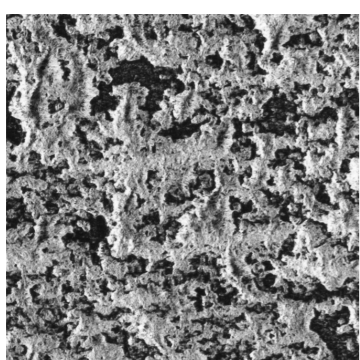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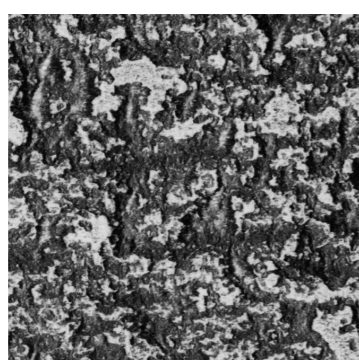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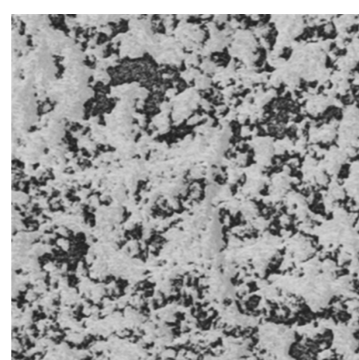
		
다양한 각도로 빛을 준 RTI 사진(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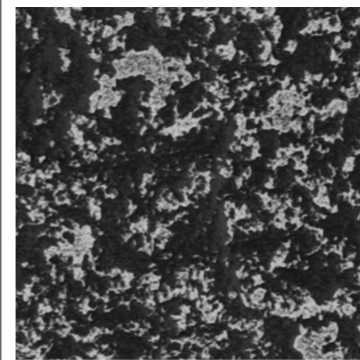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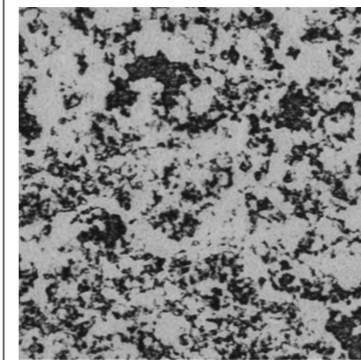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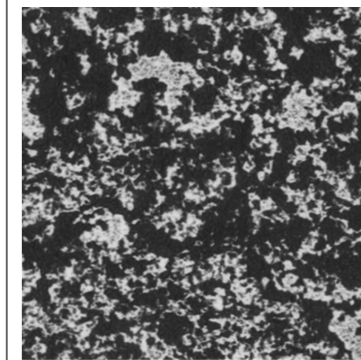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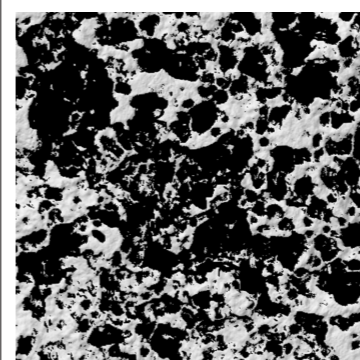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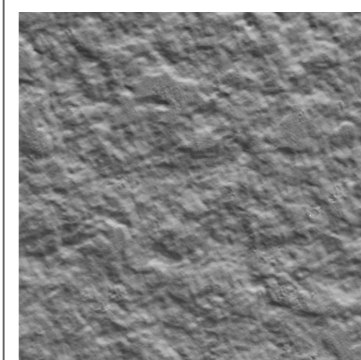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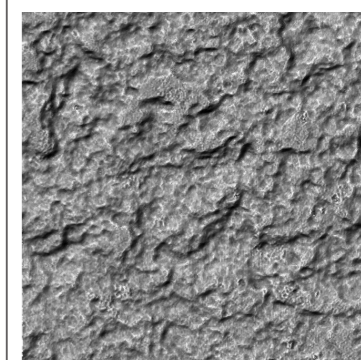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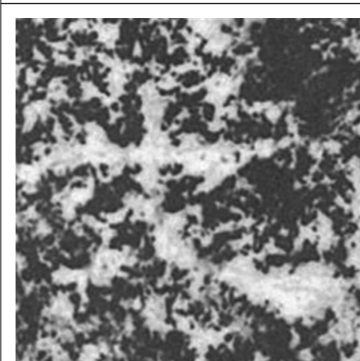

▶ 題額 0-2 : 樂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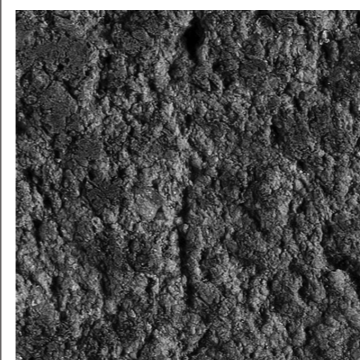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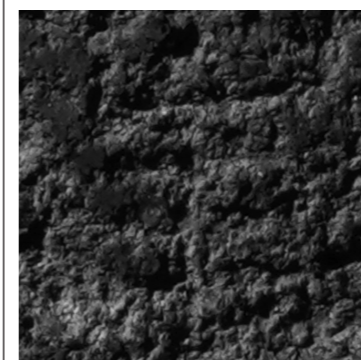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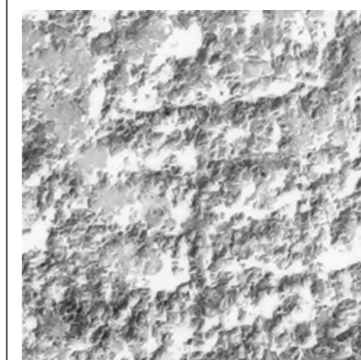
		
3D ao	3D no	3D rs
		
광비혜-1-5-8	광비혜-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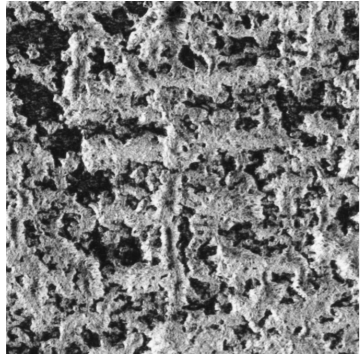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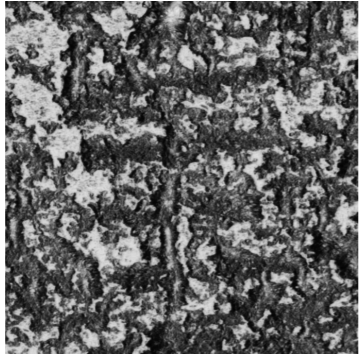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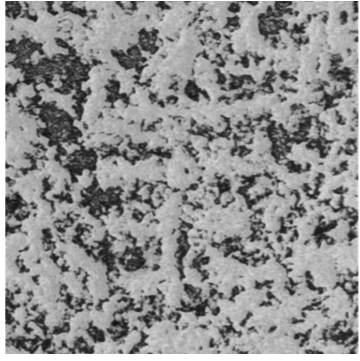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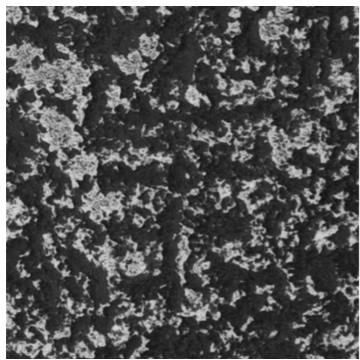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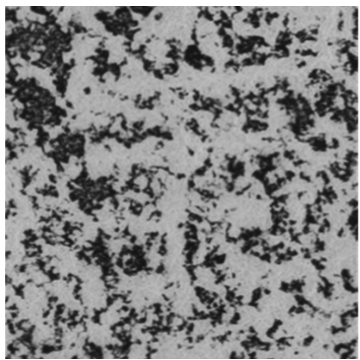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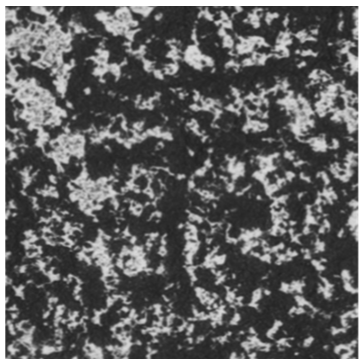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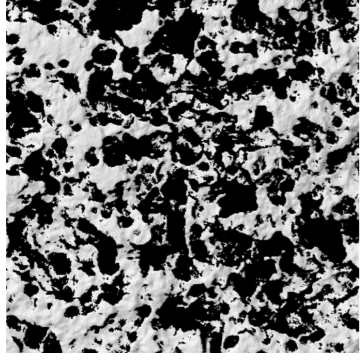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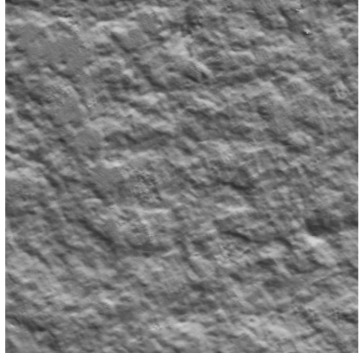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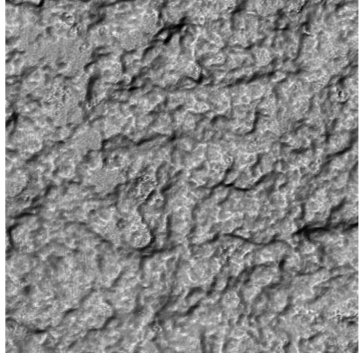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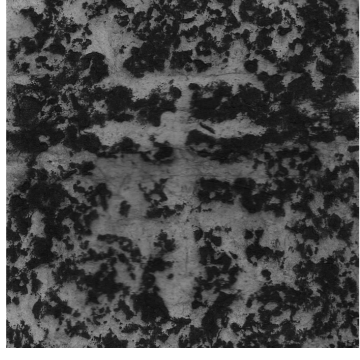
▶ 題額 0-3 : 七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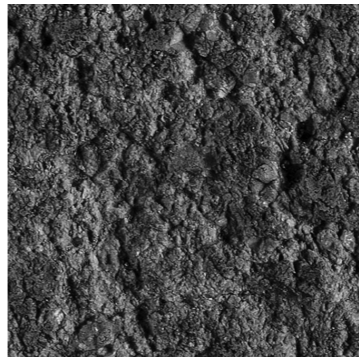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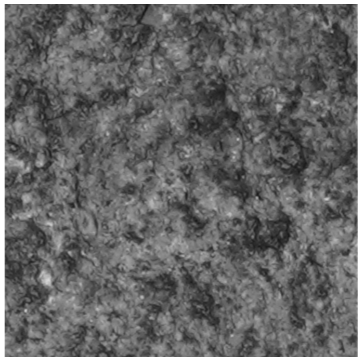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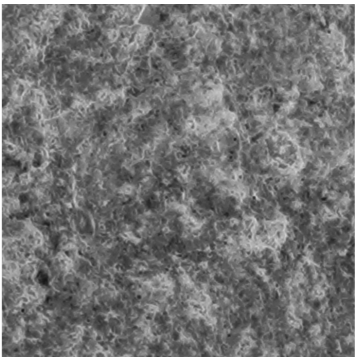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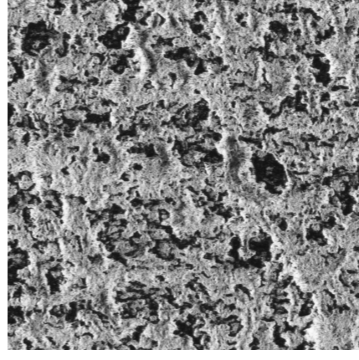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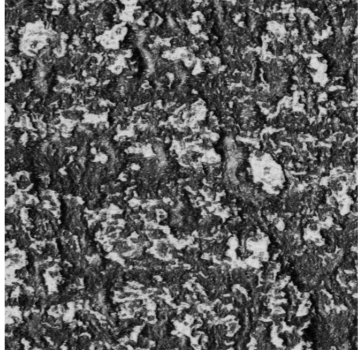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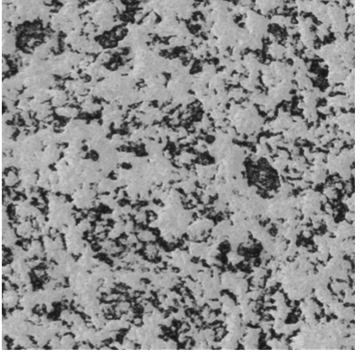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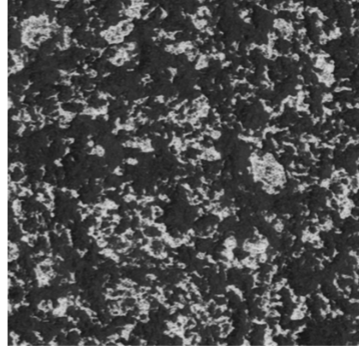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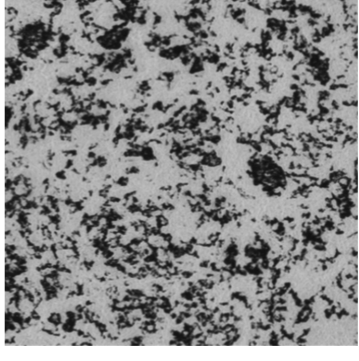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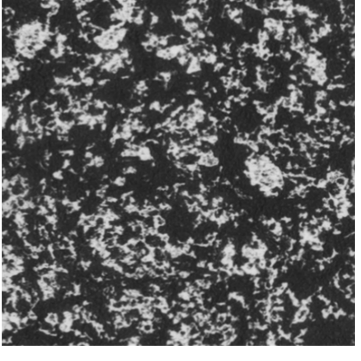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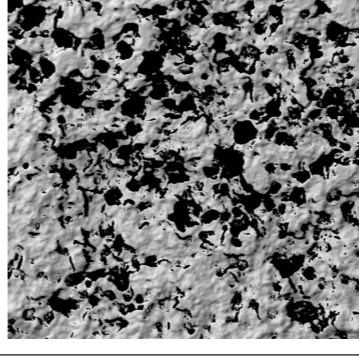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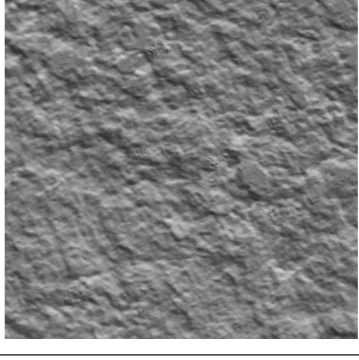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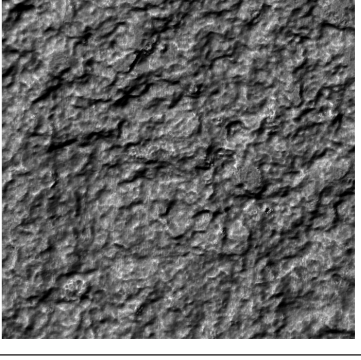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3D ao	3D no	3D rs
		
광비 3-4-22	덕흥리 고분 목서 13郡說明文	



▶ 題額 0-4 : 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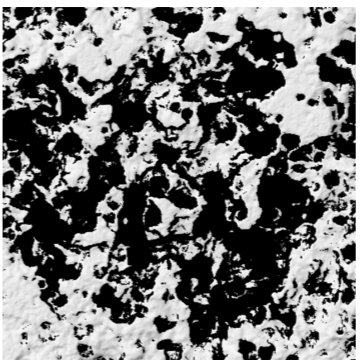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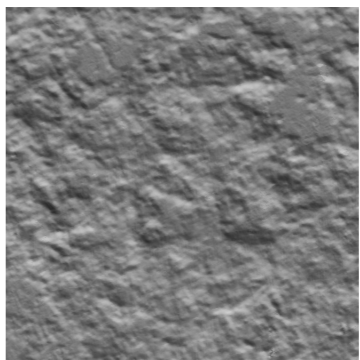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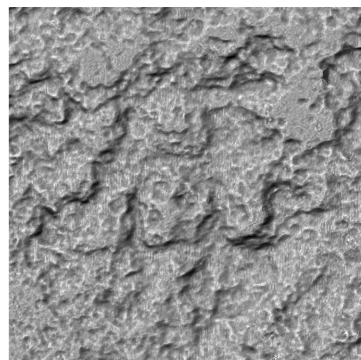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3D ao	3D no	3D rs
		
광비혜1-7-4-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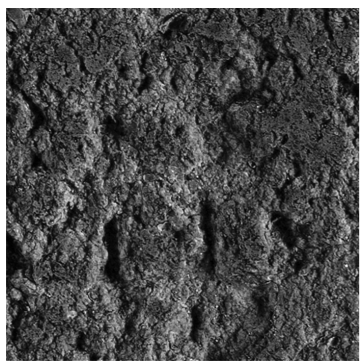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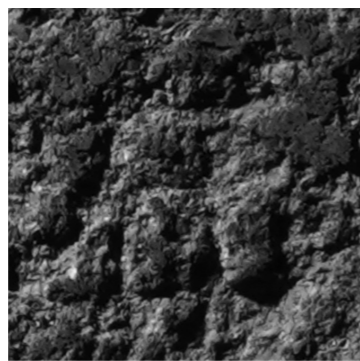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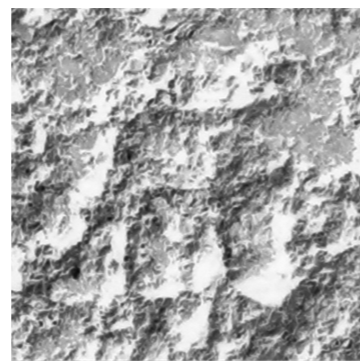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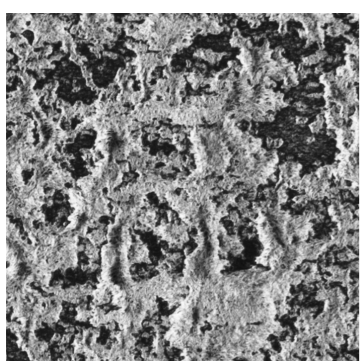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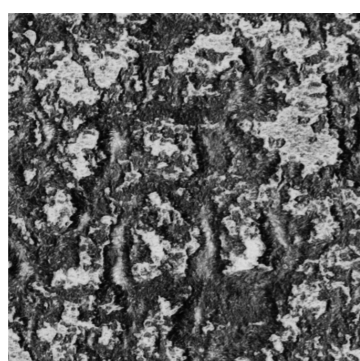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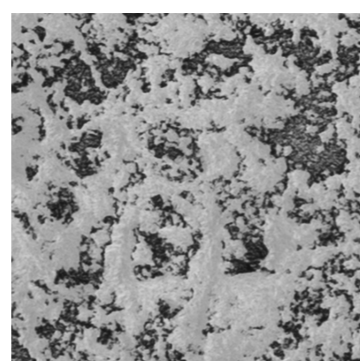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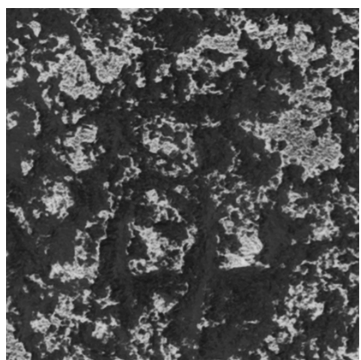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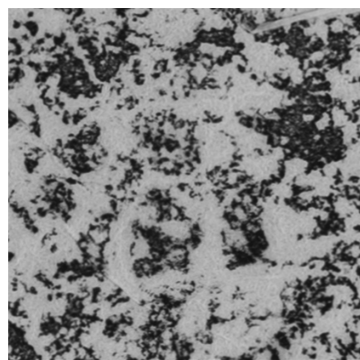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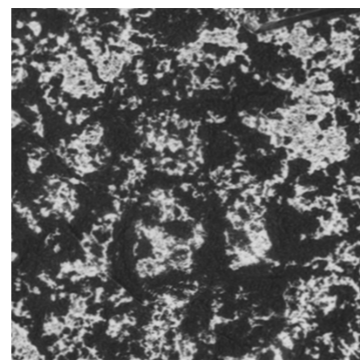
▶ 題額 0-5 : 歲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3D ao	3D no	3D 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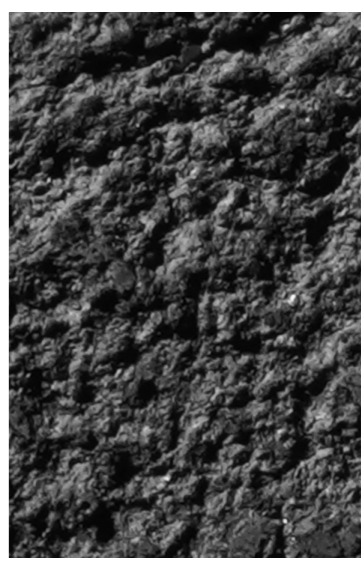
		
광비혜 1-5-5 '歲'	전주총 '歲' 국립중앙박물관	전주총 '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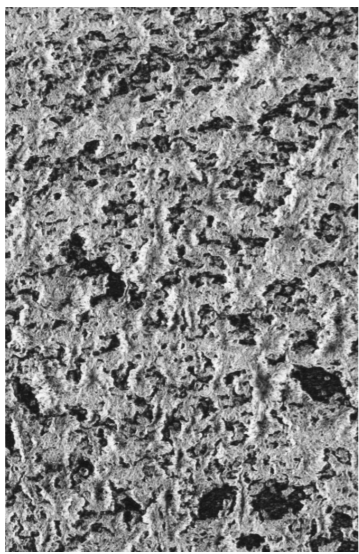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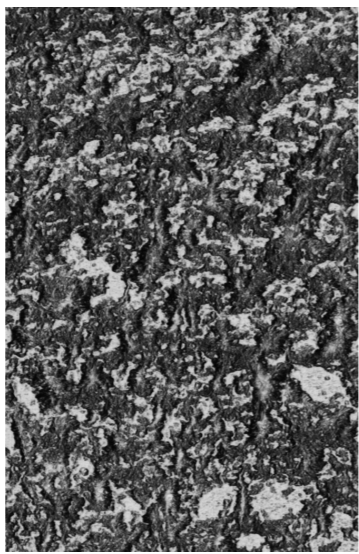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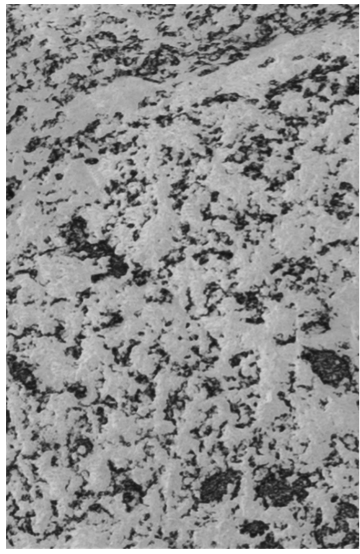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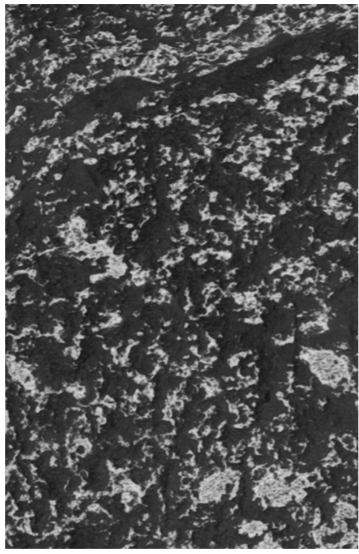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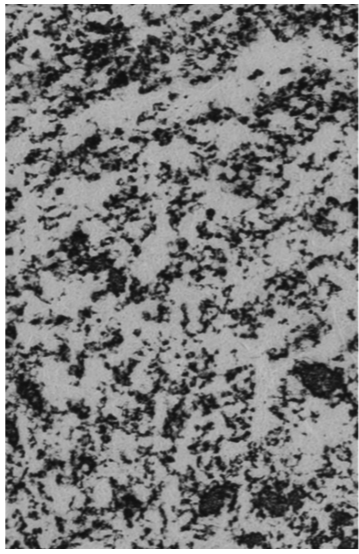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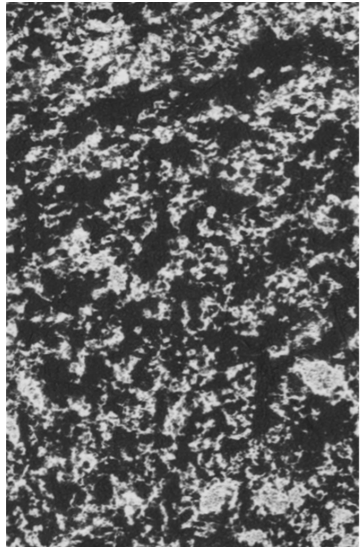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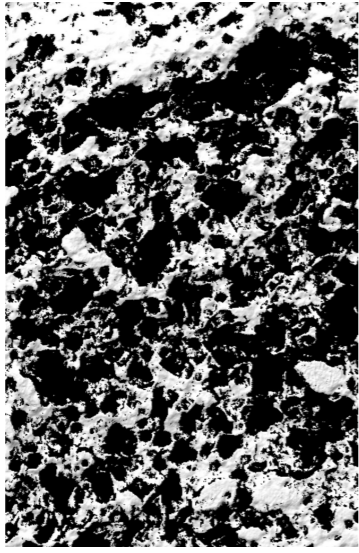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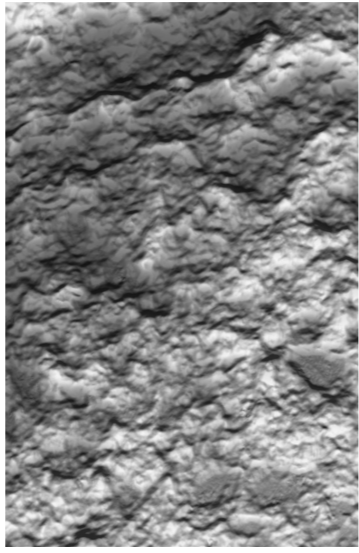
		
3D ao	3D no	3D rs
		
광비혜1-7-6-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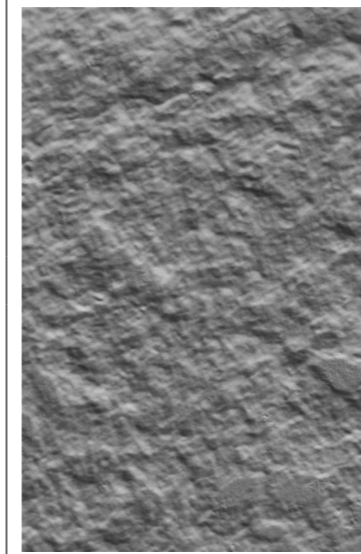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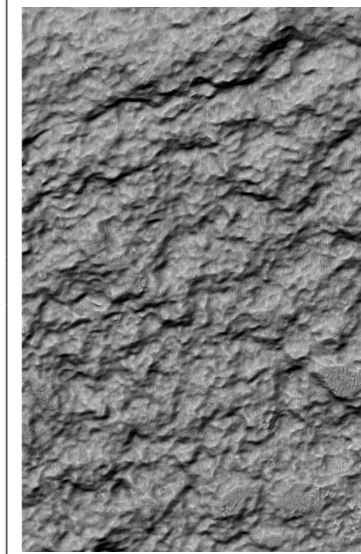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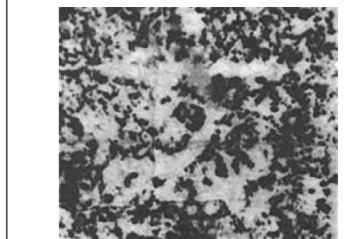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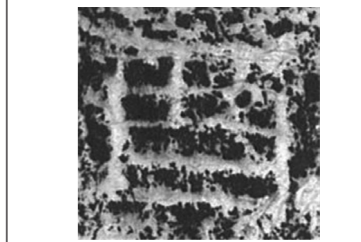
▶ 題額 0-6 : 在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 題額 0-7~8 : 丁酉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디지털 사진 반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3D ao	3D de

		
3D no	3D rs	광비수-3-4-24 丁
		
		광비수-1-6-19 酉

2) 干支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연대는 전면 제7행 15자에서 22자까지의 ‘十二月廿三(五, 二)甲寅’이라는 날짜와 좌측면에서 ‘辛酉年’이라는 연간지를 중심으로 추정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판독에 대해서는 비의 발견 당시 조사 및 연구에 참여하였던 학자들 간에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배 교수는 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中原碑에서 年代를 추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은 碑文에 나오는 「十二月 23(?)日 甲寅」이라는 句節이다. 이 以外에도 碑文에서 辛酉年을 찾아 參考하고자 하는 학자도 있다. 그런데 十二月 23日 甲寅에도 問題가 있다. 寅字는 分明하지만 甲字는 一部가 떨어져 나가 보이지 않으나 이를 甲寅으로 보는 데는 學者들의 意見이 一致되고 있다. 그러나 廿三이란 글자는 碑文과 拓本 및 寫眞을 통해서 比較해 보면 廿은 鮮明하나 三字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學者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二」字 같지는 않으며 「五」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만약에 三으로 본다고 하면 「募人三百」에서 나타나는 「三」字와는 다른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三」字로 보면 맨 위의 劃이 아래 두 劃과 너무 사이가 떠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五」로 간주한다고 하면 「五月中」에서 보이는 「五」字와는 또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否定的 立場에 서게 되면 三으로 보나 五로 보나 모두 問題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十二月 25日 甲寅이나 十二月 23日 甲寅으로 나타나는 年代를 찾아내서 이 年代와 碑文의 全體的인 內容이 暗示하는 意味를 견주어 年代를 찾아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하고 싶다.”⁸⁾

8) 金貞培, 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點」, 『史學志』 13, 90~91쪽.

그리고 신유년의 판독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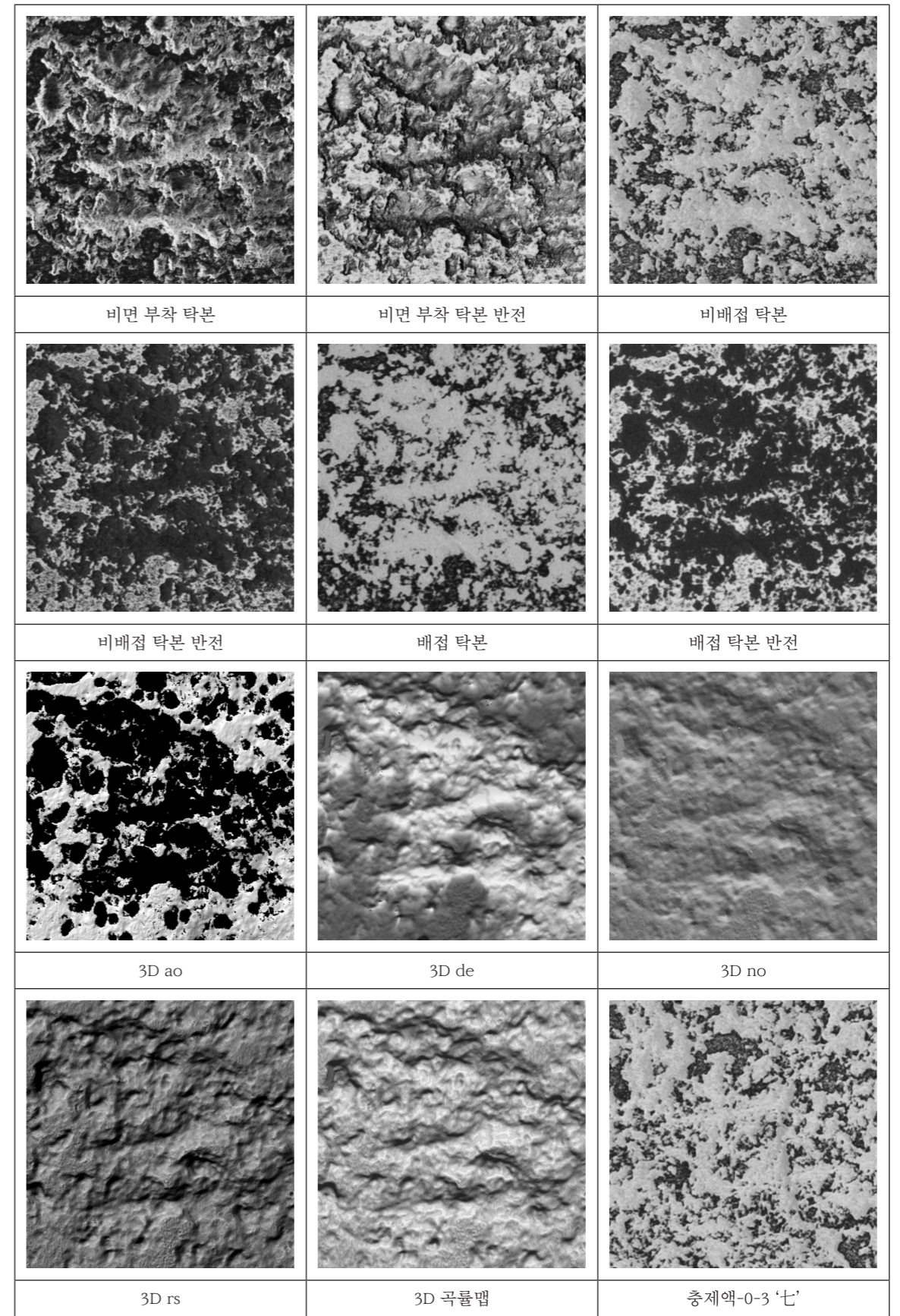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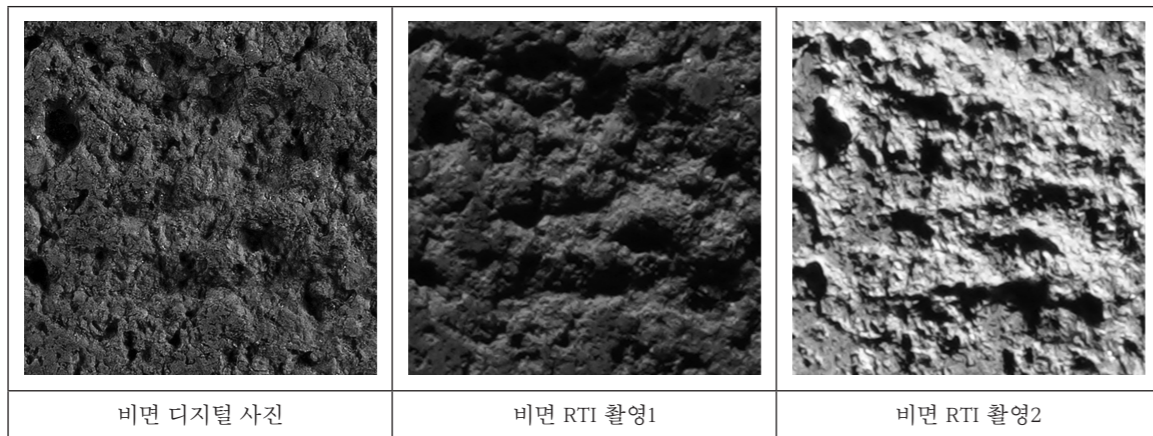
“.....또 한 가지 문제점은 辛酉年을 과연 判讀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필자도 이를 確證해보려고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辛酉年을 確認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흔히 지적하는 側面 3行의 「酉」字는 다른 字體에 비해서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이를 酉로 본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辛」字나 그 아래의 「年」字도 마찬가지이다.....”⁹⁾

이러한 김 교수의 지적은 당시 판독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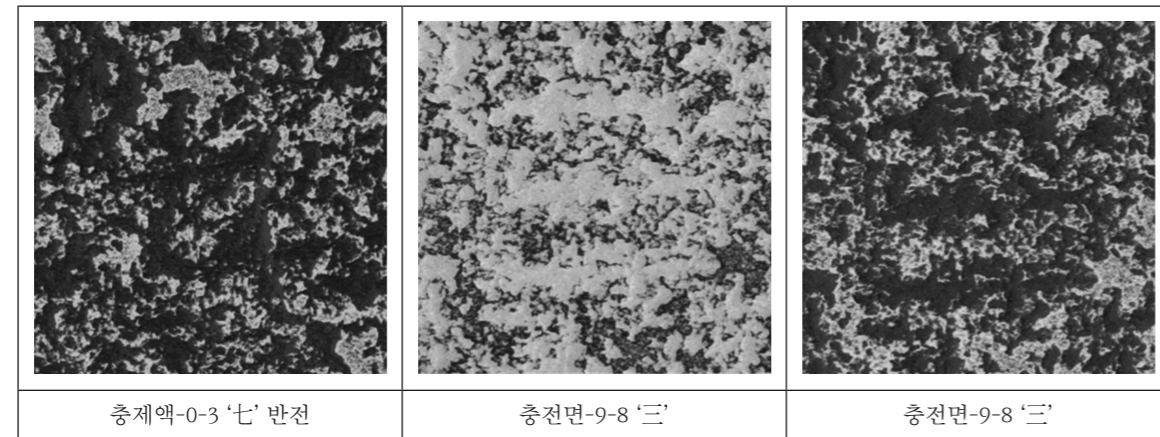
먼저 그동안 ‘三’자, ‘五’자 및 ‘二’자로 판독한 전면 7행 19자를 살펴보자. 이 글자는 좌측 상단부에서 우측 아래로 비스듬하게 훼손된 흔적이 비면의 박락 부위로 이어지고 있다. 탁본을 보면 좌측면이 약간 들린 ‘ㄱ’자 형태이고, 좌측 ‘桓’자의 상부 위치에 있어 ‘三’자나 ‘五’자로 판독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실제 비면을 관찰해 보면 좌상에서 우하 방향으로 석결이 나타나고 있고 자획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훼손된 흔적으로 보인다. 만약 이 글자가 ‘三’자라면 하단의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두 가로획의 위쪽에 또 하나의 가로획이 있어야 하는데 찾을 수 없다. 비면의 높낮이를 보여주는 3D 심도맵을 보면 비의 표면을 가리키는 빨간색 부분이 ‘三’자의 첫 번째 가로획이 새겨질 부분에 형성되어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五’자로 보기에 역시 같은 이유로 ‘五’자 첫 번째 가로획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제3획의 세로획 부분 또한 3D 심도맵 상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 필획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자는 날짜에 해당하므로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필획의 흔적을 보면 나머지 가능한 글자는 ‘二’자와 ‘七’이다. 하지만 ‘二’자로 보기에 글자가 차지할 전체 공간에 비해 너무 작아 보인다. 탁본에는 첫 번째 가로획 좌측 부분으로 세로획 하나가 지나는 것이 보이는데, 특히 RTI 촬영 결과 ‘七’자의 형태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된 날짜는 ‘十二月廿七日’이다.

전면-7-19-七



9) 위의 논문, 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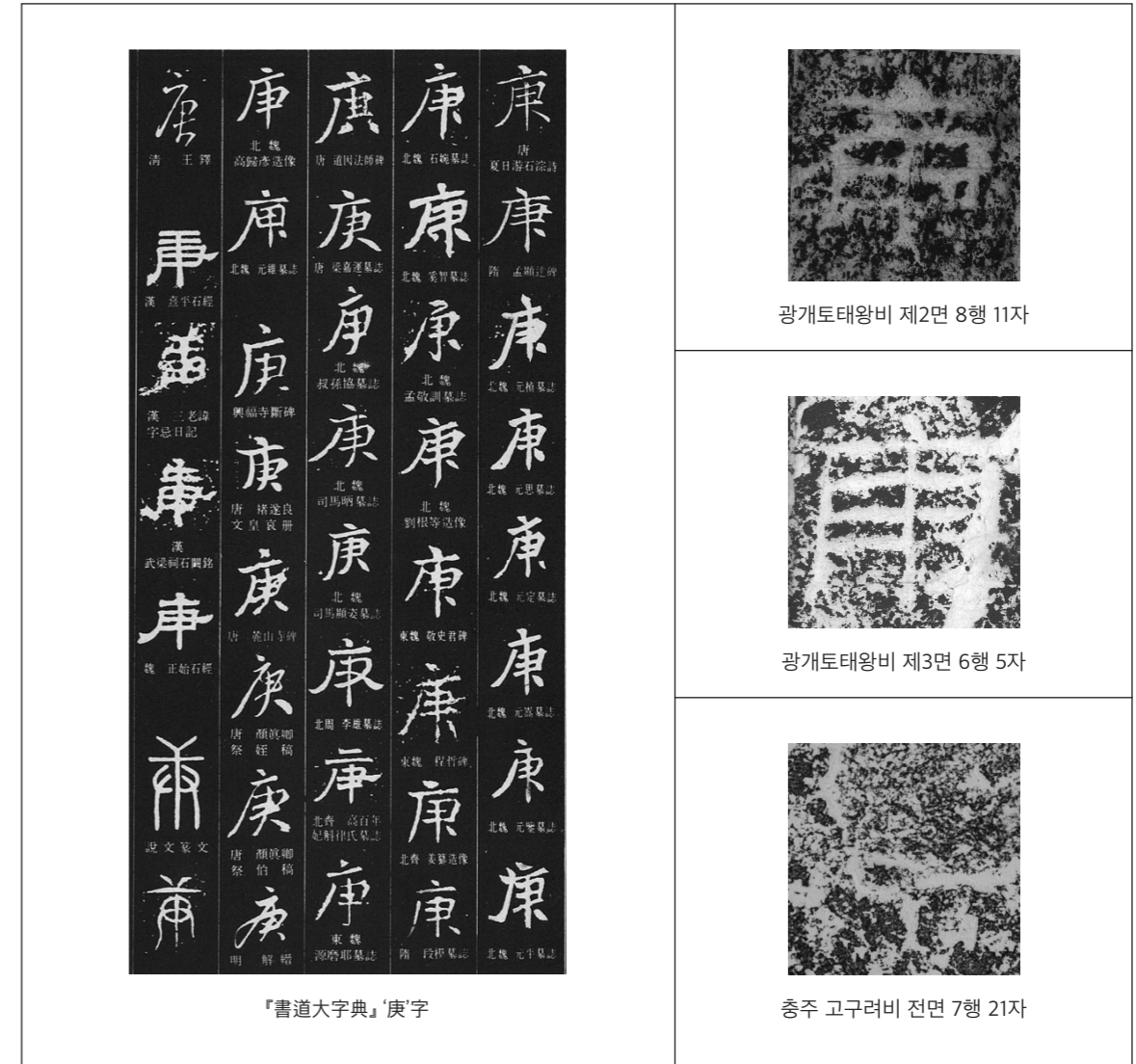
그렇다면 題額에서 확인된 '永樂七年歲在丁酉'는 397년이고 이 해 음력 12월 27일의 일간지는 '庚寅'¹⁰⁾이다. 즉 그동안 '甲'자로 읽은 것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자는 비문의 판독에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임창순 선생도 "「甲」은 石面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어서 그 一部만 보이나 甲에 틀림없을 듯하다"¹¹⁾고 단정하였을 정도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던 글자이다. 비면의 박락과 함께 상부가 떨어져 나갔으나 하부에 세로획 등 일부 필획이 남아있고 떨어져 나간 부분에서 '田'자처럼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면을 자세히 관찰하면 세로획의 좌측 약간 위부분에 좌하로 비스듬하게 내려온 흔적이 남아있고 우측에도 점획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다. 이 잔흔들은 박락 주변의 상대적으로 덜 훼손된 곳에 남아 있어 실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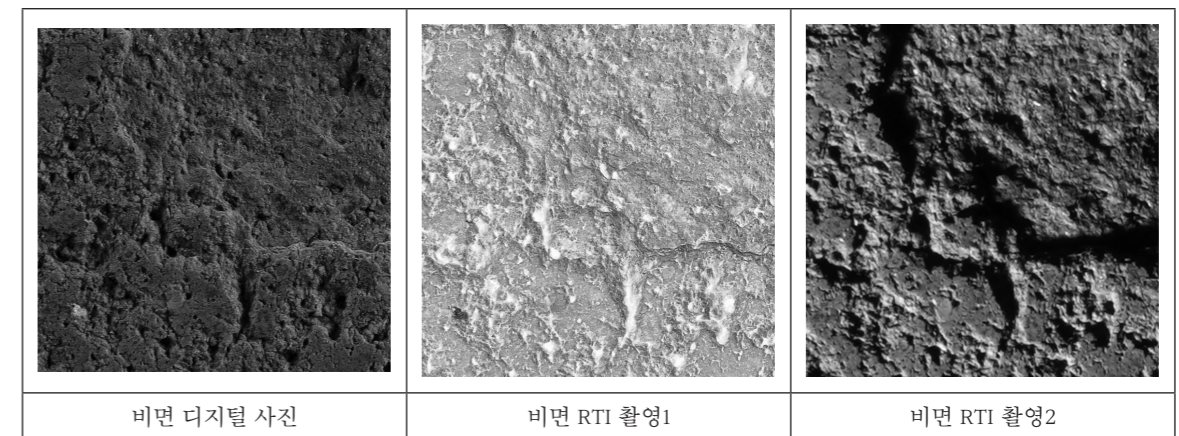
漢魏晉南北朝 시기의 금석문을 보면 '庚'자의 자형 결구는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명조체와는 다른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¹²⁾ 좌하향으로 내려 굽는 제7획을 세로의 직선획으로 처리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상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는 '甲'자 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원래의 형태는 광개토태왕비의 '庚'자 처럼 '广' 안쪽의 결구는 '甲'자와 비슷한 결구이고 세로획 옆에 점을 찍은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동안 '十二月廿三(또는 五)日甲寅'으로 판독한 것은 '十二月廿七日庚寅'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 글자는 충주 고구려비의 비밀을 풀어줄 결정적인 단서였음에도 잘못된 추단으로 인해 오독에 오독을 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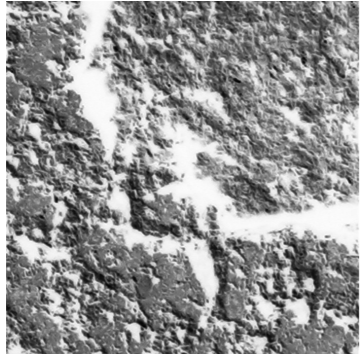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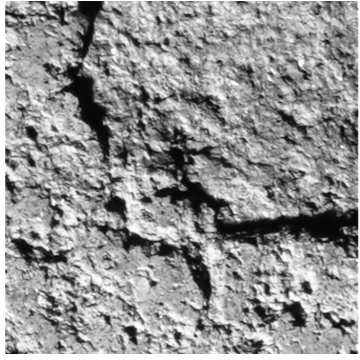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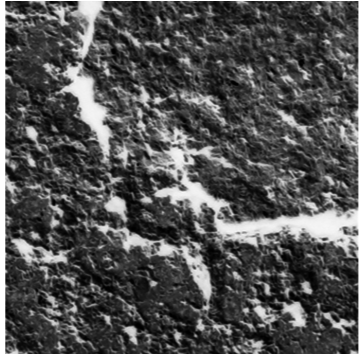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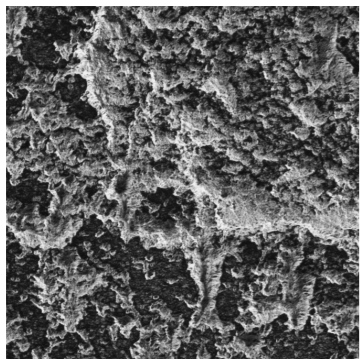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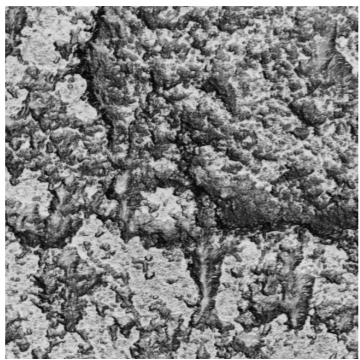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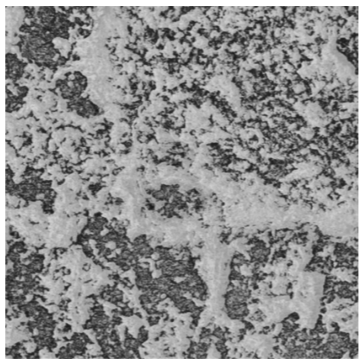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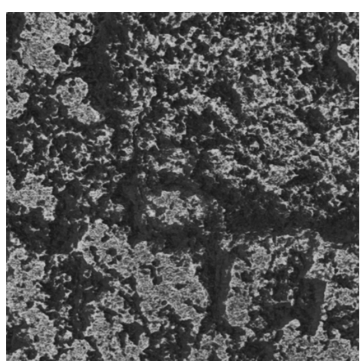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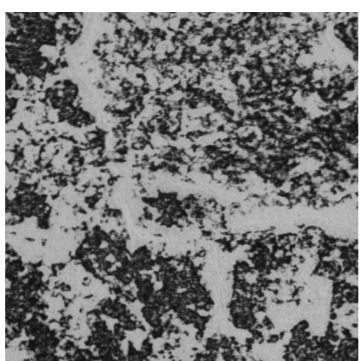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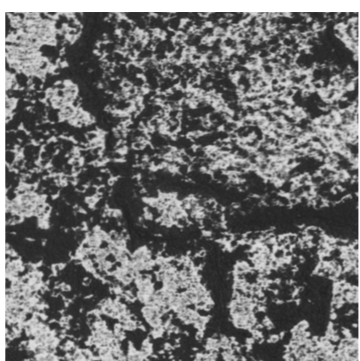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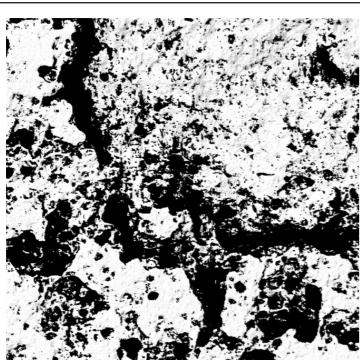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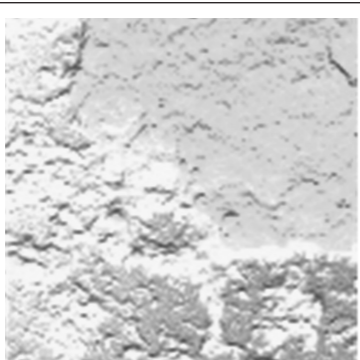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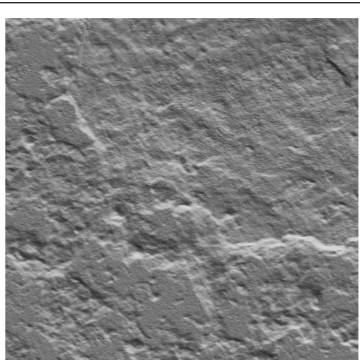
10) <http://www.lifesci.net/>
 11) 任昌淳, 1979, 「中原高句麗碑小考」, 『史學志』 13집, 56쪽.
 12) 伏見冲敬, 1976, 『書道大字典』, 凡中堂, 7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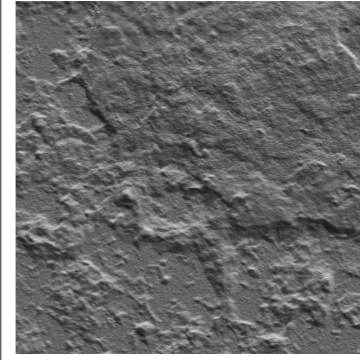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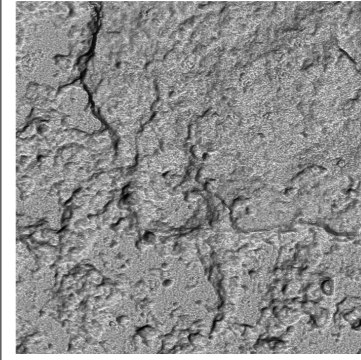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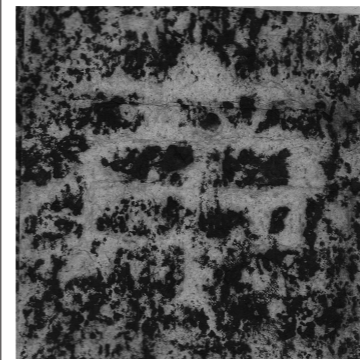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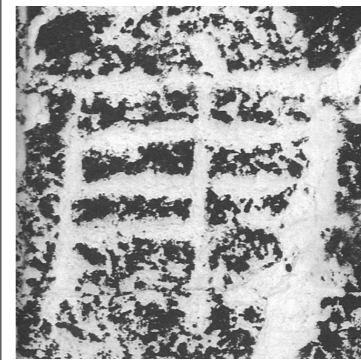
충주 고구려비 전면 7행 21자와 한위진남북조 금석문 및 광개토태왕비의 '庚'자 비교



전면-7-21-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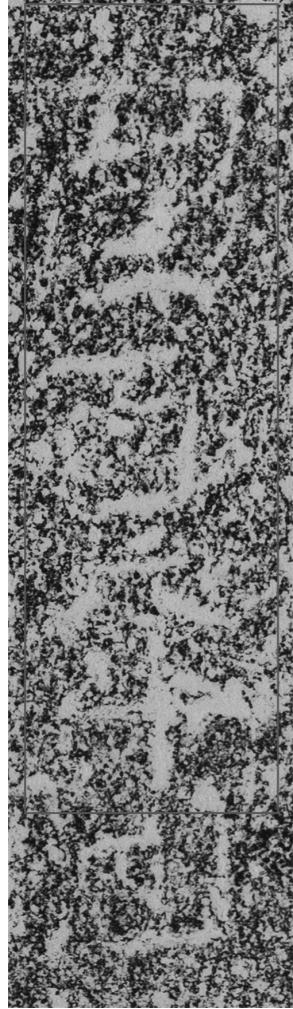


		
비면 RTI 촬영1 반전	비면 RTI 촬영2	비면 RTI 촬영2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3D ao	3D de	3D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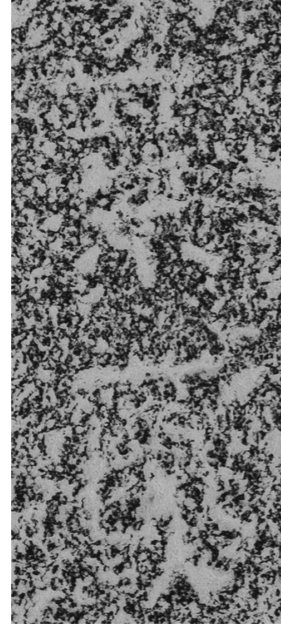
		
3D	3D rs	
		
광비혜-2-8-11 '庚'	광복C-3-6-5 '庚'	

다음으로 좌측면 제3행 7자 부분 이하 '辛酉年'으로 판독한 자형을 살펴보겠다. 이 부분은 김 교수가 언급했듯이 초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판독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辛酉年'으로 볼 수 없다. 약간의 확인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辛酉'로 볼 수 있는 형태는 5행 13-14자이다. 이들 글자를 서로 비교해 보면 자형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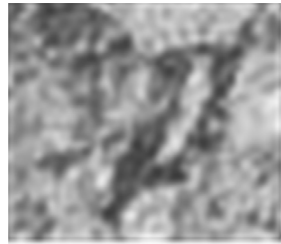
'辛'자로 볼 경우 '立'의 점획 부분이 전체 글자에서 지나치게 좌측에 있고 우측에 세로획이 하나 더 있으며 하부의 '末'의 세로획과 양쪽 점획이 분명치 않다. '年'자는 이체자인 '季'자로 본 것 같은데 상부 '禾'의 세로획이 없고 하부에서도 '干'의 가로획이 보이지 않는다. 題額의 '年'자와도 다른 형태여서 과연 같은 비석 안에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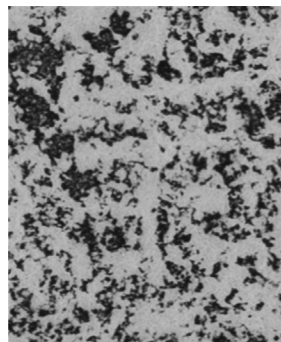
충주 고구려비 좌측면
'辛酉年' 판독(1979)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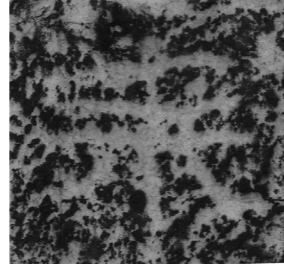
충주 고구려비 좌측면
5행 13, 14자 '辛酉'



덕흥리 고분 목서 묘지
'功'



충주 고구려비
題額의 '年'자



광개토태왕비
1-9-8의 '辛'자



청제비(병진명)
'六十一'

이 부분을 그저 보이는데로 읽으면 '功二百六十(四)'이다. 특히 '功'자와 '百'자는 바로 우측의 제2행 10~11자와 흡사하다. 다만 '功'의 경우 우측의 '刀'자와 '力'자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위진남북조시대에는 서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오히려 '刀'자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이 보인다.¹³⁾ '刀'변의 '功'자는 덕흥리 벽화 고분 목서 묘지의 제12행 4자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고구려에서도 구별 없이 썼던 것으로 생각된다.

		충좌-2-10-功-탁	충좌-2-10-功-탁반
		충좌-2-11-百-탁	충좌-2-11-百-탁반

이러한 글자를 연결하여 서사하는 습자는 동아시아 고대 금석문에서 보편화된 현상이다. 우리나라 삼국 시대 금석문이나 목간 등에서도 합자의 사례가 다수 보이는데¹⁴⁾ 덕흥리고분벽화 '十三郡太守說明文' 목서의 '十三', '二千三百' 등 숫자의 서사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六'자나 '八'자의 경우 그 다음 글자가 '十'자로 이어질 때 양쪽으로 펼친 두 획 안쪽으로 감싸도록 서사하는 특징은 신라 청제비(병진명)나 신라장적 등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충주 고구려비 발견 이래 '辛酉年'이라고 판독한 좌측면 제3행 7자부터 10자 위쪽의 글자는 '功二百六十(四)'일 가능성이 크다.

13) 伏見冲敬, 앞의 책, 227~2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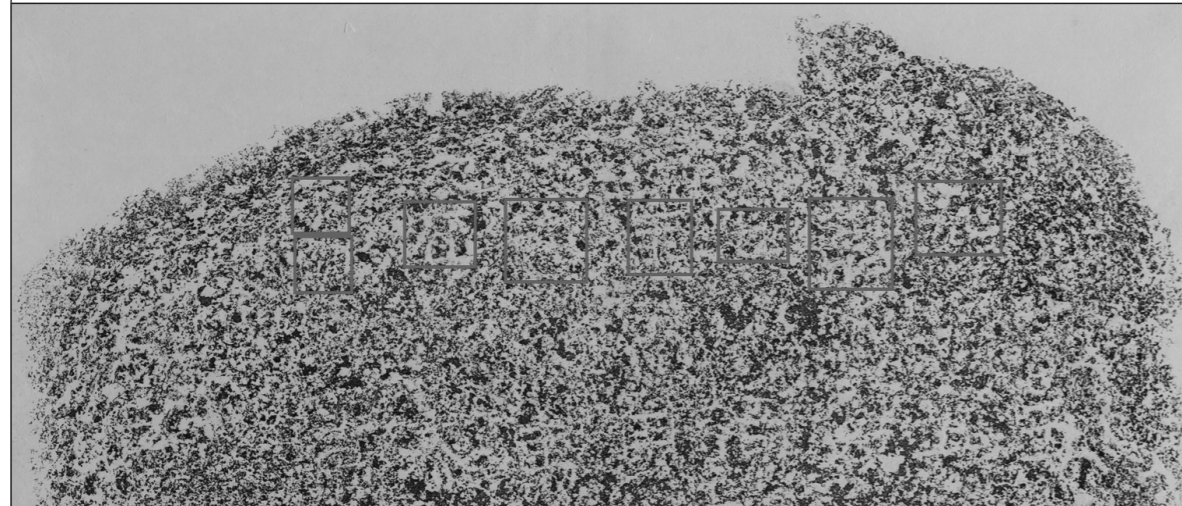
14) 권인한, 2019, 「합자(合字)와 국자(國字)」, 『문자와 고대 한국1-기록과 지배』, 주류성, 223~231쪽 참조.

V. 맺음말

이상 충주 고구려비의 제액과 비문에 나오는 간지를 중심으로 기존의 판독문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제액 부분에서 '永樂七年歲在丁酉'를 읽었고, 본문에서 '十二月廿三(五)日甲寅'으로 판독되던 것을 '十二月廿七日庚寅'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좌측면에서 '辛酉年'으로 판독하여 연대 추정의 단서로 삼았던 자형은 '功二百六十(四)'일 가능성이 크다.

충주 고구려비 제액 판독 결과

10	9	8	7	6	5	4	3	2	1	
×	×	丁酉	在	歲	年	七	樂	永	×	題額
×	×	×	×	×	×	×	×	×	×	
△	德	夷	大	夷	伊/用	向	奴	上	五	①



만약 이러한 판독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동안 충주 고구려비 연구에서 논란이 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비문의 시작 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액 부분에서 '永樂七年歲在丁酉' 연도가 확인되고 본문의 '五月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면을 1면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비의 건립 연대이다.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연대에 관해서는 5세기 이후 광개토태왕부터 6세기 문자왕 때까지 다양하게 추정하였으나 '永樂七年'이라는 연대가 확인된 만큼 비는 397년 혹은 이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좌측면 제5행 13, 14자의 '신유'뿐 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도 간지가 판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다.

여전히 비문의 많은 부분이 정확히 판독되지 않아 판독 결과에 따라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충주 고구려비의 단락 구성과 건립 시기

여호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1. 머리말

1979년에 발견된 충주 고구려비(이하 ‘충주비’로 약칭)는 고구려사 연구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할 정도로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비문의 판독과 해석, 건립 연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 또한 충주비를 바탕으로 고구려의 관등제를 비롯한 정치제도, 국토 인식과 천하관, 신라와의 외교 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¹⁾

다만 충주비는 건립 연대와 관련하여 광개토왕대설,²⁾ 421년 전후설,³⁾ 449~450년설,⁴⁾ 481년설,⁵⁾ 문자명왕대설⁶⁾ 등 논란이 분분한 데서 보듯이 여전히 난제를 많이 안고 있다. 충주비가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근본 이유는 판독에 있다. 충주비는 발견 당시 오랜 풍화와 마모로 인해 글자가 많이 마멸된 상태였다.⁷⁾ 전면과 좌측면에는 상당히 많은 글자가 남아 있었지만, 우측면과 후면은 판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⁸⁾ 2000년 2월 22~26일에 고구려연구회가 판독 작업을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논란이 되는 명문의 판독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올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충주비 발견 4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재청의 협조를 얻어 비문 판독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사진 자료를 확보하고, 8월 22일과 10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고대사학회와 공동으로 판독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논란이 되던 명문 가운데 상당수 글자의 판독안을 확정하고, 몇몇 글자를 새로 판독하기도 하였다.

필자도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탁본과 사진 자료를 토대로 판독을 진행하는 한편, 공동 판독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여러 연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⁹⁾ 또한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외대 대학원생들과도 비문 판독과 연구 성과 검토를 진행하였다.¹⁰⁾ 본 발표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필자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판독안 및 그에 기초하여 비문의 단락 구성과 건립 시기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선학제현의 검토를 받아 향후 더욱 보완하고자 한다.

1) 충주 고구려비 연구 현황은 김창호, 1987; 서영대, 1992; 장창은, 2006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2) 木村誠, 1997: 2000.

3) 木下礼仁 1981: 1993.

4) 임창순, 1979; 김정배, 1979; 김창호, 1987; 정운용, 1989; 임기환, 2000; 이도학, 2000;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장창은, 2006.

5) 변태섭, 1979; 신형식, 1979; 이호영, 1979; 김영하·한상준, 1983; 박성봉, 1997; 박진석, 2000.

6) 이병도, 1979; 손영중, 1985; 김현숙, 2002; 최장열, 2004; 박성현, 2010; 서지영, 2012.

7) 충주비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영호 1979, 11~12쪽; 1980, 116~117쪽 참조.

8) 비면 명칭은 관례에 따라 글자가 가장 많이 판독되는 면을 ‘前面’으로 상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좌측면, 우측면, 후면 등으로 지칭한다.

9) 본 발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공한 각종 탁본과 사진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에 이 자리를 빌어 판독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하신 고광의 박사 등 동북아역사재단의 여러 선생님 및 공주대와 카이스트 연구진에게 감사드립니다.

10) 한국외대 대학원 박사과정생 나유정, 석사과정생 박승미, 문영철, 신주희, 장수인 등이 참여하였다.

2. 비문의 판독안

[표 1] 충주 고구려비 판독 대비표

*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 『고구려연구회 2000』

전 면										
10	9	8	7	6	5	4	3	2	1	
□	□	夷	大	夷	用	尙/向	奴	上	五	1
□/[疏]	□	寐	位	寐	者	□/暨,望	主	下	月	2
奴	□	錦	諸	錦	賜	上	簿	相	中	3
□/扌△	境	上	位	還	之	共	道/貴	和	高	4
□	□	下	上	還	隨	看	德	守	麗	5
□/[凶]	募	至	下	來	者/□	節	□/△田	天	大/太	6
□/鬼	人	于	衣	節	節	賜	□/[類]	東	王	7
盖	三	伐	服	教	□	太	□/[王]	來	相/祖	8
盧	百	城	兼/[束,來]	賜	□	翟/霍	安	之	王	9
共	新	教	受	寐	奴	鄒	□/[貽]	寐	公/令	10
□/△甚	羅	來	教	錦	客	□/教,授	□	錦	□	11
募	土	前	跪	土	人	食	去	忌	新	12
人	內	部	營	內	□	□/[在]	□	太	羅	13
新	幢	大/太	之	諸	教	□/東	□	子	寐	14
羅	主	使	十	衆	諸	賜/夷	到	共	錦	15
土	下	者	二	人	位	寐	至	前	世	16
內	部	多	月	□	賜	錦	跪	部	世	17
衆	拔	亏/于	廿	□	上	之	營	大/太	爲	18
人	位	桓	三	□	下	衣	□/天,大,天	使	願	19
拜/跬	使	奴	日	□	衣	服	太	者	如	20
動	者	主	甲	王	服	建	子	多	兄	21
□	補	簿	寅	國	教	立	共	亏	如	22
□	奴	□/貴	東	土	東	處	□/言△	桓	弟	23

좌측면							
7	6	5	4	3	2	1	
伐/□	□	□	□	□	□	□	1
城/□	□	□	□/人	□	□	□	2
□/去	□	□	□	□	□	□	3
□/于	□	□	□	□	□	中/忠	4
□	□	□	□	□	□	□	5
古	□	□	□	□	□	□	6
牟	方/方,万,右	□	□	辛	□	□/[于]	7
婁	□/袒	□	□	酉	□	□/伐	8
城	桓/故	□	□	年/□	班/刺	城	9
守	□	上	□	□	功	不	10
事	沙	有/[右]	□	□	□	□/彘△	11
下	□	□	□	□	□	□	12
部	斯	□/辛	□/黃	十	□/射	村	13
大	色	酉	□	□	□	舍	14
兄	□	□	□	□	□	□	15
耶	□/太	□	□	□	□	□	16
□	古	□	□	□	□	□	17
	鄒	□	□	□	□	□/月△	18
	加	東	□	太	節	□/胜	19
	共	夷	□	王	人	□	20
	軍	寐	□/[安]	國	□/刺	□/[沙]	21
	至	錦	□	土	□	沙/□	22
	于	土	□	□	□	□	23

먼저 前面에 대한 필자의 판독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¹⁾

1행 6자 : 종래 ‘大’, ‘太’ 등으로 판독했다. ‘太’자인 2행 13자는 ‘丿’획이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있고, 3행 20자는 정중앙에 위치한 반면, 이 글자의 ‘丿’획 부분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 글자의 ‘丿’획은 크랙으로 보고, ‘大’자로 판독하고자 한다.

1행 8자 : 종래 ‘相’, ‘祖’ 등의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새롭게 확보된 디지털 사진 자료상 좌변은 ‘木’, 우변은 ‘且’로 확인되므로 ‘祖’자 판독안에 따른다.

1행 10자 : 종래 ‘公’, ‘令’ 등의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상부 자획은 ‘八’획으로 확인된다. 하부 자획도 ‘令’의 종선은 확인되지 않고, ‘厶’획이 확인된다. ‘公’자 판독안에 따른다.

2행 4자 : 종래 ‘和’자로 많이 판독하는 가운데 ‘知’자 판독안이 제기된 바 있다. 제1차 판독회 때 고광의 박사의 제안으로 여러 참석자들이 좌변의 자획이 ‘矢’에 가깝다는 데 동의했다. ‘知’자 판독안에 따른다.

2행 22자 : 자획상 ‘亏(울)’자로 판독된다. 다만 이 글자는 ‘多亏桓奴/多于桓奴’라는 인명의 일부로 8행 18자가 ‘于’이므로 ‘于’의 이체자인 ‘亏’를 刻字한 것으로 파악된다.

3행 4자 : 종래 ‘道’, ‘貴’ 등이 판독안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좌하단에서 ‘辶’획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상단에서 ‘貴’자 상단의 ‘口’획이 확인된다. 더욱이 동일인의 인명인 8행 23자도 ‘貴’자로 판독된다. ‘貴’자 판독안에 따른다.

3행 6자 : 종래 판독 불능자로 처리하거나 우변에 ‘田’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제1차와 제2차 판독회를 통해 고광의 박사의 제안대로 ‘句’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데 많은 참가자들이 동의했다. 필자도 ‘句’ 판독안을 수용한다.

3행 7자 : 종래 ‘類’자 판독안이 제시되었지만, 디지털 사진 자료상 ‘類’자 자획을 찾기 어렵다. 2차 판독회 때 공주대 연구팀에서 ‘於’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좌변이 ‘方’변일 가능성이 높지만, ‘於’자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판독 불능자로 남겨둔다.

3행 8자 : 종래 판독 불능자로 처리하거나 ‘王’자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자획이 왼쪽으로 약간 치우쳤지만 ‘王’자 자획을 확인할 수 있다. ‘王’ 판독안에 따른다.

3행 9자 : 종래 거의 모든 연구자가 ‘安’자로 판독했다. 그렇지만 디지털 사진 자료상 ‘不’ 자획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에 ‘不’자 판독안을 제안한다.

3행 10자 : 종래 판독 불능자로 처리하거나 ‘貽’자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좌변에서 ‘耳’획이 확인된다. 우변의 상단 자획은 ‘人’자이며, ‘人’획 아래에서 ‘一’획이 확인된다. 이러한 자형의 글자로 ‘聆’과 ‘聆’ 등이 있는데, 좌하단에서 종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聆’자 판독안을 제안한다.

3행 12자 : 종래 ‘去’나 ‘古’, ‘法’ 등으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좌변에서 ‘彡’변이 확인되지 않고, 하단 자획도 ‘厶’에 가깝다는 점에서 ‘去’ 판독안에 따른다.

3행 19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天’, ‘大’, ‘夭’ 등으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상단에 ‘一’

11)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종래 논란이 되었던 글자나 새롭게 읽은 글자에 대한 판독안만 제시한다. 각 연구자의 판독안은 고광의 선생님 발표문에 정리될 예정이므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대표적 판독안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서영대, 1992) 및 2000년 고구려연구회 판독안의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판독안과 관련한 디지털 사진 자료는 부록의 도표로 제시했다.

이나 ‘丿’ 자획을 확인하기 어렵다. ‘大’ 판독안에 따른다.

3행 23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좌변에 ‘言’획이 있는 것으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좌변에서 ‘言’변이 확인된다. 우변의 상단에서 ‘五’획의 상단부, 하변에서는 ‘口’획을 확인할 수 있다. ‘語’ 판독안을 제시한다.¹²⁾

4행 1자 : 종래 ‘尙’이나 ‘尙’으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상단 중앙에서 좌변으로 피친 ‘丿’ 획을 확인할 수 있다. ‘尙’ 판독안에 따른다.

4행 2자 :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斲’, ‘望’ 등으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좌상단에서 ‘尸+共’획, 우상단에서 ‘几’획, 하단에서 ‘土’획 등이 확인된다. ‘斲’ 판독안에 따른다.

4행 9자 : 종래 ‘翟’, ‘霍’ 등으로 판독했다. 필자는 제2차 판독회 때 ‘翟’일 가능성을 제안했는데, 여러 연구자의 견해를 참조하여 재검토한 결과, 상단 자획은 ‘雨’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霍’ 판독안에 따른다.

4행 11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教’, ‘授’ 등으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좌변 하단에서 ‘子’획, 우변에서 ‘攴’획이 확인되므로 ‘教’ 판독안에 따른다.

4행 13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在’, ‘焉’ 등으로 판독했다. 필자는 제1차와 제2차 판독회에서 ‘于’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디지털 사진 자료상 ‘土’의 우하단 자획이 확인되지 않고, 종선획이 ‘于’자의 ‘丿’획에 가깝다는 사실에 착안한 견해였다. 다만 공주대 연구팀을 비롯해 참석자 다수가 좌상단에서 ‘在’의 ‘一+丿’ 획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재검토한 결과 ‘于’자로 판독할 경우 글자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단 ‘在’ 판독안을 수용하고자 한다.

4행 14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東’으로 판독했다. 새롭게 확보된 디지털 사진 자료상 ‘東’자가 거의 명확하다.

4행 15자 : 종래 ‘賜’, ‘夷’ 등으로 판독했다. ‘夷’가 거의 명확하다.

5행 1자 : 종래 다수 연구자가 ‘用’으로 판독했으며, ‘伊’ 판독안도 제시되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用’자의 좌우 종선획의 하단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伊’자의 ‘丿’ 변 자획도 명확하지 않다. 자형상 ‘尹’일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판단은 유보한다.

5행 2자 : 종래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者’로 판독했다. 그렇지만 2행 20자, 8행 16자, 9행 21자 등 다른 ‘者’자는 ‘丿’획이 우상에서 좌하로 거의 일직선인데, 이 글자에서는 ‘丿’ 획의 우상단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우하단의 자획도 ‘日’보다 ‘月’에 가깝다. 이에 ‘有’자 판독안을 제안한다.

5행 6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者’, ‘去’ 등으로 판독했다. 그런데 디지털 사진 자료상 상단에서 ‘共’획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부 중앙에서 ‘丩’획의 ‘丿’획이 확인된다. ‘恭’자 판독안을 제안한다.

5행 7자 : 종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節’로 판독했다. 그렇지만 디지털 사진 자료상 좌변에서 ‘言’변, 우변에서는 ‘者’획을 확인할 수 있다. ‘諸’자 판독안을 제안한다.

5행 8자 : 제1차 및 제2차 판독회에서 ‘王’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王’자로 보이는 자획이 좌우의 4행 8자(太)나 6행 8자(教)에 비해 위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에 최종 판단은 유보한다.

5행 9자 : 대부분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賜’나 ‘使’ 등으로 판독했다. 다만 디지털 사진 자료상 ‘賜’나 ‘使’의 자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형상 ‘古’자에 가까운데, 좌우의 4행 9자(霍)나 6행 9자(賜)에 비해 위쪽으로

12) 임기환, 2000; 이용현, 2000 등에서 ‘語’자 판독안을 제시한 바 있다.

치우쳐 있다. 최종 판단은 유보한다.

5행 13자 : 대부분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革’, ‘者’, ‘草’ 등으로 판독했다. 다만 디지털 사진 자료상 ‘革’, ‘者’, ‘草’ 등의 자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하단부에서 ‘寸’획, 상단부에서는 ‘讠+一’획이 확인된다. 北魏의 〈尹愛姜造像碑〉에 ‘等’의 약자인 ‘廿+寸’자가 확인되는데, 이 글자와 자형이 유사하다. ‘等’자의 약자일 가능성을 제안한다.

6행 16자 : 제2차 판독회에서 고평의 박사가 ‘大+十(本)’자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기존 판독안대로 ‘人’자로 판독한다.

6행 18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又’나 ‘人’ 등으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支’자 자획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支’ 판독안을 제안한다.

6행 19자 : 가장 하단부는 결락된 글자로 종래 판독 불능자로 처리되었다. 제2차 판독회에서 ‘告’자 판독안이 제기되었는데, 결락 부분을 제외하면 ‘告’자의 중상단 자획이 모두 확인된다. ‘告’자 판독안에 따른다.

6행 20자 : 결락된 부분이다. 6행 21~23자에 ‘王國土’가 확인되므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大’자로 추독한다. ‘大’자 추독안에 따른다.

7행 9자 : 종래 ‘兼’, ‘束’, ‘來’ 등 다양한 글자로 판독되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종선이 두 개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兼’자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兼’자 판독안에 따른다.

7행 19자 : 전면에 기술된 사건의 발생 시점 및 비석의 건립 연대와 관련해 중요한 글자이다. 종래 ‘三’자 판독안이 유력한 가운데, ‘五’자로도 판독했다. 이번 판독회에서는 ‘七’자 판독안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만 디지털 사진 자료상 ‘三’자의 가장 상단 ‘一’획은 확인되지 않지만 중하단의 ‘二’자 자획은 명확하며, ‘五’자나 ‘七’자의 종선획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단의 ‘一’획이 박락된 것으로 보아 ‘三’자 판독안에 따른다.

7행 20자 : 결락된 부분인데, 전후 문맥을 통해 ‘日’자로 추독한다.

7행 21자 : 상단 자획은 결락되었는데, 7행 22자가 12지의 하나인 ‘寅’자이다. 10간 가운데 한 글자로 하단의 자획을 통해 ‘甲’자로 판독할 수 있다.

8행 23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貴’로 판독했는데, 디지털 사진 자료상 ‘貴’자가 거의 명확하다.

9행 1자 : 마멸로 인해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8행 21자~9행 1자에 3행 2~5자와 동일한 인명이 각자되었기 때문에 ‘主簿貴德’의 ‘德’자로 추독한다.

9행 3자 : 대부분 판독 불능자로 처리하거나 ‘羅’, ‘萬’, ‘夷’ 등으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6행 12자, 6행 23자, 10행 16자 등과 같이 ‘土’자의 자획이 확인된다. ‘土’자 판독안을 제안한다.

10행 4자 : 종래 명확하게 판독되지 않았던 글자인데, 디지털 사진 자료상 좌변에서 ‘扌’변이 확인된다. 우변은 ‘夫’획과 ‘末’획일 가능성이 있는데, 하단부의 종선 자획이 두 개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夫’로 판독해 두고자 한다. ‘扶’자 판독안을 제안한다.

10행 5자 : 종래 대부분 판독 불능자로 처리하거나 ‘狍’, ‘位’, ‘狗’ 등으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좌변에서 ‘扌’변이 확인되지만, 우변의 자획은 명확하지 않다. 판독 불능자로 처리해둔다.

10행 6자와 7자 : 종래 판독 불능자로 처리하거나 다양한 판독안이 제기된 글자이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자

획은 확인되지만 무슨 글자인지 판독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판독 불능자로 처리해둔다.

10행 11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謀’, ‘堪’, ‘?+甚’, ‘謹’ 등으로 판독했다. 그렇지만 디지털 사진 자료상 좌변에서 ‘言’변이나 ‘土’변은 확인되지 않고, 우변에서도 ‘甚’획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단에서 ‘衣’획이 확인되지만, 상단부의 자획은 명확하지 않다. 일단 판독 불능자로 처리해둔다.

10행 20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拜’, ‘供’, ‘記’, ‘跬’, ‘踐’ 등으로 판독했다. 다만 디지털 사진 자료상 종래 제안되었던 글자의 자획을 확인하기 어렵다. 상단부에서 ‘丿+土’, 하단부에서 ‘儿’ 자획이 확인된다. ‘先’자 판독안을 제안한다.

10행 22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爵’, ‘帝’ 등으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상단에서 ‘太’획, 하단에서 ‘寸’획이 확인된다. 북위의 〈李頤墓誌〉에서도 자형이 동일한 ‘奪’의 약자인 ‘太+寸’자가 확인된다. 글자가 우상단으로 치우쳐 있어서 결락된 좌변과 하단부에 자획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비석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만곡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奪’의 약자일 가능성을 제안한다.

좌측면은 마멸이 심하여 판독하기 쉽지 않다. 비문의 내용 및 연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중요한 몇 글자에 대해서만 판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행 21자와 22자 : 서영대 1992에서 1행 22자를 ‘沙’로 판독했는데, 디지털 사진 자료상 1행 22자는 자획이 명확하지 않으며, 1행 21자가 ‘沙’로 판독된다.

2행 9자와 21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班’, ‘刺’ 등으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刺’의 속자인 ‘刺’으로 판독된다.

2행 11자 : 종래 판독 불능자로 처리되었는데, 디지털 사진 자료상 ‘百’로 판독된다.

2행 13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射’ 등으로 판독했는데, 디지털 사진 자료상 ‘射’자로 판독할 수 있다.

2행 18자 : 종래 판독 불능자로 처리되었는데, 디지털 사진 자료상 ‘上’으로 판독된다.

2행 22자 : 글자의 하단부 자리는 일부 결락되었지만, 중상단부는 남아 있는데, 글자의 자흔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제2차 판독회에서 필자의 질의에 대해 공주대 연구팀도 자흔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3행 7~9자 : 종래 ‘辛酉年’으로 판독해 비석의 건립연대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3행 8자는 ‘酉’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3행 7자와 9자는 다른 글자와 자형이 상당히 다르며 글자 크기도 큰 편이다. 판독을 유보한다.

3행 17자 : 종래 판독 불능자로 처리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十二’ 두 글자의 자형이 확인되지만, 특이한 사례이므로 최종 판단은 유보한다.

3행 19자 : 종래 ‘大’나 ‘太’로 판독했는데, 제2차 판독회에서 ‘太’자의 ‘丿’획으로 판독하던 부분은 암석 입자의 결락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大’자일 가능성이 높다.

4행 2자 : 디지털 사진 자료상 희미하지만 ‘人’의 자획이 확인된다.

5행 11자 : ‘有’자나 ‘右’자로 판독되었는데, 디지털 사진 자료상 ‘有’자로 판독된다.

5행 13~15자 : 디지털 사진 자료상 5행 13자는 '辛', 14자는 '酉'로 판독할 수 있다. 다만 15자는 마멸이 심하여 판독할 수 없다.

6행 16자 :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太', '大'로 판독했다. 디지털 사진 자료상 '太'의 '丿'이 확인되지 않는다. '太'보다는 '大'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7행 1~2자 : 마멸이 심해 판독하기 힘든 상황이다. 6행 23자의 '于'자를 단서로 전면 8행 7~9자에 나오는 '于伐城'의 '伐城'으로 추독하는데, 필자도 이에 따른다.

7행 3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去'자로 판독했는데, 디지털 사진 자료상 '去'로 판독할 수 있다.

7행 4자 : 종래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거나 '于'자로 판독했는데, 디지털 사진 자료상 '于'로 판독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충주 고구려비 전면과 좌측면의 판독안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표 3>에 가로쓰기 판독안을 제시한다.

<표 2> 충주 고구려비 판독안¹³⁾

좌측면							전면										
7	6	5	4	3	2	1	10	9	8	7	6	5	4	3	2	1	
伐	□	□	□	□	□	□	□	德	夷	大	夷	尹	向	奴	上	五	1
城	□	□	人	□	□	□	□	□	寐	位	寐	有	壁	主	下	月	2
去	□	□	□	□	□	□	奴	土	錦	諸	錦	賜	上	簿	相	中	3
于	□	□	□	□	□	□	扶	境	上	位	逖	之	共	貴	知	高	4
□	□	□	□	□	□	□	△	□	下	上	還	隨	看	德	守	麗	5
古	□	□	□	□	□	□	□	募	至	下	來	恭	節	句	天	大	6
牟	□	□	□	□	□	□	□	人	于	衣	節	諸	賜	□	東	王	7
婁	□	□	□	□	□	□	盖	三	伐	服	教	王	太	王	來	祖	8
城	□	□	□	□	荆	城	盧	百	城	兼	賜	古	霍	不	之	王	9
守	□	上	□	□	功	不	共	新	教	受	寐	奴	鄒	聆	寐	公	10
事	沙	有	□	□	百	□	衮	羅	來	教	錦	客	教	□	錦	□	11
下	□	□	□	□	□	□	募	土	前	跪	土	人	食	去	忌	新	12
部	斯	辛	□	十	射	村	人	內	部	營	內	等	在	□	太	羅	13
大	色	酉	□	□	□	舍	新	幢	大	之	諸	教	東	□	子	寐	14
兄	□	□	□	□	□	□	羅	主	使	十	衆	諸	夷	到	共	錦	15
耶	大	□	□	□	□	□	土	下	者	二	人	位	寐	至	前	世	16
□	古	□	□	士	□	□	內	部	多	月	□	賜	錦	跪	部	世	17
鄒	□	□	□	上	□	□	衆	拔	于	廿	支	上	之	營	大	爲	18
加	東	□	大	節	胜	□	人	位	桓	三	告	下	衣	大	使	願	19
共	夷	□	王	人	□	□	先	使	奴	日	大	衣	服	太	者	如	20
軍	寐	□	國	荆	沙	□	動	者	主	甲	王	服	建	子	多	兄	21
至	錦	□	土	?	□	□	奪	補	簿	寅	國	教	立	共	亏	如	22
于	土	결	결	결	결	결	奴	貴	東	土	東	處	語	桓	弟	23	

13) 밑줄 친 판독안은 추독한 글자임. 또한 전면 5행 1자, 8자, 9자 및 좌측면 3행 17자 등 회색 음영으로 표기한 글자는 최종 판단을 유보한 글자로 비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표 3] 충주 고구려비의 전면과 좌측면 판독문¹⁴⁾

<前面>	
1	五月中高麗大王祖王公□新羅寐錦世世爲願如兄如弟」
2	上下相知守天東來之寐錦忌太子共前部大使者多亏桓」
3	奴主簿貴德句□王不□聆去□□到至跪營大太子共語」
4	向壁上共看節賜太霍鄒教食在東夷寐錦之衣服建立處」
5	◇有賜之隨恭諸◇◇奴客人等教諸位賜上下衣服教東」
6	夷寐錦逕還來節教賜寐錦土內諸衆人□支告大王國土」
7	大位諸位上下衣服兼受教跪營之十二月廿三日甲寅東」
8	夷寐錦上下至于伐城教來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貴」
9	德□土境□募人三百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
10	□□奴扶△□□盖盧共△募人新羅土內衆人先動奪■」
<左側面>	
1	□□□□□□□□城不□□村舍□□□□胜□沙□■」
2	□□□□□□□□剌功百□射□□□□上節人刺□■」
3	□□□□□□□□□□□□十□□□□□大王國土■」
4	□人□□□□□□□□□□□□□□□□□□□■」
5	□□□□□□□□□□上有□辛酉□□□□東夷寐錦土」
6	□□□□□□□□□□沙□斯色□大古鄒加共軍至于」
7	伐城去于□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

14) 밑줄 : 추독자, □ : 판독 불능자, △ : 일부 자획 잔존, ■ : 결락, ◇ : 최종 판단 유보자.

3. 비문의 단락 구분과 해석

비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락이나 문장을 구분해야 하는데, 구분 기준으로는 행위의 시점, 장소, 주체 등을 들 수 있다. 행위의 주체는 문장에 명시된 경우도 있지만, ‘敎’자처럼 숨겨진 경우도 있다. 충주비에도 ‘敎’자가 다수 확인되는데, 행위의 주체는 고구려 왕이다.¹⁵⁾ 종결사도 단락 구분의 주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유의하면서 단락을 구분하고 각 문장의 뜻을 살펴보고자 한다.

1행 1~3자 ‘五月中’과 7행 15~22자 ‘十二月廿三日甲寅’은 행위가 일어난 시점으로 단락 구분의 주요 지표이다. 특히 7행 15자 앞에 연도를 지칭하는 연호나 간지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같은 연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상정된다. 전면은 ‘五月中’과 ‘十二月廿三日甲寅’을 기준으로 5월 사건(A)과 12월 사건(B) 등 두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월 사건을 기술한 B문단에는 행위의 장소로 ‘于伐城(8행 7~9자)이 나오지만, 5월 사건을 기술한 A문단에는 특정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 반면 3행 17~18자와 7행 12~13자에 ‘跪營’이라는 동일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가 나온다. 이는 3행~7행의 행위가 ‘跪營’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이 부분의 종결사가 주목된다.

A문단의 마지막 글자인 7행 14자는 ‘之’자인데, 문맥상 종결사로 파악된다. 그밖에 1~7행에는 2행 9자, 4행 18자, 5행 4자 등 3곳에 ‘之’자가 나온다. 이 가운데 4행 18자는 ‘東夷寐錦之衣服’의 일부로 소유격으로 사용되었고, 5행 4자는 ‘賜之’라는 구절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반면 2행 9자는 ‘東來之’로 문맥상 종결사로 파악된다. 이를 제외하면 1~7행에서 다른 종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A문단은 종결사를 기준으로 다시 1행~2행9자(Aa)와 2행10자~7행14자(Ab) 등 두 개의 소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두의 Aa 소단락은 “五月中高麗大王祖王公□新羅寐錦世世爲願如兄如弟上下相知守天東來之”이다. 공동 판독회를 통해 종래 논란이 되었던 1행8자는 ‘祖’, ‘슈’으로 판독되었던 1행10자는 ‘公’으로 판독했다. 이 문장의 행위 주체는 1행 4~10자의 ‘高麗大王祖王公’인데, 해석 방식에 따라 행위의 주체를 ‘高麗大王과 祖王과 公’, ‘高麗大王的 祖王과 公’, ‘高麗大王的 祖王公’ 등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2명의 왕이 동시에 공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려대왕과 조왕과 공’은 제외된다. 또한 후술하듯이 ‘跪營’에서 거행된 복속의례에서 王命인 ‘敎’가 여러 차례 내려졌다는 점에서 왕이 행차했다고 상정할 수 없는 ‘高麗大王的 祖王公’ 해석안도 제외해야 한다.

이 문장의 행위 주체는 ‘高麗大王的 祖王과 公’이며, 이에 조응하는 서술어는 ‘東來’인 것이다. Aa 소단락은 “5월에 高麗大王的 祖王과 公께서 新羅의 寐錦과 世世토록 兄弟처럼 上下가 잘 이해하고¹⁶⁾ 守天하기를 원하게 되어 동쪽으로 오셨다.”로 해석할 수 있다. Aa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행위가 아니라 ‘高麗大王的 祖王과 公’이 ‘신라 매금’과 만나기 위해 동쪽 방향으로 이동한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A단락의 도입부로 이 단락에 기술된 제반 행위의 목적을 제시한 문장이다.

Ab 단락은 행위의 주체와 내용에 따라 여러 문장으로 세분된다. 먼저 2행10자~3행5자에는 ‘寐錦 忌, 太子

15)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p.8.

16) ‘相知’는 “서로 잘 이해하여 뜻이 잘 통하는 것(知心)”을 의미한다. 『楚辭』九歌 少司命：“悲莫悲兮生別離，樂莫樂兮新相知”，『史記』魏其武安侯列傳：“<竇嬰·灌夫>兩人相爲引重，共遊如父子然。相得驩甚，無厭，恨相知晚也” 등의 용례가 있다.

共, 前部 大使者 多亏桓奴, 主簿 貴德' 등 4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寐錦 忌'의 '忌'를 '끼리다'나¹⁷⁾ '공손하다'¹⁸⁾ 등으로 풀이하기도 하지만, 다른 인명과 대비하면 寐錦의 人名임을 쉽게 알 수 있다.¹⁹⁾ 이들의 행위는 3행 15~18자 '到至跪營'으로 끝난다. 3행 19~22자에는 '太子 共'에 대한 존칭인 '大太子 共'이 나오는데, 그의 행위와 연관된 문장은 왕명을 뜻하는 4행 11자의 '教'자 직전까지 이어진다. 그 이후에는 왕명을 뜻하는 '教'자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4개 문장으로 세분할 수 있다. Ab 단락은 총 6개 문장으로 세분할 수 있는 것이다.

- ① 寐錦忌太子共前部大使者多亏桓奴主簿貴德句□王不□聆去□□到至跪營
- ② 大太子共語向壁上共看節賜太霍鄒
- ③ 教食在東夷寐錦之衣服建立處□有賜之隨恭諸□□奴客人等
- ④ 教諸位賜上下衣服
- ⑤ 教東夷寐錦還來節教賜寐錦土內諸衆人□支
- ⑥ 告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兼受教跪營之

①의 '句□王不□聆去□□' 부분은 공동 관독회와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句', '不', '聆' 등 다수 글자를 세롭게 관독했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에 행위의 주체를 설정할 만한 단어는 없으므로 대체로 '寐錦 忌' 등이 跪營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①문장은 "寐錦 忌, 太子 共, 前部 大使者 多亏桓奴와 主簿 貴德 등이 ……(句□王不□聆去□□) 跪營에 이르렀다."로²⁰⁾ 해석된다.

행위가 일어난 순서와 관련해 이 문장을 '寐錦 忌나 太子 共 등이 고구려 태왕이 오기 이전에 미리 도착하여 태왕을 맞을 준비를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¹⁾ Ab①의 행위가 Aa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고구려 왕이 오기 이전에 新羅의 寐錦 忌나 고구려의 太子 共 등이 미리 跪營이 있는 지역이나 그 근처에 도착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跪營의 '跪'는 '무릎을 꿇다'는 뜻으로 <광개토태왕릉비> 영락6년조의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이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주변국 군왕이 고구려 왕에게 신속하며 맹서하는 복속의례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충주비의 '跪營'은 고구려 왕이 신라 매금으로부터 복속의례를 받는 장소인 것이다.²²⁾ 그러므로 '跪營'이라는 장소만 놓고 본다면, Aa 단락의 '高麗大王的 祖王과 公'이 먼저 跪營에 자리잡고, 그에 뒤이어 매금 기, 태자 공 등 Ab①의 인물이 '跪營'에 도착(입장)했다고 파악된다. 또한 Ab단락의 마지막 문장인 Ab⑥의 말미에도 '跪營'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Ab 단락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跪營'에서 이루어졌다고 파악된다.

②는 "大太子 共이 말하여 壁上을 향해 함께 바라볼 때 太霍鄒를 하사하였다."로 해석된다. 大太子 共이 말한 대상은 跪營에 함께 도착한 '寐錦 忌'일 것이다. '壁上'의 '壁'은 '殿'과 통용자로 '帝王의 宸居'나 '제왕'을 지칭하므로 '고구려 왕이 계신 건물' 또는 '고구려 왕'을 지칭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太霍鄒를 하사한 주체는 고구려 왕인 '고려대왕의 조왕'이며, 太霍鄒는 위세품으로 파악된다.²³⁾

太霍鄒를 하사받은 대상을 고구려의 '태자 공'으로 보기도 하지만,²⁴⁾ 문맥상 太子 共의 안내에 따라 '殿上'을 바라본 신라의 '寐錦 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는 "大太子 共이 (매금 기에게) 말하여 (고려대왕의 조왕이 계신) 壁上을 향해 함께 바라볼 때 (고려대왕 조왕께서 매금 기에게) 太霍鄒를 하사하였다."라고 풀이된다.

③의 "教食在東夷寐錦之衣服建立處□有賜之隨恭諸□□奴客人等" 문장은 관독 불가능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5행 5~13자의 '隨恭諸□□奴客人等'은 문장구조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앞부분을 풀이하면 "教를 내려 東夷 寐錦의 衣服 建立處에서 식사하도록 하고 …(□有) 그것(의복)을 하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東夷 寐錦의 衣服 建立處'의 뜻이 다소 애매한데, '동이 매금에게 하사할 의복이 설치된 곳'이라는 뜻으로 '跪營' 내의 특정 장소로 추정된다. 고구려 왕(고려대왕의 조왕)이 신라 매금에게 하사할 의복을 설치해 둔 장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의복을 하사하며 복속의례를 거행한 장면인 것이다.

④의 '教諸位賜上下衣服'은 "諸位에게 교를 내려 上下에게 衣服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또는 "諸位에게 교를 내려 上下 衣服을 하사했다" 등으로 해석된다. 전자처럼 해석하면 諸位는 고구려인, 上下는 신라인으로 해석된다.²⁵⁾ 반면 후자처럼 해석하면 諸位는 신라인, '상하 의복'은 '상하로 이루어진 옷 한 벌'이라는 뜻이 된다.²⁶⁾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으나, 2행 1~2자나 8행 4~5자 등의 '上下'가 모두 신하 등 사람을 지칭한다는 점에서²⁷⁾ 전자의 해석에 따르고자 한다.²⁸⁾ 이 문장은 고구려 왕이 '매금 기'를 수행한 신라인들인 '上下'에게 의복을 하사하는 장면인데, 직접 하사하지 않고 고구려의 '諸位'한테 教를 내려 그들로 하여금 하사하게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구려의 諸位들이 왕명을 받들어 寐錦 忌를 수행한 여러 신라인들에게 의복을 나누어주는(입혀 주는 장면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⑤와 ⑥은 종래 많은 연구자들이 "教東夷寐錦還來"와 "節教賜寐錦土內諸衆人□支告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兼受教跪營之."으로 단락을 구분하였다. 특히 "教東夷寐錦還來節"의 '還'자를 '부르다(召)'는 뜻으로 보아 "태왕이 교를 내려 동이 매금을 불러 되돌아오게 하였다"로 풀이했다.²⁹⁾ 그런 다음 6행20자~7행8자의 '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과 관련한 서술어가 이 구절 앞뒤에 보이지 않는다면, 6행 8~9자 '教賜'의

23) 대각추의 실체에 대해서는 콩잎 모양의 촉을 갖는 화살(太霍鄒 : 임기환, 2000, p.421), 꿩 깃털 장식의 관모(口霍鄒 :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p.17) / 부족이나 국가 간의 친목을 상징하는 징표로 제의식에 따라 주고받았던 것(太霍鄒 : 남풍현, 2000, p.373) 등의 견해가 있다.

24) 임기환, 2000, p.421.

25) 임기환, 2000, p.422.

26) 손영중, 1985, p.31.

27) 이도학, 2000, p.273. 충주비에서 '上下'는 고구려와 신라인에게 모두 사용된 반면, '位'로 표현된 인물은 고구려 관인에 국한된다고 보기도 한다(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p.9).

28)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p.13.; 임기환, 2000, p.422.; 남풍현, 2000, p.373.

29)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pp.9~10; 임기환, 2000, pp.422~423; 장창은, 2005, p.279. "동이 매금이 뒤따라 돌아올 것을 교하였다"라고 해석하여 동이 매금이 고구려 수뇌와 만나기 위해 왔다가 만나지 않고 돌아간 적이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보기도 한다(남풍현, 2000, p.374).

대상에 ‘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까지 포함된다고 보았다.³⁰⁾

그렇지만 6행 19자가 ‘告’라는 서술어로 판독되므로 6행 8-9자 ‘教賜’의 대상에 ‘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教東夷寐錦逕還來節”을 “(태왕이) 교를 내려 동이 매금을 불러 되돌아오게 하였다”라고 해석하면, 동이 매금이 복속의례 도중에 본국인 신라로 귀환한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매금 기’는 Ab①에서 태자 공과 함께 ‘跪營’에 도착한 다음, 복속의례에 계속 참여하고 있으며, 도중에 신라로 귀환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이 부분을 6행 19자 ‘告’를 기준으로 ⑤와 ⑥ 두 문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⑤의 “教東夷寐錦, 逕還來節, 教賜寐錦土內諸衆人□支.”에는 ‘教’자가 두 번 나온다. ‘逕還來節’의 ‘逕’자는 <광개토왕릉비>와³¹⁾ <모두루묘지>에도³²⁾ 나오는데,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특정 시기에 이르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문장에서 ‘逕’자가 ‘때’를 뜻하는 ‘節’과 조응된다는 점에서 “(신라로) 되돌아와 이르렀을 때”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장은 “(고구려 왕이) 東夷 寐錦에게 교를 내려 (신라로) 되돌아와 이르렀을 때 (고구려 왕의) 교로써 寐錦 土內의 諸衆人에게 □支를 하사하게 했다.”로 해석된다.³³⁾

③-⑤는 고구려 왕이 신라 매금과 복속의례를 거행하며 신라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의복과 ‘□支’ 등 위세품을 하사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③이 매금 기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의복을 하사한 장면이라면, ④는 寐錦 忌를 수행해 복속의례에 참석한 신라인에게 의복을 하사한 장면이고, ⑤는 매금 기로 하여금 귀국한 다음 신라 영토 내에 머무르고 있는 諸衆人에게 ‘□支’를 하사하도록 한 장면이다. ③-⑤는 신라의 ‘매금 기’(③), ‘매금 기’의 수행 인물(④), ‘매금 기’를 수행하지 않은 신라인(⑤) 등에게 순차적으로 의복이나 ‘□支’을 하사하며 복속의례를 거행한 장면인 것이다.

⑥의 “告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兼受教跪營之”라는 문장도 종전에는 대부분 고구려의 大位와 諸位 上下에게 의복을 하사한 장면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³⁴⁾ 앞의 ‘告’자에는 사여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어지는 구절에도 ‘사여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없다. 반면 이 문장 첫머리의 ‘告’자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다’, ‘군왕이 신료에게 告諭하다’ 등의 뜻이 있는데, 행위의 주체가 고구려 왕이라는 점에서 ‘告諭’³⁵⁾ 뜻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 문장에는 ‘衣服’에 조응하는 서술어가 없다는 점에서 ‘衣服’은 명사가 아니라 ‘의복을 입다’는 서술어로 파악된다.³⁶⁾ 이 문장은 “(고구려 왕이) 大王國土의 大位 諸位 上下에게 告諭하여 衣服을 갖추어 입고 아울러 跪營에서 教를 받도록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寐錦 忌 등 신라인에 대한 복속의례를 거행한 다음, 마지막으로 大王 國土의 大位와 諸位에게 告諭하는 教를 내리며 의례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A단락은 ‘高麗大王의 祖王과 公’이 신라 매금과 복속의례를 거행하기 위해 동쪽으로 왔다는

사실을 기술한 Aa, 跪營에서 신라 매금과 복속의례를 거행한 장면을 묘사한 Ab 등 두 개 소단락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Ab 소단락은 다시 6개 문장으로 세분되는데, ‘高麗大王의 祖王과 公’이 跪營에 도착(입장)한 가운데 신라의 寐錦 忌와 고구려의 太子 共 등이 跪營에 도착(입장)하여 복속의례를 거행한 장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묘사했다.

B단락은 행위의 주체와 왕명 ‘教’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4개 문장으로 구분된다.

- ① 十二月廿三日甲寅東夷寐錦上下至于伐城
- ② 教來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貴德□土境□募人三百
- ③ 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奴扶△□□盖盧共△募人
- ④ 新羅土內衆人先動奪■□□□□□□□城不□□村舍□□□□胜□沙□■
□□□□□□□□剌功百□射□□□□上節人刺□■

①은 “12월 23일 甲寅日에 東夷 寐錦의 上下가 于伐城에 이르렀다”로 해석된다. 12월 23일이라는 행위의 발생 시점, ‘東夷 寐錦의 上下’라는 행위의 주체, ‘于伐城’이라는 행위의 발생 장소 등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東夷 寐錦의 上下’는 지난 5월에 寐錦 忌를 수행했던 Ab④ 문장의 ‘上下’와 그 성격이 동일한 존재일 것이다. 于伐城의 위치는 초창기 연구에서는 비석이 건립된 충주 일대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³⁷⁾ 다만 于伐城의 발음이 『삼국사기』 지리지2 炭山郡 鄰豐縣條의 본고구려 지명인 ‘伊伐支縣’과 유사한데 착안해 영주 순흥 일대설이 제기된 이래³⁸⁾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따르고 있다.³⁹⁾

②는 ‘教’자로 시작되므로 행위의 주체는 고구려 왕이다. 이 문장은 “(고구려 왕이) 教를 내려 前部 大使者 多于桓奴와 主簿 貴德으로 하여금 와서 □土境□ 3백명을 募人하도록 했다.”라고 해석된다. B①의 행위 주체인 ‘東夷 寐錦의 上下’가 앞 단락 Ab④의 ‘上下’와 동일한 성격의 인물인 것처럼 B②의 등장인물도 Ab 단락에서 太子 共과 함께 복속의례에 참여했던 고구려 관인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B①과 B②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5월의 복속의례에 참여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B단락은 A단락에서 이루어진 서약이나⁴⁰⁾ 회맹협약의⁴¹⁾ 실행으로 파악된다.⁴²⁾

다만 前部 大使者 多于桓奴와 主簿 貴德이 실제로 3백명을 募人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왕명을 받들어 고구려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이고, 募人을 실행한 인물은 이어지는 문장의 ‘新羅土內幢主’로 파악된다. 초창기 연구에서는 10행 14-19자의 ‘新羅土內衆人’을 ‘新羅土內幢主’가 募人한 대상으로 보기도 했지만,⁴³⁾ ‘募人’이라는 단어가 모집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⁴⁴⁾ ‘新羅土內衆人’은 다음 문장의 주어로 보아야 한다.⁴⁵⁾

30)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pp.9~10; 임기환, 2000, pp.422~423; 장창은, 2005, p.279.

31) <광개토왕릉비> 1면 4~5행: “逕至十七世孫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二九登祚.”

32) <모두루묘지> 44~45행: 逕至國岡上大開土地好太聖王.

33) 이병도, 1979, p.28에서 상기 해석과 유사하게 “신라 왕이 한국할 임시에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도 무엇(의복?)을 주라는 의미의 말도 있다”라고 풀이한 바 있다.

34) 초기에는 ‘大位諸位上下’를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의 왕과 신료로 파악하기도 했다(변태섭, 1979, p.43; 이기백, 1979, p.38).

35) 《書經》甘誓: “王曰: ‘嗟! 六事之人, 予誓告汝.’”

《釋名》釋書契: “上敕下日告, 告, 覺也, 使覺悟知己意也.”

36) 의복은 명사뿐 아니라 ‘의복을 입다’, ‘의복을 입도록 하다’ 등을 뜻하는 서술어로도 사용된다(《禮記》文王世子: “<文王>雞初鳴而衣服至於寢門外, 問內豎之御者曰: ‘<王季>今日安否何如?’”).

37) 변태섭, 1979, pp.43~45; 김정배, 1979, p.88; 신형식, 1979, pp.75~76; 박진석, 2000, p.322. ‘伐城’으로 보아 신라 도성인 徐羅伐城, 徐伐城의 약칭으로 보기도 했다(이병도, 1979, p.25).

38) 손영중, 1985, p.30.

39) 김창호, 1987, pp.148~149;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pp.26~27; 임기환, 2000, p.424; 김현숙, 2002, p.95.

40)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pp.21~22.

41) 임기환, 2000, p.425. 12월중

42) 초기 연구에서는 12월에 신라 매금의 상하에게 衣服을 수여했다고 보았다(변태섭, 1979, pp.44~45).

43) 변태섭, 1979, p.43; 김창호, 1987, p.149.

44) ‘募人’을 서술어가 아니라 특수 직역으로 보기도 한다(이도학, 2000, pp.273~274).

45)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p.11; 임기환, 2000, p.424; 박진석, 2000, p.318; 장창은, 2005, p.279.

9행 10자에서 10행 하단은 각기 ‘新羅土內幢主’와 ‘新羅土內衆人’을 주어로 하는 ③과 ④ 두 문장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③의 해석과 관련해 종래 10행 8~9자 ‘盖盧’를 백제 개로왕으로 보기도 했지만,⁴⁶⁾ ‘新羅土內幢主’ 중 한 명으로 파악된다.⁴⁷⁾ ③은 “新羅土內幢主인 下部 拔位使者 補奴, □□奴, 扶△□□盖盧 등이 함께……募人하였다”로 해석되는 것이다. ②와 ③은 연결된 문장으로 前部 大使者 多于桓奴와 主簿 貴德이 “□土境□ 3백명을 募人하라”는 왕명을 받들어 현지에 왔고, 현지에 주둔하던⁴⁸⁾ 新羅土內幢主인 下部 拔位使者 補奴 등이 이를 실행하여 募人하였다고 파악된다.⁴⁹⁾

④의 해석과 관련해 필자는 제2차 판독회에서 10행 20자를 ‘先’, 10행 22자를 ‘奪의 약자’로 보는 판독안을 제안했다. 10행 22자는 좌변과 하단 일부가 결락되어 다소 불안하지만, 시안 제기 차원에서 새로운 판독안에 입각해 이 문장을 해석해보고자 한다. 전술한 것처럼 ④의 주어는 ‘新羅土內衆人’이다. ②의 ‘前部 大使者 多于桓奴와 主簿 貴德’과 ③의 ‘新羅土內幢主 下部 拔位使者 補奴 등’이 조응하는 것처럼, ④의 ‘新羅土內衆人’도 ①의 ‘東夷 寐錦의 上下’에 조응하는 인물로 파악된다. ①의 ‘東夷 寐錦의 上下’가 신라 중앙에서 현지에 파견된 인물이라면, ④의 ‘新羅土內衆人’은 현지의 재지세력이나⁵⁰⁾ 지방관일 가능성이 높다.

④의 서두는 “新羅 土内の 衆人이 먼저 움직여 빼앗고……”로 해석되며, 그 내용은 좌측면으로 이어진다고 보인다. 좌측면이 거의 판독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어디까지 이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문장이 新羅土內幢主의 募人 활동에 이어서 나온다는 점에서 “新羅 土内の 衆人이 먼저 움직여 빼앗은” 행위는 新羅土內幢主의 募人 활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의 新羅土內幢主가 募人 활동을 개시하자, 이 지역의 新羅 土內 衆人들이 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구려와 신라 측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는데, 좌측면 2행의 ‘刺’와 ‘射’ 등 군사 행위를 시사하는 단어는 이를 반영한다.⁵¹⁾ ④문장은 좌측면 2행 하단까지 이어진다고 추정되는데, 어디에서 끝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좌측면 3행 19~22자의 ‘大王國土’와 5행 19~23자의 ‘東夷寐錦土’가 서로 조응되는 표현이므로 좌측면 3행 이후에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좌측면 3행 이후는 전면에서 좌측면 2행까지와는 구별되는 내용이 기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멸된 부분이 많아 판독 자체가 쉽지 않다. 다만 5행 19~23자에 ‘東夷寐錦土’가 보이며, 6행16자~7행2자는 “大古鄒加 共의 軍隊가 于伐城에 이르렀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좌측면 3행 이후는 ‘東夷寐錦土’ 곧 신라 영토가 사건의 주 무대이고, “大古鄒加 共의 軍隊가 于伐城에 이르렀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보다 구체적인 장소는 B 단락에도 등장한 于伐城으로 볼 수 있다. 좌측면 3행 이후는 신라 영토인 于伐城을 무대로 전개된 大古鄒加 共 등의 군사 행동을 기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A 단락이 某年 5월에 거행된 고구려 왕과 신라 왕의 복속의례를 기술한 것이고, B 단락이 복속의례의 실행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양국의 충돌을 기술했다면, 좌측면 3행 이후는 신라 영토인 于伐城 일대를 배경으로 大古

46) 이병도, 1979, p.23; 정영호, 1979, p.8; 변태섭, 1979, p.47; 손영중, 1985, p.31; 남풍현, 2000, p.366. 일찍부터 임창순, 1979, p.57; 김정배, 1979, p.89 등에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47) 이호영, 1979, p.97; 김창호, 1987, p.141; 임기환, 2000, p.425; 장창은, 2006, p.300.

48) 신라토내당주가 주둔한 ‘新羅 土內’는 소백산맥 이남 지역으로 파악된다(이기백, 1979, pp.38~39; 정운용, 1989, pp.17~27). 다만 신라토내당주는 지방관이 아니라 무관이다(김현숙, 2002, pp.110).

49) 서영일, 2000, p.509에서는 前部 大使者 多于桓奴가 募人한 곳은 于伐城 일대, 新羅土內幢主가 募人한 곳은 고구려의 군사적 영향력이 우벌성 주변 지역으로 각기 분리하여 파악했다.

50)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p.12; 임기환, 2000, p.425.

51) 김창호, 1987, p.149에서 좌측면의 마멸된 부분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을 기술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鄒加 共 등이 군사작전을 전개한 것을 기술한 것이다. 좌측면 3행 이후는 A나 B 단락과 구별되는 별도 단락인 것이다. 그러므로 충주비 전면과 좌측면은 某年 5월과 12월의 사건을 기술한 A와 B 단락, 이들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단락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같은 해에 일어나 연관성이 높은 A와 B 단락을 하나로 묶는다면(I), 좌측면 3행 이하는 별도 단락(II)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충주 고구려비의 단락 구분과 비문 해석

단락 구분	비문 해석	분류
	a 5월에 高麗大王의 祖王과 公께서 新羅의 寐錦과 世世토록 兄弟처럼 上下가 잘 이해하고 守天하기를 원하게 되어 동쪽으로 오셨다. (1행1자~2행9자)	某年 5월 고구려 왕의 행차
	b① 寐錦 忌, 太子 共, 前部 大使者 多亏桓奴와 主簿 貴德 등이 ……(句 □王不□盼去□□) 跪營에 이르렀다. (2행10~3행18자)	
	b② 大太子 共이 (매금 기에게) 말하여 (고려대왕의 조왕이 계신) 壁上을 향해 함께 바라볼 때 (고려대왕 조왕께서 매금 기에게) 太霍鄒를 하사하셨다. (3행19자~4행10자)	
A	b③ (고구려 왕이) 教를 내려 東夷 寐錦의 衣服 建立處에서 식사하도록 하고 …(□有) 그것(의복)을 하사하고, …(隨恭諸□□奴客人等) (4행11자~5행13자)	某年 5월 복속의례 거행
	b④ (고구려의) 諸位에게 教를 내려 (신라의) 上下에게 衣服을 하사하도록 하셨다. (5행14자~5행21자)	
I	b⑤ (고구려 왕이) 東夷 寐錦에게 교를 내려 (신라로) 되돌아와 이르렀을 때 (고구려 왕의) 교로써 寐錦 土内の 諸衆人에게 □支를 하사하도록 했다. (5행22자~6행18자)	
	b⑥ (고구려 왕이) 大王國土의 大位 諸位 上下에게 告諭하여 衣服을 갖추어 입고 아울러 跪營에서 教를 받도록 했다. (6행19자~7행14자)	
	① 12월 23일 甲寅日에 東夷 寐錦의 上下가 于伐城에 이르렀다. (7행15자~8행9자)	
	② (고구려 왕이) 教를 내려 前部 大使者 多于桓奴와 主簿 貴德으로 하여금 와서 …(□土境□) 3백명을 募人하도록 했다. (8행10자~9행9자)	某年 12월 于伐城에서의 募人활동과 양국의 충돌
B	③ 新羅土內幢主인 下部 拔位使者 補奴, □□奴, 扶△□□盖盧 등이 함께 … 募人하였다. (9행10자~10행13자)	
	④ 新羅 土内の 衆人이 먼저 움직여 빼앗았고 … 村舍 … 刺功百□射□ □□□上節人刺. (10행14자~좌측면 2행 하단)	
II	大王國土 … 上有□辛酉 … 東夷寐錦土 … 大古鄒加 共의 軍隊가 于伐城에 이르렀다. 去于□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 (좌측면 3행~7행)	大古鄒加 共의 군사행동

4. 비석의 건립 시기와 비면 구성

비석의 건립시기와 관련해 종래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전면 1행 1~10자(五月中高麗大王祖王公), 7행 15~22자(十二月廿三日甲寅), ‘辛卯年’으로 판독되었던 좌측면 3행 7~9자, 前面 상단의 題額 유무 등이다. 이 가운데 좌측면 3행 7~9자는 2000년 판독회나 금년도 공동 판독회에서 ‘辛卯年’일 가능성이 낮다고 파악되었다.⁵²⁾

전면 상단의 제액과⁵³⁾ 관련해 금년도 공동 판독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 다만 좌측면 7행 말미에는 6자 분량이 새겨져 있지 않아 이 비석의 말미로 추정된다.⁵⁴⁾ 이에 비해 우측면에서는 刻字의 흔적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후면에도 刻字했다고 추정된다. 각 비면의 상태로 보아 좌측면이 마지막 면이고, 전면은 우측면에서 이어지는 비면일 가능성이 높다. 題額은 일반적으로 제1면에 새긴다는 점에서 전면 상단에 제액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면 1행 1~10자는 비석의 건립 시기와 관련해 가장 유력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종래 8자와 10자의 판독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198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高麗大王相王公’으로 판독하여 이 문장의 주어를 ‘고려대왕과 상왕공’,⁵⁵⁾ ‘고려태왕의 상왕공’⁵⁶⁾ 등으로 파악하고, 고려대왕(태왕)=장수왕이 비석을 건립했다고 보았다. 다만 이 때 ‘高麗大王祖王令’으로 판독해 이 문장의 주어는 고려대왕의 조왕인 장수왕이지만, 비석의 건립 주체는 고려대왕=문자명왕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⁵⁷⁾

2000년 고구려연구회 판독회 이후 ‘高麗大王祖王令’ 판독안이 널리 수용되는 가운데 문장 해석에 따라 이 문장의 주어와 비석의 건립 주체가 다양하게 설정되었다. 가령 이 구절을 ‘高麗大王이 祖王의 令(律令, 命令)으로’라고 해석한 경우 이 문장의 주어와 비석의 건립 주체를 동일인으로 보았는데, 449~450년 건립설에서는 장수왕,⁵⁸⁾ 문자명왕대설에서는 문자명왕으로⁵⁹⁾ 설정했다. 이 문장의 주어를 ‘고려대왕(장수왕)과 조왕인 령’⁶⁰⁾ 또는 ‘고려대왕(장수왕)인 조왕’⁶¹⁾ 등으로 해석하여 장수왕을 이 문장의 주어로 상정하고, 이 시기에 비석이 건립되었다고 보기도 했다.

이 구절 전체에 대한 해석을 유보한 채, 고구려는 광개토왕대 이후 諡號를 제정했으므로 ‘高麗大王’은 사건 발생 시기의 왕이자 建碑時에도 생존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장수왕으로 상정하기도 했다.⁶²⁾ 이에 대해 이병도의 견해를 계승하여 ‘고려대왕(문자명왕)의 조왕(장수왕)’으로 해석한 다음, 전면의 사건은 장수왕대에 발생했

52) 종래 변태섭(1979) 등 481년 건립설 논자가 좌측면 3행 7~9자의 ‘辛卯年’을 중시했다.

53) 정영호, 1979, p.15; 변태섭, 1979, pp.41~42 등에서 전면 상단의 제액을 인정했다. 이병도, 1979, pp.22~24; 손영중, 1985, pp.28~29에서는 ‘建興四’, 이호영, 1979, pp.95~104에서는 ‘口熙七年歲辛口口’ 등의 제액을 판독하기도 했다.

54) 정영호, 1979, p.15; 이기백, 1979, pp.33~36; 임창순, 1979, pp.53~54.

55) 변태섭, 1979, p.45.

56) 김창호, 1987, p.139.

57) 이병도, 1979, p.24; 손영중 1985, p.29; 남풍현 2000, pp.366~367.

58) 이도학, 2000, pp.275~276; 장창은 2006, p.298.

59) 박성현, 2010, pp.218~219; 서지영 2012, pp.111~112.

60) 임기환, 2000, pp.419~420.

61) 박진석, 2000, pp.323~325.

62) 정운용, 1989, p.4. 다만 정운용, 2006, pp.145~146에서는 고려대왕과 그의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조왕이 동일 시기에 공존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을 더 이상 검토하지는 않았다.

지만 비석의 건립주체는 문장명왕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⁶³⁾

이처럼 1행 1~10자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했던 것은 2000년 이후 ‘高麗大王祖王令’ 판독안이 널리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의 주어를 ‘高麗大王祖王’으로⁶⁴⁾ 상정하면 이어지는 ‘令’이 使役動詞가 되어 “高麗大王祖王이 동이 매금으로 하여금 … 동쪽으로 오게 했다”라고 해석되며, 東夷 寐錦의 이동 방향(북쪽)과 문장 내용(동쪽)이 맞지 않는다. 이에 ‘令’을 사역동사가 아니라 ‘律令’이나 ‘왕명’, 인명 등으로 상정하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공동 판독회를 통해 1행 1~10자는 ‘五月中高麗大王祖王公’임이 거의 명확해졌다. 전술한 것처럼 이 구절은 ‘高麗大王과 祖王과 公’, ‘高麗大王의 祖王과 公’, ‘高麗大王의 祖王公’ 등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高麗大王과 祖王과 公’ 및 ‘高麗大王의 祖王公’ 해석안은 제반 상황과 맞지 않는다. 이 문장의 주어는 ‘高麗大王의 祖王과 公’이며, A단락의 복속의례에서 教를 내린 주체도 ‘高麗大王의 祖王’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광개토왕릉비> 말미의 수묘인연호조에 ‘祖先王’과 ‘祖王先王’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온다는 사실이 주목된다.⁶⁵⁾ ‘祖先王’이 歷代 先王에 대한 통칭이라면, ‘祖王’과 ‘先王’은 광개토왕을 기준으로 특정 왕을 지칭하던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를 참조하면 ‘고려대왕의 조왕’도 고려대왕이 자신을 기준으로 특정 왕을 부르던 호칭으로 이해된다. ‘고려대왕’이 자신으로 기준으로 삼아 전면 1~2행의 주어 및 A단락에서 教를 내린 주체를 ‘祖王’이라 지칭했던 것이다.

결국 A단락의 복속의례를 주관한 주체가 ‘高麗大王의 祖王’이라면, 비문을 찬술한 주체는 ‘高麗大王’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전면 5월과 12월의 사건은 ‘高麗大王의 祖王 시기’에 일어났고, 비석은 ‘高麗大王 시기’에 건립된 것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충주비의 기술 내용은 5세기대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高麗大王’은 문자명왕이고, ‘高麗大王의 祖王’은 그의 할아버지인 ‘장수왕’으로 파악된다.⁶⁶⁾ 전면의 사건 발생 시점과 비석의 건립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가 있는 것이다.

전면의 사건 발생 시점과 관련해서는 7행 15~22자의 ‘十二月廿三日甲寅’가 핵심 단서를 제공한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5세기를 전후해 ‘12월 23일이 甲寅日’인 연도는 449년(장수왕 37년), 480년(장수왕 68년), 506년(문자명왕 15년) 등이 찾아진다.⁶⁷⁾ 이 가운데 전면의 A단락처럼 고구려 왕이 신라 왕과 복속의례를 거행할 만한 시점으로는 양국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이전인 449년이 가장 타당하다.⁶⁸⁾ 특히 전면 A단락의 복속의례는 450년에 장수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내가 大王과 修好하여 아주 기뻐었다.”라고⁶⁹⁾ 언급한 사실을 지칭한다고 보인다.⁷⁰⁾

문자명왕이 492년에 즉위한 사실을 고려하면 비석의 건립 시점과 전면(A/B단락)의 사건 발생 시점 사이에

63) 김현숙, 2002, pp.98~99; 최장열, 2004, pp.221~223. 다만 최장열은 “고려대왕의 조왕의 령으로 … 동쪽으로 왔다.”라고 해석한 다음, 문장 주어인 ‘태자 공’은 행간에 숨겨져 있다고 보았다.

64) 구체적인 해석안은 고려대왕과 조왕, 고려대왕의 조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65) <광개토왕릉비> 4면 4~7행 :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教言, 祖王先王, 但教取遠近舊民, 守墓洒掃, 吾慮舊民轉當羸劣.” … 自上 祖先王以來, 墓上, 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66) 이병도, 1979, p.24; 손영중, 1985, p.29; 남풍현 2000, pp.366~367; 김현숙, 2002, pp.98~99; 최장열, 2004, pp.221~223.

67) 변태섭, 1979, pp.49~50.

68) 김정배, 1979, pp.90~92; 정운용, 1989, pp.4~6.

69) 『삼국사기』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34년(450년): “秋七月, 高句麗邊將獵於悉直之原, 何瑟羅城主三直出兵掩殺之. 麗王聞之怒, 使來告曰 孤與大王, 修好至歡也. 今出兵殺我邊將, 是何義耶 乃興師侵我西邊. 王卑辭謝之, 乃歸.”

70) 임창순, 1979, p.57; 정운용, 1989, pp.7~8;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pp.34~36; 임기환, 2000, pp.428~430.

는 43년 이상의 시간 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충주비에 여러 시기의 사실이 기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전면의 ‘太子(大太子) 共’과 좌측면의 ‘大古鄒加 共’의 관계이다. 양자를 다른 인물로 보기도 하지만,⁷¹⁾ 이름이 같고, 고구려 왕자나 왕족 가운데 ‘古鄒加’ 칭호를 보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에서⁷²⁾ 동인 인물로 보인다.⁷³⁾ ‘太子 共’과 ‘大古鄒加 共’은 문자명왕의 아버지인 ‘古鄒大加 助多’⁷⁴⁾ 추정되는 것이다.⁷⁵⁾

그럼 동인 인물을 왜 ‘太子(大太子)’와 ‘大古鄒加’ 등으로 다르게 지칭했을까? 이는 ‘古鄒加’라는 칭호가 갖는 위상 때문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초기에 ‘古鄒加’는 왕실인 桂婁部の 大加와 함께 본래 국왕을 배출했던 消奴部の 嫡統大人, 왕실과 대대로 혼인한 絶奴部の 大加 등만 칭했다고 한다. 고추가는 누구나 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권위를 갖는 칭호였던 것이다. 따라서 助多의 경우에도 장수왕이 장기간 재위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진 이후 ‘大古鄒加’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추정된다.

이에 비문 작성 시에도 ‘共’이 젊었을 때는 ‘太子’, 나이가 들었을 때는 ‘大古鄒加’로 구별해 표현했던 것이다. 좌측면의 “大古鄒加 共의 軍隊가 于伐城에 이르렀다”는 사건은 전면의 사건 발생 시점인 449년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것이다.⁷⁶⁾ 전술했듯이 于伐城은 소백산맥 남쪽의 영주 순흥 일대로 비정된다.⁷⁷⁾ 大古鄒加 共이 소백산맥 남쪽의 영주 일대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문헌자료상 449년 이후 소백산맥 남쪽 일대에 대한 고구려의 군사작전은 481년에 가서야 확인된다. 고구려가 475년 백제 한성을 함락시킨 다음, 그 여세를 몰아 481년에 狐鳴(영덕) 등 7성을 공취하고, 신라 도성 북방의 彌秩夫(홍해)까지 진군한 것이다.⁷⁸⁾ 이렇게 본다면 “大古鄒加 共이 軍隊를 이끌고 于伐城에 이른 사건”도 481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좌측면 5행 13-14자의 ‘辛酉’라는 간지는 481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좌측면 5~7행에는 481년 고구려의 대신라 군사작전과 관련해 大古鄒加 共이 군대를 이끌고 소백산맥 남쪽의 于伐城에 이른 사실을 기술했다고 파악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주체는 고려대왕인 문자명왕이지만, 전면과 좌측면의 사건 발생 시점은 문자명왕의 조왕 곧 할아버지인 장수왕대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면 1행~좌측면 2행이 449년의 사건을 기술한 부분이라면, 좌측면 말미인 5~7행에는 481년의 사건이 기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충주비의 전면과 좌측면에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발생한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충주비의 전면과 좌측면에서는 비석의 건립 주체인 문자명왕 시기의 사건이나 역사적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보아 문자명왕대의 사건이나 상황은 刻字의 흔적만 확인되고, 판독은 거의 불가능한 우측면이나 후면에 새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충주비의 비면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주에도 충주비의 비면 구성과 관련해 3면비설과 4면비설이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3면비설은 후면의 자흔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 내용이 가장 많은 前面을 主文으로 파악한 데 따른 것이다. 비문은 우측면, 전면, 좌측면에 새겨졌고, 주문인 전면이 중앙에 위치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⁷⁹⁾ 그렇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후면에도 刻字의 흔적이 남아 있다.⁸⁰⁾ 또한 앞서 검토한 것처럼 비석의 건립 주체가 문자명왕대라면 장수왕대의 사건을 기술한 전면을 주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충주비는 4면비일 가능성이 높다. 좌측면 말미에 6자의 空隔이 확인되므로 이 면이 제4면이고, 刻字 순서상 후면이 제1면, 우측면이 제2면, 전면이 제3면으로 상정된다.⁸¹⁾ 그런데 전면 1행은 ‘五月中’으로 시작되어 사건의 발생 연도가 나오지 않는데,⁸²⁾ 刻字 순서상 우측면에 새겨져 있다고 짐작된다. 장수왕대 상황이 우측면에도 기술된 것이다. 특히 다른 고구려 비석이나 묘지의 단락 구성을 참조하면, 장수왕대 이전의 상황이나 고구려 건국설화 등이 기술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가령 〈집안고구려비〉는 건국설화와 왕위 계승(1~2행), 광개토왕대 이전 수묘제의 시행과 전개 양상(3~6행), 광개토왕대 수묘제와 관련한 조치(7~10행) 등을 시기순으로 기술했다. 〈광개토왕릉비〉도 서두에 건국설화, 왕위계승, 광개토왕의 행장을 기술한 다음, 광개토왕의 무훈을 연대기 형태로 기술했다. 〈모두루묘지〉역시 모두루가의 시조, 중시조인 염모, 모두루의 조부, 모두루 자신 등의 사적을 고구려 시조 추모왕을 비롯한 고구려의 역대 왕들과 대응시켜 시기 순으로 기술했다.

따라서 전면보다 앞쪽의 우측면(제2면)이나 후면(제1면)에는 449년 이전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비롯해 고구려 건국설화 등이 기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⁸³⁾ 특히 전면 2행 5-6자의 ‘守天’은 ‘고구려 중심의 천하질서를 지킨다’는 뜻으로 풀이되므로⁸⁴⁾ 그 근거에 해당하는 고구려 건국설화가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제1면인 후면부터 기술했다고 보면, 비석의 건립 주체인 문자명왕대의 상황을 기술한 비면을 상정하기 힘들다. 다른 고구려 비석이나 묘지처럼 충주비도 제1면에서 고구려 건국설화나 장수왕대 이전 신라와의 관계부터 시작하여 시기 순으로 기술해 제4면인 좌측면에서 장수왕대 말년의 사건으로 마무리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충주비는 가장 서두에 고구려 건국설화부터 기술한 〈집안고구려비〉, 〈광개토왕릉비〉, 〈모두루묘지〉 등과 비면 구성이 조금 달랐다고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후면의 하단부가 다른 세 면보다 10~18cm 정도 더 높은 점이 주목된다.⁸⁵⁾ 다른 비면은 비문 하단에 두어 자 정도 새겨 넣을 공백이 있는 반면, 후면은 다른 비면의 맨 끝 자가 있는 지점까지만 다듬은 것이다.⁸⁶⁾ 이러한 후면의 治石 상태를 제1면으로 상정하기 어색한 점으로 보기도 하지만,⁸⁷⁾ 오히려 제1면일 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소이다. 후면을 다른 비면과 다르게 治石하여 의도적으로 구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1) 임기환, 2000, pp.425~426.

72) 태조왕의 父로 전하는 再思, 미천왕의 父인 咄固, 고국천왕의 동생인 拔奇의 아들 駁位居, 문자명왕의 아버지인 助多 등의 사례가 있다.

73) 김창호 1987, p.141; 박진석 2000, p.320.

74) 『삼국사기』 고구려본기7 문자명왕 즉위년조 : “文咨明王(一云明治好王), 諱羅雲, 長壽王之孫. 父王子古鄒大加助多早死, 長壽王養於宮中, 以爲太孫. 長壽在位七十九年薨, 繼立.”

75) 김영하·한상준, 1983, pp.39~41; 김현숙, 2002, pp.99~100; 최장열, 2004, pp.223~224.

76) 김영하·한상준, 1983, pp.39~41; 최장열, 2004, pp.223~224.

77) 손영중, 1985, p.30.

78) 『삼국사기』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 3월조 :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79) 변태섭, 1979, p.41; 신형식, 1979, p.61.

80) 정영호, 1979, p.15.

81) 임창순, 1979, pp.53~54; 이기백, 1979, pp.33~36. 다만 손영중, 1985, pp.31~34에서는 4면비로 보면서도 전면 상단에 제역을 상정하여 전면을 제1면으로 보았다.

82) 김정배, 1979, pp.85~86.

83) 김정배, 1979, pp.89~90.

84) 노태돈, 1999, pp.371~372.

85) 정영호, 1979, p.15.

86) 이기백, 1979, pp.33~36.

87) 이기백, 1979, pp.33~36.

治石 상태로 보아 후면의 碑文 刻字 위치는 다른 碑面보다 조금 높았고, 그 내용도 다른 비면과 구별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는 후면을 다른 비면과 구별하여 제1면으로 상정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따라서 제1면인 후면에는 비석의 건립 시점, 건립 주체, 건립 목적 등을 포함해 문자명왕대의 상황을 기술했다고 파악된다. 그리고 제2면인 우측면부터 고구려 건국설화를 비롯해 비석 건립과 관련한 과거 상황을 시기 순으로 기술한 것이다. 충주비는 4면비이지만 비면을 다소 특이하게 구성했는데, 제1면과 다른 세 비면을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1+3면비’의 면모를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충주비는 문자명왕대 가운데 언제 건립되었을까? 전면이나 좌측면에서는 이와 관련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 결국 문자명왕대의 대내외 상황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문자명왕이 남쪽으로 巡狩했다는 495년(문자명왕 4년)⁸⁸⁾ 전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⁸⁹⁾ 503년 고구려의 사신 芮悉弗이 북위 세종과 나눈 대화에는 고구려가 더이상 신라(涉羅)의 옥(珣)을 북위에 조공품으로 바치지 못한 상황이 나온다.⁹⁰⁾

이 사료는 대체로 신라가 고구려의 예속으로부터 탈피한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⁹¹⁾ 다만 이 사료를 통해 고구려가 503년 직전까지 신라로부터 옥(珣)을 헌상(조공)받았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⁹²⁾ 고구려는 5세기 말경까지도 신라와 고구려 중심의 차등적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 이를 계속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495년 문자명왕의 남쪽 순행은 백제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신라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고구려 중심의 차등적 외교 관계를 관철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다고 파악된다.

충주비는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남진정책의 전진기지이면서 신라와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던 거점인 國原城(충주 지역)에 건립된 것이다. 따라서 문자명왕이 충주비를 건립한 1차 목적은 신라에 대해 고구려 중심의 차등적 외교 관계를 관철시키려는 데 있었다고 파악된다. 전면의 A단락에서 ‘형제 관계’로 집약되는 고구려와 신라의 복속의례를 상세하게 기술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부왕인 太子 共[大古鄒加 共]이 신라와의 차등적 외교 관계 수립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문자명왕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부수적 효과도 노렸다고 파악된다.

5. 맺음말

88) 『삼국사기』 고구려본기7 문자명왕 4년 7월조 : “南巡狩, 望海而還.”

89) 남풍현, 2000, pp.366~367; 최장열, 2004, 224~226.

90) 『위서』 권100 고구려전.

91) 노태돈, 1999, pp.336~337; 김현숙 2000, p.108.

92) 노태돈, 1999, p.371 각주 30.

참고문헌

耿鐵華, 2000 「冉牟墓誌와 中原高句麗碑」 『高句麗渤海研究』 10

金英夏·韓相俊, 1983, 「中原高句麗碑의 建碑 年代」 『教育研究誌』 25(慶北大學校 師範大學)

金洋東, 2000 「中原高句麗碑와 高句麗 金石文의 書體에 대하여」 『高句麗渤海研究』 10

金貞培, 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點」 『사학지』 13

金昌鎬, 1987 「中原高句麗碑의 재검토」 『韓國學報』 47

金昌鎬, 2000 「中原高句麗碑의 建立 年代」 『高句麗渤海研究』 10

김현숙, 2002 「4-6세기경 소백산맥 이동지역의 영역 향방」 『한국고대사연구』 26

南豐鉉, 2000 「中原高句麗碑文의 解讀과 史讀의 性格」 『高句麗渤海研究』 10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木村誠, 1997, 「中原高句麗碑立碑年次の再檢討」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武田幸男 編), 山川出版社

木村誠, 2000 「中原高句麗碑의 立碑年에 관해서」 『高句麗渤海研究』 10

木下礼仁, 1981 「中原高句麗碑-건립연대」 『춘상사남박사화가산대학퇴관기념조선사논문집』 (1993 『日本書紀と古代朝鮮』 塙書房)

木下礼仁, 1984 「中原高句麗碑」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논총』 태학사

朴性鳳, 1997 「高句麗 金石文의 연구 현황과 과제-廣開土好太王碑와 中原高句麗碑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78

박성현, 2010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경계」 『역사와현실』 76

朴眞爽, 2000 「中原高句麗碑의 建立年代 考証」 『高句麗渤海研究』 10

박찬홍, 2013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과 신라의 위상」 『한국사학보』 51

邊太燮, 1979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檢討」 『사학지』 13

徐永大, 1992, 「中原高句麗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徐榮一, 2000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國防體系」 『高句麗渤海研究』 10

서지영, 2012 「5세기 羅·麗 관계 변화와 中原高句麗碑의 建立」 『한국고대사연구』 68

손영중, 1985,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력사과학』 85-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孫煥一, 2000, 「中原 高句麗碑의 書體」 『高句麗研究』 9, 高句麗研究會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啓方), 2000 「「中原高句麗碑」의 釋讀과 內容의 의미」 『史叢』 51

申滢植,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한 一考察」 『사학지』 13

이기백, 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 『사학지』 13

이도락, 2000 「中原高句麗碑의 建立目的」 『高句麗渤海研究』 10

이병도,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사학지』 13

이용현, 2000 「中原高句麗碑와 新羅 碑와의 比較」 『高句麗渤海研究』 10

李殿福, 2000, 「中原郡의 高麗碑를 통해 본 高句麗 國名의 變遷」 『中原高句麗碑 研究』, 학연문화사.

이호영, 1979 「中原高句麗碑 題額의 新讀-長壽王代의 年號 推論-」 『사학지』 13

임기환, 2000 「中原高句麗碑를 통해 본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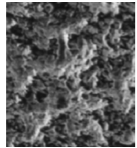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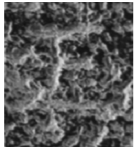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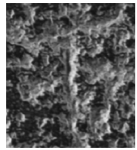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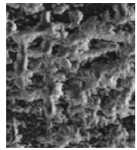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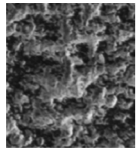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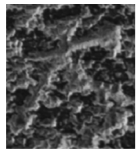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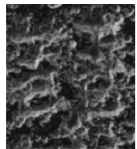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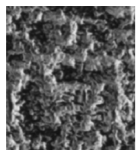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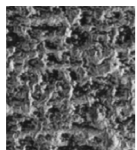
任昌淳, 1979 「中原高句麗碑 小考」 『사학지』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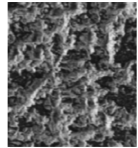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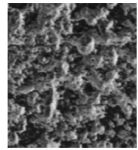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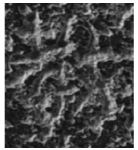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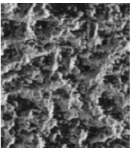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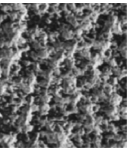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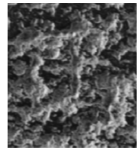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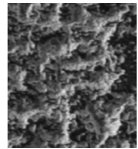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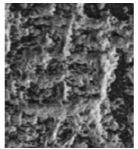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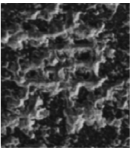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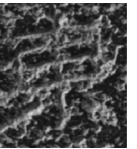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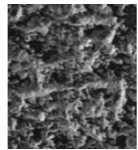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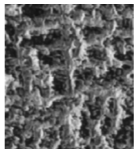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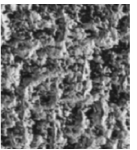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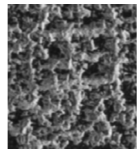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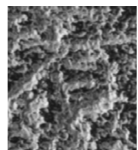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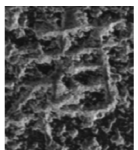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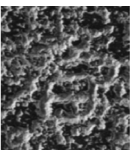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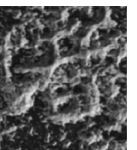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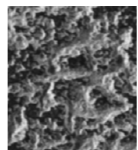
張俊植, 2000 「中原高句麗碑 附近의 高句麗 遺蹟과 遺物」 『高句麗渤海研究』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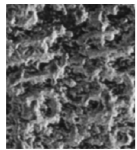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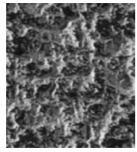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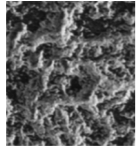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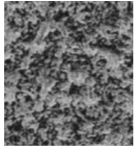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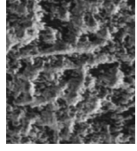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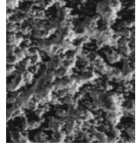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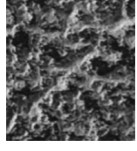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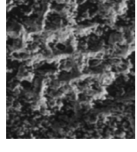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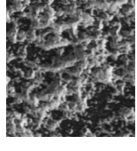
張彰恩, 2005 「中原高句麗碑의 판독과 해석」 『新羅史學報』 5, 신라사학회
 張彰恩, 2006 「中原高句麗碑의 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 『歷史學報』 189
 田中俊明, 1981, 「高句麗の金石文」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鄭永鎬, 1979 「中原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研究展望」 『사학지』 13
 鄭永鎬, 2000 「中原高句麗碑의 발견 경위와 의의」 『高句麗渤海研究』 10
 鄭雲龍, 1987 「5-6世紀 高句麗·新羅의 勢力變遷 過程에 대한 一考察-中原高句麗碑와 丹陽新羅赤城碑의 連繫的 考察-」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鄭雲龍, 1989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정운룡, 2005 「삼국관계사에서 본 중원고구려비의 의미」 『고구려의 국제관계』 고구려연구재단
 鄭雲龍, 2006 「中原高句麗碑의 建立 年代」 『白山學報』 76
 최장열, 2004 「중원고구려비, 선돌에서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로」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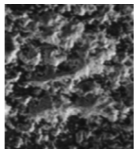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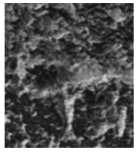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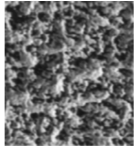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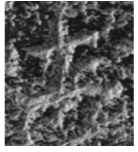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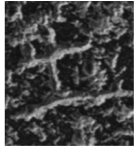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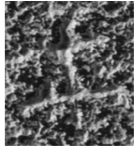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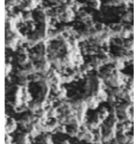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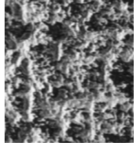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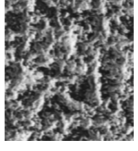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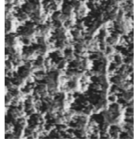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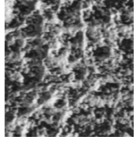
<附表 1> 충주 고구려비 전면의 판독 논란자 탁본 비교

글자 위치	탁본	판독 비교자 탁본			판독안
1행 6자					大
		2행 13자	3행 20자		
1행 8자					祖
1행 10자					公
2행 4자					知
2행 22자					亏 → 亏
		8행 18자			
3행 4자					貴
		8행 23자			
3행 6자					句
3행 7자					?

글자 위치	탁본	판독 비교자 탁본		판독안
3행 8자			1행 7자	王
3행 9자				不
3행 10자				聆
3행 12자				去
3행 19자				大
3행 23자				語
4행 1자				向
4행 2자				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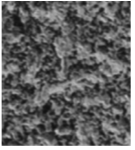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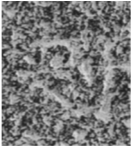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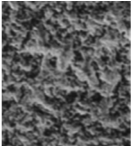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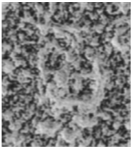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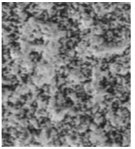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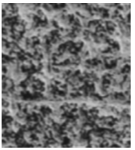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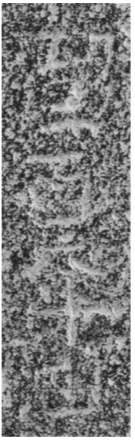
글자 위치	탁본	판독 비교자 탁본			판독안
4행 9자					霍
4행 11자					教
4행 13자					在
4행 14자					東
4행 15자					夷
5행 1자					?(尹)
5행 2자					有
5행 6자					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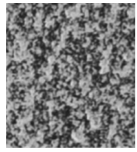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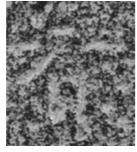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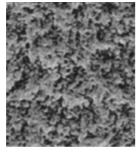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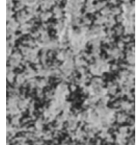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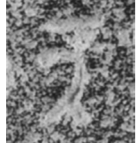
글자 위치	탁본	판독 비교자 탁본			판독안
5행 7자					諸
5행 8자					王?
5행 9자		 좌 6행17자			古?
5행 13자		 북위 尹愛姜造像碑			‘等’의 약자
6행 16자					人
6행 18자					支
6행 19자					告
7행 9자					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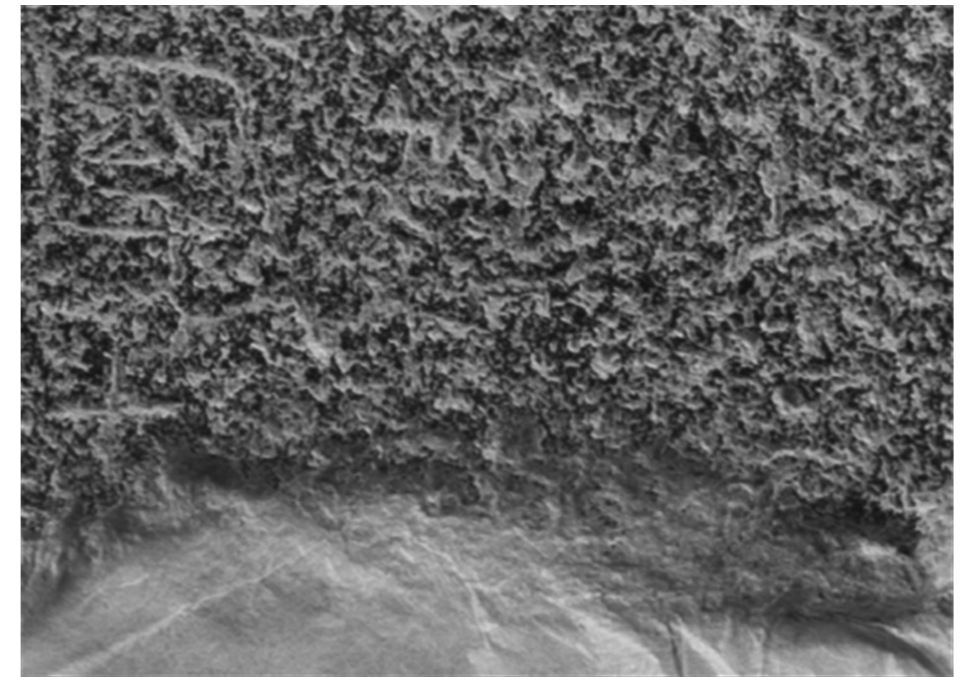
글자 위치	탁본	판독 비교자 탁본			판독안
7행 19자					三
7행 21자					甲
9행 3자		 6행 12자	 6행 23자	 10행 16자	土
10행 4자					扶
10행 5자					亼
10행 6자					?
10행 7자					?
10행 11자					亼衣

글자 위치	탁본	판독 비교자 탁본			판독안
10행 20자					先
10행 22자					奪의 약자
		북위 李頤墓誌			

<附表 2> 충주 고구려비 좌측면의 판독 논란자 탁본 비교

글자 위치	탁본	판독 비교자 탁본			판독안
1행 21자					沙
2행 9자 2행 21자					刺
2행 11자					百
2행 13자					射
2행 18자					上
3행 7~9자					?

글자 위치	탁본	판독 비교자 탁본			판독안
3행 17자					十 二
4행 2자					人
5행 11자					有
5행 13~15자					辛 酉 □
6행 16자					大
7행 3자					去
7행 4자					于



1행/2행/3행 21~22자 부분

머리말

충주 고구려비가 발견된 지 40년이 되는 올해 충주 고구려비에 대한 새로운 판독의 시도 및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자리는 매우 뜻깊다. 더욱 충주 고구려비가 그동안 연구자의 관심을 그리 받지 못했던 이유가 비면의 손상으로 인해 글자의 판독이 어렵고 이에 따라 문장의 해석도 그리 용이하지 않았던 때문이었다. 새로운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비문 연구도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¹⁾

그런데 3D 스캔 등 비면 판독을 위한 새로운 기술적 접근을 통해 판독에 이견이 있었던 글자에 대한 확정 여부, 그리고 그동안 판독되지 못했던 글자의 새로운 판독 가능성 등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은 충주 고구려비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실 필자도 새로운 판독 가능성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를 갖고 있었고, 동시에 기존에 발표했던 필자 자신의 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넘어설 수 있으리란 의욕 또한 갖고 있었다.²⁾

그래서 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2차례에 걸친 판독회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시된 새로운 판독문도 나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필자의 능력으로는 기존의 연구를 넘어설 수 있는 단서를 그다지 찾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못내 아쉬움도 갖게 된다.

본 발표 역시 새롭다기 보다는 기존 필자의 견해를 기초로 약간의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즉 비문 내에 보이는 ‘고려 태왕’과 ‘신라 매금’, ‘동이 매금’ 등의 표현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충주 고구려비에서 ‘高麗’라는 국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둘째, 비문 내에서 ‘新羅寐錦’이 ‘東夷寐錦’으로 바뀌었는데,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셋째, ‘寐錦土內’와 ‘新羅土內’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용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高麗太王’이나, ‘太王國土’와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1. 비문의 판독과 해석

비의 전면, 좌측면, 우측면의 판독문은 다음과 같다.³⁾

- 1) 충주 고구려비에 대한 연구 동향 정리는 장창은, 2006 『중원고구려비의 연구동향과 주요 쟁점』 『역사학보』 189집 참조.
- 2) 임기환, 2000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본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중원고구려비 연구』, 고구려연구회.
- 3) 전면의 판독문은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판독회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2019년의 판독회에 필자가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단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판독회의 결과물을 최대한 수용하였다. 물론 필자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공한 비문 탁본 및 사진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필자의 독자적인 판독문을 제시하지는 않겠다. 좌면의 경우에는 2019년의 판독회에서 일부 ‘辛酉年’으로 판독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이 판독의 결과를 수용하되, 필자가 2000년에 작성한 판독문을 기초로 하였다. 필자는 2월 22~26일에 있었던 고구려연구회 주최 『中原高句麗碑 新釋文 국제 워크숍』에 참가하여 그 때 탁본과 비면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판독문을 작성한 바 있으며, 이는 2000 『중원고구려비에 보이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중원고구려비연구』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2019년 판독회를 위해 재단에서 제공한 탁본 및 사진 자료에서는 2000년에 필자가 판독회에 참여하고 동의한 판독 글자 중 다시 확인하기 어려운 글자들도 발견된다. 그렇지만 2000년 때의 탁본 자료 등을 다시 비교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과거의 판독 결과물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판독문을 작성하였다. 우면의 판독문은 2019년에 판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2000년의 판독문을 제시한다. 하지만 좌면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 재단에서 제공한 탁본 및 사진 자료에서는 위 판독문 대로 확인되지 않는 글자가 있다. 이 또한 향후에 보다 정밀한 판독 작업의 진행이 요청되는 바이다.

충주 고구려비의 高麗 太王과 新羅 寐錦

임기환
서울교육대학교

([]는 확실하지 않으나 가능성이 높은 글자나 추정 판독한 글자임)

『전면』

五月中高麗大王祖王公□新羅寐錦世世爲願如兄如弟
上下相[知]守天東來之寐錦忌太子共前部大使者多[于/亏/兮]桓
奴主簿貴德[句][方+?][王不聆]□[去/古]□□到至跪營[大]太子共[語/諸]
向[暨]上共看節賜[太/九]霍鄒[教]食[在/于]東夷寐錦之衣服建立處
[用/伊][者/有]賜之隨[恭/去][諸]□□奴客人□教諸位賜上下[衣]服教東
[夷]寐錦逕還來節教賜寐錦土內諸[衆][人/本]□[支][告][大][王]國土
大位諸位上下衣服[兼]受教跪營之十二月廿[三/七]日甲寅東
夷寐錦上下至于伐城教[來]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貴
[德]□□□□募人三百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
□[疏]奴[扶/抹]□□□盖盧共□募人新羅土內衆人[兵/先][動][奪]□

『좌측면』

□□□□□□[于]伐城不□□村舍□□□□□□沙□□
□□□□□□□□刺功□□射□□□□□□節人□□□
□□□□□□□[百][六+十][四][倭?]□[十]□□□□□□太王國土□
□人□□□□□□□□□□□□□□□□□□[安]□□
□□□□□□□□□□上右□[辛?酉?年?]□□□東夷寐錦土
□□□□□□方[袒]□□沙□斯色□大古[鄒]加共軍至于
□□□于□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

『우측면』

□□□□□□□□□前部[大]兄□□□□□□□□□□
□□□□□□□□□□□□□□□□□□□□□□□□□□

[이하 생략]

그리고 판독문과 관련하여 충주 고구려비가 몇면비인가가 하는 문제는 비 발견 초기부터 주요 논점이었다. 후면은 아직 전혀 글자가 판독되지 않지만, 우측면에 몇 개의 글자가 확인된다. 첫 행의 ‘前部[大]兄’이라는 글자는 2000년 판독회에서는 판독 가능 글자였는데, 2019년 제공 자료에서는 불분명하다. 일단 2000년의 탁본 등 판독 자료를 재확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의 판독결과물을 일단 인정해둔다. 그렇다면 前部[大]兄이라는 인물은 전면과 좌측면의 현판독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른 인물들이 우측면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前部[大]兄’ 판독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러하다.

전면은 그 문장이 五月中으로 시작되므로, 비의 첫 면이 되기는 곤란하다. 더욱 좌측면은 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로 끝나고 그 아래의 6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다. 이는 좌측면이 최종 문장일 가능성을 시사한다.⁴⁾

4) 李基白, 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가지 문제」 『史學志』 13, pp.33~34.

따라서 이 비문의 시작은 우측면 혹은 후면이 될 가능성도 있고, 제액의 존재가 확인되면 전면이 시작면이 될 수도 있다. 현재 판독되는 글자의 상황으로 보면 논의의 초점은 전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비문 내용의 중요성도 高麗 太王과 新羅 寐錦이 모두 등장하는 전면이 가장 높다고 본다. 본 발표도 일단 전면에서 가장 많은 글자가 판독되기 때문에, 전면의 내용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한다. 다만 판독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비문 중 1/3 정도, 그나마 불완전한 판독문에 의거한 논의라서 애초부터 한계가 적지 않음을 먼저 밝혀둔다.

위 판독문으로 본격적인 해석은 쉽지 않은데, 논지의 전개상 발표자가 이전에 제시한 바 있는 해석문의 요지를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된 부분은 수정 보완하여 발표문을 작성하였다. 비문의 내용 전체를 다루지는 않겠고, 본 발표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전면』

(1) 五月中

5월은 고려 태왕의 東來 이후의 사건이 전개된 시점이다. 아래 전면 7행의 “十二月廿三日甲寅”과는 달리 특정 일자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5월에 일정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좌측면 5행의 ‘辛酉?年?’이란 연간지도 주목된다. 필자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年?’은 거의 판독되지 않고, ‘辛酉’ 글자도 다소 불분명하게 보인다. ‘辛’은 형태는 비슷하지만, 획이 일치하지 않게 보인다. 처음 비가 발견되었을 때 및 2000년 판독회에서 ‘辛酉年’으로 판독한 경우가 있었는데, 2000년 판독회에서 판독문 및 필자는 판독 불분명한 글자로 처리하였다. 일단 이 발표에서는 2019년 판독회의 결과를 존중하고자 한다. 그리고 辛酉年이 옳다면 이어지는 문장(□□□東夷寐錦土)에서 3글자만 허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월이 표기되었다면, 五月中과 마찬가지로 ‘□月中’이 될 것이다.

어쨌든 이 ‘辛酉年’의 판독은 매우 중요하다. ‘辛酉年’이 옳다면, 비의 건립 시기와 관련하여 필자도 동의한 바 있는 449년설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즉 “十二月廿三日甲寅”과 ‘辛酉年’을 연이어 모두 충족시키는 시기로는 481년(장수왕 69) 설이 유력해진다. 물론 태왕의 東來가 있던 5월이 포함된 해와 비의 건립시기로 추정되는 ‘辛酉年’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클 수도 있지만, 5세기 중후반 고구려와 신라의 양국 관계에서 볼때 뒤늦게 과거의 사실을 회고하여 이를 기록하고 비를 세웠다는 설명이 그리 자연스럽지는 않을 듯하다.

481년설을 취할 경우 삼국사기 등 문헌자료에 보이는 이시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및 비문에서 읽혀지는 상황이 잘 결합되지 않는다. 삼국사기에는 눌지왕 34년(450) 실직에서의 고구려 변장 살해 사건 이후 454년 고구려의 신라 공격 등 454년 이후에 양국 관계는 대립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세는 문헌 기록에서 전하는 역사상이 맞더라도, 어느 특정시기에 특정한 상황에서 비문이 전하는 양국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컨대 475년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유역을 장악한 뒤에 신라를 압박하여 비문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아직 ‘辛酉年’의 판독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일단 449년설과 481년설 양자를 다 염두에 두면서 아래의 내용을 해석하기로 한다.

(2) 高麗大王祖王公□新羅寐錦世世爲願如兄如弟上下相[知]守天東來之

祖王公은 그동안 ‘祖王令’, ‘相王公’ 등으로 판독되었다. ‘相王公’으로 읽어 고구려 太王 아래의 신료로 보

는 견해,⁵⁾ ‘祖王令’으로 판독하고 ‘祖王’을 고려 太王 즉 비가 건립된 당시의 고구려 태왕인 문자왕의 ‘할아버지 왕’ 즉 장수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⁶⁾ 또 ‘祖王令’을 “할아버지 왕의 명령”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필자는 기존 논문에서 先代의 왕을 현재의 왕을 기준으로 ‘할아버지 왕’이라고 서술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고구려비문에서 찾아볼 수 없고, 광개토왕릉비나 모두루묘지 등 선대왕의 경우 시호를 기록하기 때문에, 祖王은 할아버지 왕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점은 「집안고구려비」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따라서 문장 구조상 太王에 이어서 기술된 祖王은 고구려 태왕의 아래에 있는 하나의 신료 내지는 하위의 왕이며, 公은 이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는 아래 문장(3)에서 新羅寐錦이나 太子 이하 官人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다른 가능성은 祖를 동사로 王公을 목적으로 보는 해석인데, 적절한 祖의 용례를 찾기 어렵다.

“東來之”의 ‘之’는 문장의 종결사이며, 이때 ‘東來’라는 행위의 주어는 高麗 太王과 祖王 公이다. 東來의 이유는 新羅寐錦과 “世世爲願如兄如弟上下相[知]守天”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할 점이 이른바 전면이 “高麗太王의 東來”라는 본 비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문장이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필자가 이전 논문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비문의 상태로는 전면이 가장 중요한 면으로 보이는데, 처음 비면을 새길 때부터 의도적으로 高麗 太王의 활동이 나타나는 부분을 전면이 배치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통상적으로 인정해온 대로 만약 우측면이 시작면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문장 구성은 매우 의도적이고 치밀한 서술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5월중으로 시작되게끔 우측면의 마지막 부분을 비워둘 수도 있지만, 그런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서 이번 판독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제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글자의 존재 유무 및 글자의 판독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제액이라고 할 경우 명칭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비문의 윗단으로 부르려고 한다.

일단 필자의 육안으로도 ‘年’이란 글자는 제법 뚜렷하게 보인다. 다른 글자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年’이라는 글자는 2000년 판독회 때에도 확인한 바 있지만, 더 이상의 다른 글자의 판독이 불가능하여 논의를 진전하지 못하였다. 일단 ‘年’이라는 글자만 확인해도, 전면의 시작이 문장이 ‘五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年과 月이 서로 이어지는 문장으로 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든다. 다만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가 적지 않다.

먼저 제액이 아닌 기년을 쓰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기년이 제액의 기능을 한다면 이는 기년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리라 본다. 물론 고려태왕과 신라매금이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식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기년이 제액처럼 부각되는 배경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더욱 좌측면의 ‘辛酉年’이란 판독이 옳다면 더욱더 ‘5월중’의 해만을 제액처럼 강조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辛酉年’의 사례를 보면, 이 부분에 기년이 기록되었다고 가정해도 이는 연호를 포함하는 기년이 아니라 간지만이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타당하다. 그러면 맨윗단의 글자가 새겨진 공간이 어색해진다.

둘째, 윗단의 문장이 기년일 경우에는 전면 문장이 바로 시작면이 되는데, 좌측면이 문장의 최종으로 본다면, 우측면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아래에서 해석하듯이 필자는 첫머리 5월중에 東來한 주체

5) 余昊奎, 1997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啓方), 2000, 「中原高句麗碑의 解讀과 內容의 意義」 『史叢』51.

6) 李丙燾,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13.

는 高麗太王이고, 新羅寐錦이나 太子 共 등 다른 인물들은 태왕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곳에 와서 사전 준비를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태왕이 동래하기 이전의 활동상황을 기록할 공간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현재 글자의 판독이 ‘年’를 제외하고는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비면 맨윗단의 글자가 전체 비문과 동시에 새겨졌다는 점도 서체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의문점에 대해 다소의 답이 있어야 전면 윗단의 기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년이 있다면 전면의 문장이 시작면이 되어 5월중 이하 고려 태왕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갖는 비중이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전면의 첫 문장에 고려태왕과 신라매금이 서로 대응되는 관계로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3) 寐錦忌太子共前部大使者多[于/亏/兮]桓奴主簿貴德[句][方+?][王不聆]□[去/古]□□到至跪營

이 문장(3)에서 寐錦 忌, 太子 共은 아래의 前部 大使者 多亏桓奴, 主簿 貴德 등과 마찬가지로 직위+인명으로 본다. 즉 忌는 매금의 이름으로 해석한다. 이 문장에서는 ‘신라매금’에서 신라가 생략되고 寐錦으로만 기록된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寐錦 忌가 太子共 보다 먼저 서술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 태자 보다는 상위의 대우를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跪營’은 太王이 계신 營 앞에 꿇어앉는다는 표현으로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跪王’의 표현과 유사한 의미로서, 跪營이나 跪王이란 용어가 太王의 정치적 위상을 드러내주는 고구려식 표현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이다. 하지만 跪王과는 ‘跪營’의 ‘營’은 태왕의 처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跪營과 跪王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본 문장에서는 ‘跪’의 대상이 太王 외에는 달리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용상 차이는 없다고 본다. 다만 다음 문장에 새로 판독한 ‘暨’가 등장하는데, 이 역시 임금이 계신 곳이란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그렇다면 營과 暨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跪營은 5월중에 이루어진 행위의 맨 마지막 문장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 따라서 태왕이 東來한 이후, 신라 매금 및 태자 공 등 여러 신료들의 跪營으로 시작하여, 受教跪[營]之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이 문장이 끝나는 부분을 알기가 어렵다. 아래 문장에 다시 太子共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하는데, 현재 판독되는 “到至跪營”라는 문장에서는 술어가 3개나 중복되는 문장이 되어 어색하다. 이 문장의 주어는 寐錦忌, 太子共, 前部大使者 多于桓奴, 主簿 貴德 등이다. 이들의 최종적인 행위가 跪營이라고 본다면, 이들 太子 共 등 고구려 관료들은 태왕이 오기 이전에 미리 이 지역에 도착하여 太王을 맞을 준비를 하였을 것이고, 신라의 寐錦 忌 역시 미리 도착해 있었을 것이다. 발표자는 기존의 논문에서 우측면에 이러한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 바 있다.

다음 문장 (4)는 판독되지 않는 글자가 적지 않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비문의 내용상 이곳에 온 太王의 행위가 기술되었다고 본다면, 태왕이 주체가 되는 술어인 教와 賜를 기준으로 문장을 나누어본 바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教와 賜를 기준으로 문장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4)-①[大]太子共[語/諸]向[暨]上共看節賜[太/九]霍鄒

(4)-②教食[在/于]東夷寐錦之衣服建立處[用/伊][者/有]賜之隨[恭/去][諸]□□奴客人□

(4)-③教諸位賜上下[衣]服

(4)-④教東[夷]寐錦逕還來節

(4)-⑤教賜寐錦土內諸[衆][人/本]□[支][告][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兼]受教跪營之

위 문장(4)에서 태왕의 ‘敎’는 4차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3차례(②③⑤)는 衣服의 사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敎’의 대상으로는 ④東夷寐錦, ③諸位이고, ‘賜’의 대상으로는 ⑤寐錦土內諸衆人 등이 보이고 있으며, 敎의 내용으로는 ③“賜上下衣服”, ④“敎東[夷]寐錦逕還來”는 내용 해석상 어느 정도 분명하고, ②⑤의 敎는 문장 해석이 불분명해서 알기 어렵다. 그리고 이 敎와 관련하여 衣服(上下衣服)이라는 용례가 3차례 나오는데 아마도 5월중에 고려태왕과 신라매금 사이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행사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일단 敎, 賜를 기준으로 나누어본 문장 별로 내용을 살펴보자.

(4)-①[大]太子共[語/諸]向[鑿]上共看節賜[太/九]霍鄒

節은 ‘~할 때’라는 의미로서, 아래 6행의 “東[夷]寐錦逕還來節”의 節과 동일한 용법이다. 이 문장은 정확히 해석되지는 않지만, 대략 태자 共이 태왕이 계신 鑿을 향하여 아뢰고(語) 뵈었을(看) 때, 태왕이 太霍鄒를 하사한 내용으로 짐작된다.

(4)-②敎食[在/于]東夷寐錦之衣服建立處[用/伊][者/有]賜之隨[恭/去][諸]□□奴客人□

이 문장의 敎는 태왕이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내린 敎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장에 東夷寐錦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문장이 잘 해석되지는 않지만 신라의 매금과 관련된 敎일 것이다. 신라 매금과의 만남을 위해서 太王이 東來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내린 敎의 대상으로 ‘東夷寐錦’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다. 그리고 문장(2)에서는 ‘新羅寐錦’으로 표기되었는데, 이 문장 (4)-②에서는 ‘東夷寐錦’으로 바뀌어 표기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매우 의도적인 표기의 변화로 짐작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문장에는 신라매금에게 衣服을 하사한 내용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을 것이다. “東夷寐錦之衣服 … 賜之”의 구절이 이를 보여준다. 다만 고려 太王과 신라 寐錦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례적인 절차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만 짐작할 뿐이다. 食, 建立處 등의 용어가 그러한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구절이 奴客人이다. 奴客은 광개토왕릉비와 牟頭婁墓誌에도 나타나는 고구려의 太王과 臣僚의 관계를 보여주는 용어이다. 여기의 奴客人은 ‘東夷寐錦’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新羅寐錦에게 의복의 하사라는 복속 의례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東夷寐錦으로서 태왕의 奴客人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장으로 추정된다.

(4)-③敎諸位賜上下[衣]服

(4)-③은 諸位에게 敎하여 上下에게 [衣]服을 하사하였다고 해석된다. 다만 諸位와 上下의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혹 敎하여 諸位에게 上下[衣]服을 하사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일단 앞의 해석대로라면 諸位 및 上下의 실체가 고구려 측 인물인지 아니면 신라 측 인물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敎의 대상으로 보면 諸位는 고구려 측, 上下는 신라매금의 신하로 볼 가능성이 있다.

(4)-④敎東[夷]寐錦逕還來節

(4)-④은 “東夷寐錦에게 敎하여 (매금이) 되돌아왔을 때” 정도로 해석된다.

(4)-⑤敎賜寐錦土內諸[衆][人/本]□[支][告][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兼]受敎跪營之

이 문장은 잘 해석되지 않는데, 일단 판독되는 글자의 양상을 보면 寐錦土內諸衆人이 敎賜의 대상이 되었고, 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가 “衣服兼受敎跪營”의 주어가 되고 있다. 寐錦土內諸衆人和 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가 서로 대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월중의 일련의 과정은 跪營으로 시작하여, 跪營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 현재 판독되는 문장으로는 跪營의 주체가 다르게 보인다. 다만 문장 (4)-④과 (4)-⑤에 등장하는 東夷寐錦과 寐錦土內諸衆人도 跪營의 주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5)-① 十二月廿[三/七]日甲寅東夷寐錦上下至于伐城

(5)-②敎[來]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貴[德]□□□□募人三百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疏]奴[扶/抹]□□□盖盧共□募人新羅土內衆人[兵/先][動][奪]□

(5)-① : 이 문장은 5월의 회맹 이후 같은 해 12월 23일에 이루어진 새로운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그 시점을 12월 23일으로 기술한 것은 이날 하루에 그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12월 23일의 사건은 앞의 5월의 사건과는 달리 東夷寐錦의 上下, 즉 신라왕의 신료들이 于伐城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된다.

(5)-② : 고구려에서는 5월의 사건에 참여하였던 前部 大使者 多于桓奴와 主簿 貴□등이 태왕의 敎를 받들어 왔다. 그리고 于伐城에 도착한 신라의 東夷寐錦上下는 문장 (4)-③에서 衣服을 하사받은 존재와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고구려 관인들과 신라 측 관인(上下) 모두 5월의 회맹에 참석한 자들로, 그때의 합의 내용을 실천하는 양국의 주체로 추정된다. 이 때는 5월 회맹의 주요 인물인 고구려의 태자 공 및 신라매금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募人三百’이란 활동을 하였는데, 新羅土內幢主인 下部 拔位使者 補奴와 □[疏]奴 등이 구체적인 실무 책임자로 활동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新羅土內衆人이 募人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新羅土內衆人이 주어가 되는 새로운 문장이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필자는 이 新羅土內衆人을 문장 (4)-⑤의 “敎賜寐錦土內諸[衆]人”과 연관하여 이해한 바 있다. 新羅土內와 寐錦土內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新羅土內와 寐錦土內는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新羅土內幢主 및 新羅土內衆人은 寐錦土內로 규정되는 인물들과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문장 (5) 이하의 문장은 판독되지 않는 글자가 많아 그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太王國土와 東夷寐錦土 등의 문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기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앞의 해석에 의해 충주 고구려비에 등장하는 신라 측 인물군과 고구려 측 인물군을 살펴보자.

(가) 寐錦忌太子共前部大使者多[于/亏/兮]桓奴主簿貴德

(나) 敎諸位賜上下[衣]服 敎東[夷]寐錦逕還來節 敎賜寐錦土內諸[衆][人/本]□[支][告][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兼]受敎跪營之

(다) 東夷寐錦上下至于伐城 敎[來]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貴[德]□□□□募人三百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疏]奴[扶/抹]□□□盖盧共□募人新羅土內衆人[兵/先][動][奪]□

(가)(나) 문장을 보면 신라 측 인물군으로는 5월중에는 新羅寐錦(東夷寐錦)을 비롯하여 매금의 신료인 (東夷寐錦)上下, 그리고 寐錦土內諸衆人 등 3그룹이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신라 측 참가자를 ‘寐錦-上

下-衆人'으로 구성된 것으로 고구려 측에서는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구려 측 인물군으로는 (가)의 太子共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貴德 및 (나)에 보이는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즉 (가)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포함 여부이다. 그런데 (나) 문장에서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은 “寐錦土內諸衆人”에 대응되는 듯하다. 즉 太王國土와 寐錦土內的 대응관계상 그러하다. 그렇다면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에는 (가)의 인물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런 접근은 지나치게 충주 고구려비의 문장을 정합적으로 파악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나) 문장을 보면 東夷寐錦上下가 우벌성에 왔을 때 이에 대응하는 고구려 측 인물은 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貴[德] 등이었다. 이들은 신라매금 및 태자 共과 더불어 태왕을 맞이하고 跪營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東夷寐錦上下에 대응되는 고구려 측 인물이라면 (나)문장의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가)문장의 寐錦土內諸衆人에 해당되는 고구려 측 인물군이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라고 생각한다.

이상 전면에 기록된 문장에 대해 대략적인 해석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이를 근거로 본 발표의 주제인 高麗太王, 新羅寐錦, 東夷寐錦, 太王國土, 寐錦土(內), 新羅土(內)라는 용어가 비문 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高麗太王, 新羅寐錦, 東夷寐錦 등 용어의 검토

(1) 高麗太王, 新羅寐錦, 東夷寐錦

비문의 내용은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고구려인이 갖고 있는 신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자료로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시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고구려와 신라의 정치적 관계는 고구려의 對新羅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문에는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나타나는 정치적 위상의 차이를 용어상의 차별성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高麗太王과 新羅寐錦이다. 太王이 고구려적 천하 질서의 최고 現身者의 용례로 사용되고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이다.⁷⁾ 寐錦은 당시 신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왕을 칭하는 용어로서, 그 자체가 열등한 표현은 아니다.⁸⁾ 그러나 비문 내에서는 고구려적 질서와는 다른 신라식 용어를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신라의 열등성을 보여주기 위한 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高麗太王과 新羅寐錦은 외형적으로는 主從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충주 고구려비에서도 고구려 太王과 신라 寐錦의 회맹시에 太王이 寐錦에게 의복을 하사함으로써 主從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⁹⁾

7) 梁起錫, 1983 「4~5세기 高句麗王者의 天下觀에 대하여」 『湖西私學』 11.

盧泰敦, 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의 天下觀」 『韓國史論』 19.

8) 김병곤은 '寐錦'이 마립간에 대한 신라인이 자칭한 이칭이 아니라, 고구려인들이 신라왕에 대한 책봉례의 일환으로 수행한 의복의 수여 과정에서 마립간을 '寐錦'으로 한자식 뜻으로 조어했다고 이해하였다.(김병곤, 2006 「신라 왕호 '寐錦'의 유래와 성격」 『사학연구』 84)

9) 고려태왕과 신라매금의 만남 성격을 '會盟'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비문의 내용에 회맹과 관련된 용어 즉 盟, 約, 誓, 犧牲, 歃血 등의 용어가 보이지 않아 회맹의 본래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하다(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啓方), 2000, 「中原高句麗碑의 解讀과 內容의 意義」 『史叢』 51). 필자가 여기서 사용하는 회맹의 개념은 그러한 중국식 회맹을 의식한 것은 아니고, 달리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하여 잠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어차피 비문에 보이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기존의 용어가 없다는 점에서, 회맹

이러한 의복의 하사 방식은 당시 중국이 주위의 여러 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다. 그런데 중국 식 冊封체제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官爵의 책봉이 비문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발표자는 이전의 논고에서 바로 이점의 중국의 방식과 고구려 방식의 차이점으로 파악한 바 있다.

그런데 필자는 비문 내에서 책봉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바로 '東夷寐錦'이다. 비문 내에서 신라왕을 지칭하는 표기의 변화를 보자.

전면의 첫문장에는 高麗太王과 함께 '新羅寐錦'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문장(3)에서 太子共 등과 기록할 때에는 단지 '寐錦'으로만 기록하고 있다. 이는 '新羅'가 생략된 표기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문장(3)에서 太子共 등과 함께 太王에 대한 '跪營'이 있는 후에, 태왕이 매금에 대한 衣服의 하사가 기술되어 있음직한 문장인 (4)-②에서는 '東夷寐錦'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즉 전면 5-6행 (4)-④ “東[夷]寐錦逕還來節” 및 7-8행인 (5)-① “東夷寐錦上下至于伐城”, 그리고 좌측면 5행 “東夷寐錦土” 등에서 모두 '東夷寐錦'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점에서 적어도 충주 고구려비문 내에서는 '新羅寐錦'과 '東夷寐錦'이란 칭호가 의도를 갖고 신중하게 선택되어 사용되었으며, 일정한 의례가 치루어진 이후에는 '東夷寐錦'이 공식적인 칭호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발표자는 이런 점에서 '東夷寐錦'이 일종의 책봉호에 해당한다고 이해한다. 이 책봉호는 衣服의 사여와 짝하여 신라매금이 고려태왕의 '奴客'이 되는 의례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된다. 사실 판독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문 내에서 의복의 사여 등 일종의 의례 행위에 대한 기술 분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 보인다. 다만 문장 (3)과 (4)-②에 보이는 跪營, 食, 衣服, 奴客 등의 용어가 이런 책봉의례와 관련되었으리라 짐작될 뿐이다.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복속의례가 행해졌으리라는 점은 전면 첫문장에서 고려태왕과 신라매금이 회맹하는 목적 중에 “上下相知守天”이 있음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守天'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고구려의 독자적인 '天'관념에 의해, 天의 직계자손인 “고려태왕을 받든다”는 의미의 군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¹⁰⁾가 설득력 있다고 본다. 어쨌든 “上下相知守天”을 위한 어떤 의례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책봉의례나 복속의례일 것임은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했을 이런 복속의례 혹은 책봉의례에 대한 기술이 간략한 것은 본 비문의 건립 목적이 고려태왕과 신라매금의 '회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맹 이후에 전개되는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그러한 사건이 5월중에 회맹에서 이루어진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복속의례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태왕의 '敎'를 중심으로 기술했다고 판단된다.

'東夷'라는 용어 자체가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정치적 차별성을 집약한 용어임은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東夷는 중국 華夷觀에서 동방의 제종족에 대한 貶稱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이를 고구려가 차용하여 고구려의 천하의 외곽에 있는 신라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이다.¹¹⁾ 비문의 東夷 용법이 중국의 그것과 어떠한 내용적 차이가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당시 고구려인이 東夷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차별성의 의미에 주목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東夷寐錦'이 고려태왕에 복속되고 태왕의 奴客으로서 규정되는 공식적인 칭호, 즉 책봉호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런 용어를 확장하고 새로 규정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10)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啓方), 2000, 「中原高句麗碑의 解讀과 內容의 意義」 『史叢』 51.

11) 東夷라는 용어를 신라에 적용한 배경에 장수왕이 북위로부터 '東夷中郎將'이라는 책봉호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東夷寐錦’이 책봉호의 일종이라면 新羅寐錦은 어떤 칭호일까? 이는 “5월중”의 첫문장에 高麗太王과 新羅寐錦이 병기된 점에서 해석의 단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고구려인이 제작한 금석문 내에서 太王을 가리키는 칭호가 ‘高麗太王’으로 기록된 유일한 사례이다. 고구려인에 의해 고구려인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문장에 ‘高麗’라는 국명은 필요없고 ‘태왕’이면 충분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옳다면 충주 고구려비문에서 ‘高麗太王’이라는 칭호는 이 비문을 세운 대상에서 고구려인들이 아닌 대상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장소가 고구려의 남진과정에서 확보한 가장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런 추정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高麗太王과 新羅寐錦이 한 문장에서 서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高麗는 新羅에 상대적인 국호로 사용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비의 전면 첫문장에 등장하듯이 양국이 “如兄如弟”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사실 “上下相[知]守天”에서 上下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뜻하는 용어라면, “如兄如弟”와 “上下相[知]守天”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 서술인 듯한데, 어쩌면 그 점이 당시 고구려와 신라가 맺고 있는 현실적인 위상과 고구려 측이 원하는 명분상의 위상과의 간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2) 太王國土, 寐錦土, 新羅土

太王과 寐錦의 차별성이 영역적으로 표현될 때, 太王國土와 寐錦土 혹은 新羅土라는 용어로 비문에 나타난다. 양자 사이에는 ‘國’의 개념이 들어가나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차별성을 강조하는 용례로 짐작된다. 하지만 위상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太王國土와 寐錦土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신라 영역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광개토왕릉비문에서 신라를 ‘屬民’으로 인식하고 있는 단계와는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광개토왕릉비에서는 백제나 동부여를 포함하여 신라를 ‘屬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屬民의 내용은 고구려 태왕의 恩慈를 받는 대상에 적용되는 용어이다.¹²⁾ 그런 점에서 광개토왕릉비에서는 신라의 백성도 고구려 태왕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屬民 관계는 구체적으로 고구려 太王에 대한 朝貢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었다.

그런데 5월중에 일종의 책봉의례를 통해 주종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있을 법한 朝貢의례의 흔적은 비문에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고구려의 일방적인 의복의 하사만 있을 뿐이다. 朝貢 의례가 없다는 점은 ‘屬民 - 朝貢’ 관계를 강조하는 광개토왕릉비 단계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태왕의 恩慈를 베푸는 대상으로서의 屬民과는 다르게 인식한 결과 신라를 ‘東夷’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한다.¹³⁾

이러한 인식은 당대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맺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인정한 결과로 짐작된다. 물론 광개토왕 당시에도 현실적으로는 신라와 고구려의 정치적 영역은 구분되어 있었지만, 관념적으로는 신라의 民을 太王의 民(屬民)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주 고구려비문 내에서는 이러한 관념과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대신라관의 또다른 변화의 결과라고 짐작된다.

다음 ‘寐錦土’와 ‘新羅土’의 용어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寐錦土’는 ‘(東夷)寐錦土’의 약칭으로서 “寐錦土內諸衆人”은 신라왕이 다스리는 영역 내의 주민들을 가리키는 용어일 것이다. 이와달리 ‘新羅土’는 ‘寐錦

土’에 대한 고구려 입장에서의 용어로 짐작된다. ‘新羅土內幢主’가 신라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幢主인 고구려 관인을 가리키는 말에서 짐작하듯이 ‘新羅土內’와 ‘寐錦土內’는 귀속이 고구려냐, 신라냐를 구분하는 용례로 짐작된다. 따라서 전면 10행의 ‘新羅土內衆人’과 6행의 “寐錦土內諸衆人”은 서로 다른 존재로 구분해서 살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양자를 동일한 대상으로 파악한 바 있다. 寐錦土內諸衆人은 신라 매금에 소속된 존재로서 5월중에 고구려 태왕으로부터 의복을 하사받은 존재이다. 그런데 新羅土內諸衆人은 新羅土內幢主의 예와 같이 고구려 출신 인물로서 신라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혹은 신라 영역내의 사람들이라도 고구려에 귀속된 존재로 이해함이 타당하겠다. 新羅土內衆人은 新羅土內幢主 휘하에서 활동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에 포함되는 존재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이는 신라 측 인물군의 구성으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월중의 회합에 참여하고 태왕으로부터 의복을 하사받은 신라 측 인물은 新羅寐錦(東夷寐錦)과 東夷寐錦上下, 寐錦土內諸衆人 등 3그룹이다. 여기서 東夷寐錦上下, 寐錦土內諸衆人은 용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다. 즉 ‘寐錦土內’의 유무이다. 東夷寐錦上下가 신라의 중앙관리하고 한다면, 寐錦土內라는 말의 뉘앙스에서 짐작되듯이 寐錦土內諸衆人은 5월중의 회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라 영역내의 지방민들로 짐작된다. 따라서 寐錦土內諸衆人과 대응되는 고구려 측 인물들로 등장하는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도 고구려 영역 내의 지방민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아마도 충주 고구려비가 세워진 이 지역에서 5월중에 고려 태왕과 신라 매금 사이의 회합이 이루어질 때, 양국의 변경 지역에 있던 지방민들도 각각 회합의 자리에 참석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이 비문 내에서 각각 寐錦土內諸衆人과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로 표현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에서 지방민들을 大位-諸位 혹은 大位-諸位-上下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잘 납득되지 않는 면이 있다. 더욱 전면 5행의 “教諸位賜上下衣服”에 보이는 諸位는 고려 태왕을 수행했던 중앙관인임이 분명한데, 같은 諸位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어색하다. 혹 지방민들도 포함하기 위해서 ‘太王國土’라는 말이 덧붙여졌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에 해당되는 고구려 측 인물은 중앙관인이 大位-諸位, 지방민이 上下로 나누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추정이 타당하다면 太王과 寐錦이 갖는 정치적 차별성은 그들의 신료층에 대한 용어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 측 인물군은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로, 신라 측 인물군은 ‘寐錦上下’와 ‘寐錦土內諸衆人’으로 표현하고 있는 차이로 나타난다. 이는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가 중앙관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전제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현재 필자로서는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가 지방민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중앙관인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일단 양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자 한다.

다만 충주 고구려비문 내용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들 지방민으로 추정되는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 태왕과 신라왕이 회맹하기 위해 비의 건립 지역으로 순행하였다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상당히 큰 사건임에 틀림없다. 사실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시점은 고려 태왕과 신라 매금이 회맹한 그 시점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문에는 5월의 회맹 이후 12월에 募人三百이라는 어떤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고, 또 일정한 시간 뒤에 고추가 共의 군대 등장하는 사건까지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¹⁴⁾

즉 현존하는 충주 고구려비는 고려태왕과 신라매금의 회맹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것은 아니었다. 고구려왕과 신라왕의 회맹이 양국의 변경 지방에서는 대단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맹을 기념하기 위한 비의 건립은 예정되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그 이후의 어떠한 사정이 회맹의 시점으로부터 계속된 일

14) 임기환, 2000 앞의 논문.

12) 林起煥, 1996 「廣開土王陵碑에 보이는 ‘民’의 성격」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13)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啓方)도 屬民이 동질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東夷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보았다(2000, 「中原高句麗碑의 解讀과 內容의 意義」 『史叢』51).

련의 사건을 기술한 충주 고구려비를 세우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그 내용은 新羅土內幢主, 新羅土內衆人, 募人三百 등에서 짐작되는 바와 같이 양국 국경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한다. 좌측면 마지막 문장에 大古鄒加 共의 軍이란 문구나, 고구려 상위 지방관에 해당되는 古牟婁城 守事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영역을 둘러싼 심각한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점에서 5월중에 신라 영역의 지방민과 고구려 영역의 지방민이 참여하고 있는 점은 이미 5월의 회맹에서 영역 문제 등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5월에서 고려태왕의 東來는 신라매금과의 회맹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변경지역에 대한 巡幸의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충주 고구려비는 고려태왕과 신라매금이 회맹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립 목적 자체가 회맹비는 아니며, 고구려와 신라 양국 사이에 벌어진 국경에서의 영역 분쟁이나 군사적 충돌을 다루고 있는 비문으로 짐작된다.

忠州 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

I. 머리말

〈忠州 高句麗碑〉는 발견 당시부터 문헌자료에 전하지 않는 새로운 자료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비문에 기술된 내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定界碑 혹은 拓境碑¹⁾, 巡狩碑²⁾, 會盟碑³⁾ 그리고 功績碑⁴⁾ 등 다양한 견해가 나왔지만, 이 비가 어떤 의도에서 중원지역에 세워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인 것이다.

물론 비의 마멸 상태가 심하다는 점이 이 비의 이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전면〉과 〈좌면〉의 일부 내용에서도 재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여겨진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五月中’ 이하의 서술을 양국 군주의 會盟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아 왔지만,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표현은 비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5월중’ 이하의 서술이 太王의 衣服 賜與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이 간다. 의복의 수여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파악하여 이 비가 중요시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월 23일의 사건에 보이는 ‘新羅土內幢主’의 募人은 신라 영토 안에서 신라 측의 협조 아래 고구려 당주가 招募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궁금한 것은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양국의 관계로 보아 초모가 이때 처음 시행되었다고 여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인의 변화 내용을 통해 양국의 현안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비는 中原이라는 고구려의 변경이자 신라와의 접경 지역에 세워졌다. 중원지역에는 양국 관계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 유의하여 양국 관계의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비를 중원에 세우게 되었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이해도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II. 비의 석독과 주요 내용

아래의 판독문은 8월 22일과 10월 17일의 두 차례에 걸친 판독회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일부의 판독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은 각주로 언급하였음을 밝혀둔다.

[전면]

五月中, 高麗太王祖王公□, 新羅寐錦世世爲願如兄如弟
上下相和守天東來之. 寐錦(忌)·太子共·前部大使者多兮桓

1) 李丙燾,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13.
2) 南豐鉉, 2000 「中原高句麗碑文의 解釋과 史讀의 性格」 『高句麗研究』10.
3) 金貞培, 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가지 문제점」 『史學志』13.
4) 시노하라 히로타카, 2000 「『中原高句麗碑』의 釋讀과 內容의 意義」 『史叢』51.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奴·主簿貴(德)·[句]⁵⁾□[王]不(聆)□□(去/古)□□到至跪營[之⁶⁾]. 太子共(語⁷⁾)
 向壁^上, 共看, 節賜[太][佳]⁸⁾鄒. (教)食(在)東夷寐錦之衣服建立處
 (用/伊)者, 賜之隨[者]⁹⁾, (諸)□□奴客人□, 教諸位賜上下[衣]服. 教東
 [夷]寐錦還來, 節教賜寐錦土內諸□人□支告, [太王]國土
 大位諸位上下衣服□, 受教跪(營)¹⁰⁾之. 十二月廿三[日]甲寅東
 夷寐錦上下至于伐城. 教(來)前部大使者多兮桓奴·主簿貴
 □□□□募人三百, 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
 □(流¹¹⁾)奴(扶/抹¹²⁾)□¹³⁾□□盖盧共□募人, 新羅土內衆人(兵/先)(動)¹⁴⁾□[奪¹⁵⁾]

[좌면]

- (1행 7-14) (于)伐城不□村舍
- (3행 7-12) □西□□□□ (19-23) 太王國土□
- (5행 13-15) 辛酉年 (19-23) 東夷寐錦土
- (6행 16-23) (大)古鄒加共軍至于
- (7행) □□□于□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

위의 판독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롭게 판독한 글자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그동안 가능성으로 제기되었던 글자들을 확정하거나 미상으로 판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판독상의 오류는 더 적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토대로 문장의 선후 관계를 구분하고 문의를 파악하여 비에 간각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면>

五月中, 高麗太王祖王公□, 新羅寐錦世世爲願如兄如弟上下相和守天, 東來之.

<전면>의 첫 단락은 ‘五月中’으로 시작되어 ‘東來之’로 끝난다. 여기서의 ‘中’이란 어느 달이란 시점을 밝히

-
- 5) 다른 글자에 비해 자형이 작아 보이며, 작은 □의 모습이 보인다.
 - 6) 2000년에 토틸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첫 획을 인정할 수 없다면 전체 자형은 大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이어지는 단어가 태자가 분명한 이상, 여기에는 이 구절의 종결과 관련되는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에 之와 같은 종결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간다고 추정하겠다.
 - 7) 言은 확실한데, 우변에서 우측 아래로 내려오는 획이 보인다. 이를 인정하면 諸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語에 가깝다. 동사가 와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語로 본다.
 - 8) 佳의 상부는 羽의 자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犛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9) 2차 판독회에서 ‘土’의 자형이 확인되었으나 그 아래의 자형은 미상. ‘去’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耑’라고 본다.
 - 10) 官이나 冢과 달리 상부에 추가 획이 보인다.
 - 11) 2000년에는 疏의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流의 자형에 가깝다.
 - 12) 扌은 분명하나, 그 오른쪽 부분은 불분명하다.
 - 13) 狃라고 하기도 한다. 扌는 분명하지만, 그 오른쪽 부분이 모호하다.
 - 14) 2000년에는 遷. 글자의 3/4이 깨져나가 1/4의 자형만 남아있다. 미상 의문.
 - 15) 奪의 자형과 일부 유사해 보인다.

는 것으로 이하의 사건이 5월 어느 날로부터 일정 기간 진행되었음을 알려준다.¹⁶⁾ ‘之’는 문장 종결형 어미로 뒤에 자주 등장하는 ‘教’와 함께 이 비문의 문장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 점에서 ‘동래지’에서 하나의 문단이 끝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를 하나의 문장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해석에서는 ‘고려태왕’에서 ‘동래지’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아왔다. 그리고 그 주어부에 등장하는 祖王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모아졌다. 즉, 태왕의 조왕이든, 태왕과 조왕이든 이들이 주어가 되어 ‘동래지’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자의 문장 위치로는 술어의 위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자 작문이 서툴렀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다 어색한 문장인 것이다.

또한 ‘동래지’를 술어라고 보니, 그 내용은 ‘태왕조왕…… 이 매금과 (중략) 하기 위해 동으로 왔다’고 풀이되었다.¹⁷⁾ 이렇게 보면 태왕 등이 행차했던 목적은 어느 정도 설명되지만, 그것의 배경과 행차의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셈이 된다. 물론 제2면이 되는 <우면>에는 ‘오월중’의 일이 필요했던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기재되었을 것이고, ‘오월중’ 이하의 기재는 그 후속의 조치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행차의 배경은 앞에서 설명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¹⁸⁾ 행차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 ‘태왕조왕이 매금과 (중략) 하기 위해 동으로 왔다’고 보면, 그 의도의 달성 여부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반드시 기재되어야 했을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후술의 기재 내용은 의복의 사여를 보여줄 뿐 어디에도 관계의 성립을 확정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위 문장은 두 개의 구문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태왕·조왕공□’과 ‘신라매금’ 이하 ‘동래지’까지의 또 다른 구문이 그것이다. 전자는 앞면에서 ‘太王教’의 형식으로 기재되었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되며, 후자는 그것에 호응한 신라 측의 반응이 되는 것이다. 즉, 신라 매금이 관계의 성립을 위해 東來해왔음을 언급함으로써, 태왕이 의도했던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자연스럽게 기술하고 있는 문장 구조라고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5월에 고구려 태왕과 조왕 공이 □하니, 신라 매금이 영원히 형처럼 아우처럼 상하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하늘의 [도를] 지켜나갈 것을 희망하여, 동쪽에서 왔다.”의 내용이 되겠다.

寐錦(忌)·太子共·前部大使者多兮桓奴·主簿貴(德)·[句]□[王]不(聆)□□(去/古)□□到至, 跪營[之].

‘主簿貴德’ 이하, ‘到至跪營□’ 사이의 내용은 ‘不聆’을 제외한 7자를 알 수가 없다. 이 9자로 이루어진 미상의 구절이 매금 기에서 주부 귀덕까지의 4인을 주어로 한 구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前部 大使者 多兮桓奴’의 경우는 인적 사항이 9자인 경우도 있고 보면, 1인 이상의 인명이 들어가 있다고 볼 여지가 더 크다고 본다. 태왕의 주재 아래 열린 행사로 신라 매금과 고구려 태자라는 양국 최고위층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자가 더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到至’와 ‘跪營□’의 의미로 보아 ‘도지’하고 ‘궤영□’한 이들은 거기에서 열린 무언가의 행사에 관계한 자들이라 여겨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영’은 군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태왕이 머물고 있던 行營¹⁹⁾이라 본다.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은 “매금 기·태자 공·전부 대사자 다혜환노·주부 귀덕…… 등이 거기에 도착하여, 행영 [앞에] 꿰어앉았다.”라고 풀 수 있다.

-
- 16) 林起煥, 2000 「中原高句麗碑를 통해 본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 『高句麗研究』10, p.419.
 - 17) 태왕의 조왕이라 볼 때, 의문이 드는 것은 5월중의 사건에 앞서 그의 왕호에 대한 기술이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태왕 등의 행차를 필요로 했던 사안이라면 그에 대한 언급이 선행되었을 것이고, <전면>에서 태왕의 조왕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18) 어떤 사안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조치로 ‘태왕의 교’라는 형태로 처리 방안이 내려졌던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 19) 邊太燮, 1979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檢討」 『史學志』24, p.45.

太子共(語)向壁^上, 共看, 節賜[太][鼈]鄒. (教)食, (在)東夷寐錦之衣服建立處(用/伊)者, 賜之隨[者](諸)□□奴客人□, 教諸位賜上下[衣]服.

‘壁’은 큰 집²⁰⁾으로 ‘壁^上’은 殿堂의 위를 뜻한다. ‘看’은 바라보다, ‘節’²¹⁾은 앞 내용을 받아 조건을 제시하는 용법의 ‘卽의 지금’이라는 의미로²²⁾ 여기서는 ‘바로 太鼈鄒를 내려준다’의 뜻으로 쓴다.

太鼈鄒는 鼈를 翟으로 관독하여 꿩 또는 그 깃털이라 보고 깃털을 장식한 고구려의 관모를 가리킨다고 보거나,²³⁾ 鄒가 騶와 통한다고 보아 좋은 화살을 가리킨다고²⁴⁾ 보아왔다. 그러나 鼈은 驚과 통하는데,²⁵⁾ 별에는 驚衣·驚冕의 예복을 뜻하는 용례가 있다.²⁶⁾ 이에 太鼈鄒는 군왕의 예복으로 해석된다.

‘(教)食, (在)東夷寐錦之衣服建立處(用/伊)者, 賜之隨[者](諸)□□奴客人□’의 부분은 해석하기 곤란하다.²⁷⁾ 하지만 ‘在’에 ‘어디에서(혹은 시간)라는 ‘于’에 해당하는 용법이 있다.²⁸⁾ ‘在’는 뒤에 등장하는 ‘建立處’와 연결되는 것이다. 한편 이어지는 ‘賜之’는 건립처에서 내려준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는 물건과도 연결된다. 즉, ‘동이매금지의복’을 건립처에서 내려준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어찌면 ‘의복’과 ‘건립처’ 사이에 들어가야 할 글자가 누락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앞 구절에서 태왕이 예복을 내렸다는 사실에 유의하면, 이 부분은 구체적인 대상에게 그것을 지급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전당 아래 꿇어 앉았던 태자 공을 비롯한 여러 인물 가운데, 동이 매금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교’이하 ‘건립처(용/이)者’까지의 구절은 태왕이 내린 의복을 신라 매금에게 지급한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隨者’는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대상이다. ‘(諸)□□奴客人□’의 바로 앞에 있다는 점에서 노객인 즉 신라 매금과 관계된다고 보이지만, 매금에게 ‘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매금지의복’의 형태로 이 구절의 전반부에서 매금에의 의복 지급은 이미 실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賜之隨者’ 이하의 후반부는 별도의 의복 지급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隨’의 의미로 보아, ‘賜之’의 대상은 매금을 수행하여 이곳까지 왔던 신라 측 관인이라 여겨진다.

‘教諸位賜上下[衣]服’은 앞 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구문으로 보인다. ‘諸位’는 고구려의 관위가 있는 자 즉 고구려 관인²⁹⁾이다. 즉 앞 절은 매금 이하 신라 측 참가자에 대한 의복 수여이며, 이 구문은 고구려 측 관계자에 대한 수여 내용이 된다. 문제는 ‘上下’인데 ‘제위에게 교하여 [동이매금의] 상하에게 의복을 하사하였다’고³⁰⁾ 풀 수도 있지만, 제위에게 ‘각각 상응하는 상위와 하위의’³¹⁾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하’의 용례가

20) 『廣韻』「散韻」, “殿, 博雅, 堂堦, 壁也. 通作殿.”

21) ‘지휘·명령’을 의미한다고 보거나(李丙瀟, 앞의 글, 31쪽), ‘때’라고 보기도 한다(시노하라 히로카타, 앞의 글, p.13).

22) 김병준, 2011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 교류와 변용』, pp.79~80.

23)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中原高句麗碑』의 釋讀과 內容의 意義」 『史叢』51, p.17.

24) 임기환, 앞의 글, p.421.

25) 『正字通』, “鼈, 與驚同.”

26) 『周禮』「春官 司服」, “王之吉服, … 享先公饗射, 則驚冕. <鄭玄注> 驚, 畫以雉, 謂華蟲也. 其衣三章, 裳四章, 凡七也.”

27) 임기환은 이 구절에 대해 의복의 하사라는 복속 의례의 과정을 거쳐, 매금이 태왕의 노객인이 되었다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임기환, 앞의 글, p.423).

28) 『書經』「洛誥」, “在十有二月, 惟周公誕保文武受命”, 『論語』「述而」, “子在齊聞韶, 三月不知肉味.”

29) 제위는 고구려 관인(武田幸男, 1980 「序說 五～六世紀東アジア史の一視點-高句麗『中原碑』から新羅『赤城碑』へ-」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 日本古代史講座 4- 朝鮮三國と日本』, 學生社, p.16)이며, ‘大位’(전면 제7행 1-2)까지 포함하여 회명에 참여한 신료들과 인근 지방의 유력 세력에 해당한다(임기환, 앞의 글, p.423).

30) 임기환, 앞의 글, p.422.

31) 武田幸男, 앞의 글, p.16.

‘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제6행 22~7행 7)에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상하를 대위·제위의 상하라고 보면, 앞서의 상하는 [동이매금의] 상하라고 보기 어렵다. 구문에서의 위치가 ‘賜’라는 동사 다음이라는 점에 유의하고 싶다.

이를 정리하면 ‘태자 공이 전당의 위를 향해 말하고 함께 바라보니, 바로 예복 등을 내려주셨다. 교를 내려 먹으라 하시고, 건립처에서 매금에게 의복을 하사하였다. 바로(곧이어) 노객인□의 隨從者들에게 [의복을] 하사하였다. [또] 교하여 [고구려] 제위에게 상응하는 상위와 하위의 의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이해된다.

教東[夷]寐錦逕還來, 節教賜寐錦土內諸□人□支告[□, □]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 受教跪營之. ‘教東夷寐錦逕還來’에서 ‘逕’은 ‘召’라고³²⁾ 풀이해 왔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답’과 ‘환래’의 주체가 다르게 된다. 환래의 모양새라고 보아 ‘분분히’라고 쓴다. ‘寐錦土內諸□人’의 제□인에 대해 그간의 이해는 諸衆人이라 보아 왔다. 자형으로는 ‘衆’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대체로 그러한 용어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 어의로 보아 신라 영역 안에 있는 이들로, 지역의 유력자들이 된다.³³⁾ 이 구절에 따르면 매금과 그 수행원에 대한 의복 사여의 행사가 종료된 뒤, 매금과 그 일행이 태왕의 교에 의해 다시 현지에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별도의 의복 수여 행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의복의 수여 대상이 지역의 유력자들, 즉 현지의 양국 관계자라는 점에 유의하고 싶다.

이를 정리하면 ‘교하여 동이 매금이 분분히 돌아오니, 바로 매금토내 諸□人□支告에게 의복을 하사하였다. [또한] (태왕)국토의 대위·제위·상하에게 의복을 하사하였다. 태왕의 교에 따라 행영 앞에 꿇어앉았다.’라고 이해된다.

十二月廿三[日]]甲寅, 東夷寐錦上下至于伐城. 教(來)前部大使者多兮桓奴·主簿貴□□□□募人三百, 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流)奴(扶/抹)□□□盖盧共□募人, 新羅土內衆人(兵/先(動))□[奪]

위 구문은 5월에 있었던 의복 사여의 행사 이후, 같은 해 12월 23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12월 23일의 간지로 보아, 449년의 일이 된다. 선행 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23일은 ‘모인삼백’을 위해 양국의 주관자들이 모인 날짜이며, 여기에서 이룬 합의에 따라 약속된 사안은 이후에 이루어졌다.³⁴⁾ ‘東夷寐錦上下’는 고구려 측의 다혜환노 등을 상대하기 위해 온 신라 측 관인이다. 于伐城은 順興³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주부귀(덕) 다음의 4글자는 판독할 수 없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다혜환노·귀덕과 행동을 함께 한 고구려 관인일 것이다. 다혜환노와 귀덕은 5월의 사건에서 모습을 보였던 이들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募人三百’은 우벌성 인근 지역에서 300명을 초모³⁶⁾했다는 것인데, 다음 문장에 신라토내당주 등이 모

32) 시노하라 히로카타, 앞의 글, pp.9~10.

33) 임기환, 앞의 글, p.422. 이에 따르면 ‘(태왕)국토대위제위상하’로 표현한 것 역시 그러한 지방 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된다.

34) 임기환, 앞의 글, p.424.

35) 충주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邊太燮, 앞의 글, 47쪽),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손영중은 『三國史記』지리지에 ‘고구려고지’의 ‘伊伐支縣’에 주목하여, ‘伊’와 우벌성의 ‘于’가 통한다고 보아 순흥으로 비정한 바 있다(손영중, 1985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역사과학』85-2, p.30). 伐(火)이 신라계 지명으로 소백산맥 이등에 국한되며(徐榮一, 2000 「중원고구려비에 나타난 고구려 성과 방어체계-于伐城과 古牟婁城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10, p.500), 고구려·신라의 주요 교통로였던 竹嶺路 상에 위치한다(張彰恩, 2006 「中原高句麗碑의 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 『歷史學報』189, p.303)는 점도 순흥설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36) 모인의 내용은 力役徵發로 이해된다(木村誠, 1997 「中原高句麗碑立碑年次の再檢討」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p.91).

인하는 것에서 초모의 대상 지역은 신라의 영토였다. 즉 고구려의 필요에 따라 신라가 협조한 것이다.³⁷⁾ 이렇게 볼 때 궁금한 것은 5월 이전, 즉 양측의 합의가 없었던 시기에는 이런 일이 어떻게 처리됐을까 하는 점이다. 신라토내당주의 존재로 보아, 초모가 이때에 와서 처음 시행되었다고는 여길 수 없다. 이전에도 초모는 있었지만, 합의 절차 - 초모에 대한 협조 요청과 수락 - 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때의 초모가 특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 … 盖盧共□募人’은 앞 구절을 이어, ‘募人三百’의 구체적 실무 책임자와 그 실행을 보여준다.³⁸⁾ 한편 ‘新羅土內衆人’은 당주 보노의 모인에 협조한 현지의 유력자들로 보인다. 앞에서 태왕이 의복을 하사했던 그들이다.³⁹⁾

이를 정리하면 [449년] 12월 23일 갑인, 동이 매금의 상하가 우벌성에 이르렀다. 교하여 온 전부 대사자 다혜환노·주부 귀덕……이 300인을 초모하였다. 신라토내당주 하부 발위사자 보노…… 개로가 함께 [실무를 맡아] 모인하였다. [이에 협조하여] 신라토내중인은……’라고 이해된다.

끝으로 <좌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于)伐城不□村舍’(1행 7-14)는 모인의 활동이 좌면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⁰⁾ 제5행의 ‘辛酉年’은 481년에 해당한다.⁴¹⁾ 한편 ‘태왕국토□’(3행 19-23)와 ‘東夷寐錦土’(5행 19-23)는 <전면>에서 등장했던 표현이다. 그러한 내용이 <좌면>에서 다시 나오고 있으며, 고구려와 신라의 영토로 구분을 짓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아마도 ‘모인’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무언가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古鄒加共軍至于’(6행 16-23)는 군사적 충돌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은 고추가 이름으로 보아 왔으나, ‘함께’의 뜻으로 보아 ‘알 수 없는 어떤 이들과 고추가 공이 함께 군대를 지휘하여(혹은 중군하여) 우(벌성?)에 이르렀다’라고 풀다. ‘고모루성수사하부대형야□’의 마지막 자는 이름자라고 본다.

Ⅲ. 태왕의 의복 사여와 대상자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면>의 서두부터 시작되는 ‘五月中’의 사건과 ‘十二月 廿三日’에 일어난 일, 그리고 古鄒加 등의 군사행동(<좌면>)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5월중’의 기술 내용은 이 비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된다. ‘12월 23일’의 사건으로 직접 이어지고 있음에서 그 연원이 되며, <전면>의 2/3분량을 차지하고 있어⁴²⁾ 현재 파악할 수 있는 비문 내용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5월중’의 사건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太王의 衣

37) 시노하라 히로카타, 앞의 글, pp.20~21.

38) 임기환, 앞의 글, pp.424~425. 이와 달리, 다혜환노의 모인과 신라토내당주의 그것을 별개로 보는 견해도 있다(시노하라 히로카타, 앞의 글, p.22).

39) 임기환, 앞의 글, p.424.

40) 시노하라 히로카타, 앞의 글, p.22.

41) 관련 내용은 이 발표문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42) 시노하라 히로카타, 앞의 글, p.7.

服 賜與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왕이 寐錦과 그 隨從者 그리고 諸位에 대해 의복을 내려준 뒤에, 태왕의 교에 의해 매금 일행이 다시 이르자 이번에는 寐錦土內 諸□人과 (태왕)國土의 大位·諸位·上下에게 의복을 내려주었던 것이다. 더욱이 의복을 내려준 일을 기술한 내용이 신라와 고구려인을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금·수종자와 고구려 제위, 寐錦土內的 諸(衆)人과 太王 國土의 大位·諸位·上下와 같이, 그룹별로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그러면 고구려 태왕이 의복을 내려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던 것일까. 또한 의복 사여를 통해 태왕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점들을 살피는 것은 고구려가 이 비를 제작했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단서가 될 것이다.

두 번째의 사실은 의복의 사여 대상자가 고구려와 신라 양측에 걸쳐 신라 매금으로부터 양국 국경지대의 지방 세력가까지 다양하다는 점이다. 태왕이 몸소 고구려의 변경지역인 中原으로 내려와 신라 매금과 만났다는 점에서, 이 행사에 관여한 양국 관계자들은 의복의 사여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그 외의 인물들은 행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이었다. 특히 ‘寐錦土內諸□人’(혹은 新羅土內衆人)은 신라 영토 내의 지방 세력가라는 점에서 행사가 열린 중원지역과도 연결될 수가 없다.

그런데 태왕의 일행이 中原까지 내려왔고, 여기에 응한 신라 매금이 수행원을 이끌고 현장에 이른 것은 양국 관계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양국 군주의 회동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통해 우호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으로 결말이 났던 것으로 보인다. ‘영원히 형처럼 아우처럼 상하가 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 하늘의 [도]를 지켜나갈 것을 희망’했다는 비문의 내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 내용만으로는 회동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의 내용이나 결과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나아가 비문은 양국 군주의 회동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이 어떤 의례와 절차 속에서 진행되었는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⁴³⁾

이런 점에서 이 비의 건립 목적이 양국 군주의 회동과 거기에 이루어진 합의를 기념하는 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선행했을 양국 군주의 회합이라는 행사와 이 비에서 기술하고 있는 의복 사여의 행위는 분리하여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문의 기술 내용이 회동 자체보다는 의복의 사여와 대상자에 유의하고 있다는 점에 이 비의 특징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의복의 사여는 服屬儀禮의 하나로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의례는 사여의 행위가 가진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우리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A. 正月戊辰朔, 上祀昊天上帝于泰山南. 己巳, 登泰山, 封玉牒, 上帝冊藏以玉匱, 配帝冊藏以金匱, 皆纏以金繩, 封以金泥, 印以玉璽, 藏以石宮. 庚午, 降禪于社首. 祭皇地祇. 上初獻畢, 執事者皆趨下. 宦者執帷, 皇后升壇亞獻, 帷帟皆以錦繡為之, 酌酒, 實俎豆, 登歌, 皆用宮人. 壬申, 上御朝覲壇, 受朝賀. 赦天下, 改元. 文武官三品已上賜爵一等, 四品已下加一階. 先是階無泛加, 皆以勞考敘, 進至五品三品. (『資治通鑑』卷201 唐紀17 高宗 乾封元年, p.6346)

666년 정월 唐 高宗은 泰山에 올라 封禪儀禮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뒤 行宮 근처에 만들어진 朝覲壇에 올라, 봉선에 참여한 당의 관원과 주변국 사절이 올리는 축하를 받았다. 고종은 封禮와 禪禮로서 봉선의례를 치루고 나서 朝覲禮를 별도로 거행하여 봉선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것을 천하에 선포하였던 것이다.⁴⁴⁾ 그런

43) 이러한 내용이 비의 다른 면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5월중’의 사건은 양국 군주가 회동하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회동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전면>의 공간 안에 기술되었다고 여겨진다.

44) 하워드 J. 웨슬러 지음, 임대희 옮김, 2005 『비단갈고 주옥같은 정치』, 고즈원, pp.396~397; 金相範, 2002 『唐 前期 封禪儀禮의

데 이 봉선의례 가운데 조근례의 말미에는 우리의 관심사인 태왕의 의복 사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내용이 보인다. ‘3품 이상 文武官에게는 爵位를 4품 이하에게는 品階를 하나씩 올려주었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위 사례에 따르면 의식의 참여자들에 대한 사여 조치는 봉례와 선례라는 본 행사를 마친 뒤에 시행되었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으로 미루어 태왕의 의복 사여는 복속의례 그 자체라기보다는 회동한 양국 군주가 논의를 마친 뒤에 이루어진, 일종의 ‘부대 행사’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즉 <충주 고구려비>는 중원이라는 접경지대에서 양국 군주가 회동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결과로서 일어난 의복 사여의 행사를 특필하였던 것이다.⁴⁵⁾

이러한 선택적 기술 방식이 이 비의 제작 목적에 따른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에 그 기술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복의 사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대 행사의 전부였을 리는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 고종의 태산 봉선에서는 참가자들의 賀禮를 비롯, 사면령·改元·봉선 경유지에 대한 세금 감면⁴⁶⁾ 등 여러 조치가 있었음이 참고가 된다. 양국 군주의 회동이라는 무게감으로 보아서도 의복 사여만으로 부대 행사를 마무리했다고는 여길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문은 어쩌서 의복 사여를 행사의 전부였던 양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내용의 흐름이나 논리 구조로 보아, 이것은 ‘12월 23일’에 일어났다고 하는 일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의 사건이 앞서 열린 ‘5월중’의 합의에 따라 실행되었음⁴⁷⁾을 상기하면, 이 의복 사여의 행사는 ‘12월 23일’의 募人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행의 조치로써 이해된다. 이때의 모인 관계자들이 바로 5월중의 의복 사여 대상자 가운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제 의복 사여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에 보이는 의복이란 고구려 官位制의 순위에 연동하여 그 신분질서의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⁴⁸⁾ 군왕의 예복인 태곽추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신라 매금에게 내려주었다고 보인다. 또한 의복 하사의 장면에 등장하는 ‘跪營’은 고구려의 독특한 의례로서⁴⁹⁾ 적어도 의복의 하사를 둘러싼 전 과정이 고구려의 의례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고구려가 주도한 의례에 참여해야 했다는 점에서 매금 이하 신라인들의 입장은 종속적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의례를 거행한 고구려의 의도는 양국 간의 차별적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가 양국 관계에서 우위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매금 등이 ‘跪營’하고 태왕이 내린 의복을 받았던 단계에서 이미 달성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기술에 따르면 신라 매금은 태왕의 교에 의해 현장으로 되돌아와야 하였다. 매금과 그 수종자들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던 참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더라도 지나치다는 느낌이 드는 내용인 것이다. 이 점에서 매금 일행이 돌아오자, 태왕이 ‘매금토내제(중)인……’에게 의복을 하사했다는 것은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조치였다고 보인다. 이들은 양국 군주의 회동과는 무관해 보이는 신라 영토 내의 지방 세력가들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展開와 그 意義」『역사문화연구』17, p.45.

45) 물론 의복 사여의 기술 내용은 <전면>의 ‘5월중’ 사건에 한정되고, 다른 부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46) 『舊唐書』卷5 高宗下 麟德3年 正月 壬申, p.89.

47) 임기환, 앞의 글, p.424.

48) 武田幸男, 1980 「序説 五～六世紀東アジア史の一視點-高句麗『中原碑』から新羅『赤城碑』へ-」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 日本古代史講座 4- 朝鮮三國と日本』, 學生社, p.16.

49) 武田幸男, 1989 「高句麗勢力圏の展開過程」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説-』, 岩波書店, p.132.

그러면 고구려가 태왕의 교로써 이들 ‘매금토내제(중)인……’에게 의복을 내려준 연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문의 ‘12월 23일’의 사건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300명의 募人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에는 ‘매금토내제(중)인’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관련하여 <충주 고구려비>가 이들을 특기하게 된 사정을 짐작해 보려는 것이다.

IV. 新羅土內 幢主의 募人 활동과 그 의미

12월 23일 300인을 募人하는 일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고구려 ‘前部 大使者 多兮桓奴·主簿 貴德’ 등은 앞서 ‘5월중’에서 모습을 보였던 이들이다. 이들은 于伐城에 모인 신라 매금의 上下과 함께 5월의 양국 군주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천하는 양국의 주체로 이해된다.⁵⁰⁾ 한편 신라토내당주는 신라의 영토 내에 파견된 고구려의 당주를 뜻한다.⁵¹⁾ 그리고 모인이 무엇을 위한 招募인가에 대해서는 ‘力役徵發’이라고 이해되고 있다.⁵²⁾ ‘新羅土內幢主 下部 拔位使者 補奴’ 등이 그 실무를 맡아 모인했다는 것에서, 그것은 당주가 주재한 지역과 무관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이에 모인은 역역의 징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데 이 모인의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무언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古鄒加共軍至于’이라는 군사적 충돌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좌면> 후반부의 구절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모인의 활동은 어렵게 성사된 양국 관계를 뒤엎을 정도의 사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주의 모인 활동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

신라토내의 당주, 즉 고구려군이 신라 영내에 주둔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가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廣開土王代의 대신라 관계를 염두에 두면,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의 일이었고 449년 ‘12월 23일’의 시점에까지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둔지의 유지를 위해서는 병영 등의 군사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필수적인 것이었고, 때에 따라서는 주둔 병력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공사도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⁵³⁾ 이 점에서 필요한 경우 당주가 주둔지 부근의 신라인들을 동원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것은 고구려가 신라 왕실의 인물을 인질로 삼고 있거나, 實聖과 訥祗의 왕위 계승에 고구려가 영향력을 행사했다⁵⁴⁾는 사실이다. 그만큼 신라는 고구려에 종속적이었던 것이다. 이런 양국의 관계로 보아, 그동안 당주의 모인 활동이 신라 국왕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이는 12월

50) 임기환, 앞의 글, p.424.

51) 李基白, 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가지 문제」 『史學志』, p.38.

52) 모인을 역역징발이라고 본 木村誠은 이 비의 제작연대를 409년 무렵으로 파악하고 이 해의 “秋七月, 築國東禿山等六城, 以平壤民戶”(『三國史記』卷18 廣開土王) 기사와 연관지워 축성을 위한 역역 징발이라고 이해하였다.

53) 이와 관련하여 ‘당주 주둔지는 아마 고구려가 유효한 점령 상태로 관장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해(정운용, 2005 「三國關係史에서 본 中原高句麗碑의 意味」 『고구려의 국제관계』, p.116)가 도움을 준다

54) “奈勿王三十七年, 以實聖質於高句麗, 及實聖還爲王, 怨奈勿質已於外國, 欲害其子以報怨, 遣人, 招在高句麗時相知人, 因密告, 見訥祗則殺之, 遂令訥祗往, 逆於中路, 麗人見訥祗形神爽雅, 有君子之風, 遂告曰, 爾國王使我害君, 令見君, 不忍賊害, 乃歸. 訥祗怨之, 反弑王, 自立.”(『三國史記』卷3 눌지마립간 즉위조)

23일의 모인에는 매금 상하의 협조가 있었음을 각별히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12월 23일의 모인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던 고구려군의 주민 동원을 신라 관원의 협조라는 형태로, 신라 측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2월 23일의 모인은 우벌성이라는 특정의 지역에 국한되었고, 300인의 규모 역시 많다고 볼 수도 없다. 두 국가가 당면했던 현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딘지 격에 맞지 않은 사안인 것이다. 이 점에서 5월중에 있었던 양국 군주의 회동에서 합의되었을 내용이란, 우벌성에서의 모인과 같은 세부적인 사안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협약이나 규정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래의 사료가 된다.

B. “三十四年秋七月，高句麗邊將獵於悉直之原，何瑟羅城主三直出兵掩殺之。麗王聞之怒，使來告曰 孤與大王，修好至歡也，今出兵殺我邊將 是何義耶。乃興師侵我西邊。王卑辭謝之，乃歸。”(『三國史記』卷3 新羅 訥祇王)

위 기록은 고구려 변장 살해로부터 고구려의 신라 서변 공격, 그리고 신라 국왕의 사과와 고구려군의 철수라는 일련의 사건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보이는 사건들의 시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修好’의 표현에 주목하여, 그것이 바로 비에 보이는 양국의 수호 관계(회맹)라고 보아왔다.⁵⁵⁾ 이에 따르면 양국의 수호 혹은 회맹 뒤에 신라 하슬라 성주가 고구려 변장을 살해했던 셈이 된다.

그런데 ‘修好至歡也’란 말 그대로 ‘내가 태왕과 우호를 닦은 것이 매우 기뻐했는데’라고 풀면, 언제의 시점이나 특정의 관계(혹은 사건)보다는 ‘우리 두 나라는 (변장 살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호하고 있었다’ 정도의 뜻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5월중’의 의복 사여에서 보였던 양국의 차별적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사건의 발단과 수습의 내용에 관심이 간다.

먼저 신라의 영내인 悉直⁵⁶⁾에 사냥 가려 했던 고구려 변장의 모습에서는 안하무인하다는 느낌이 든다. 장수왕이 분노하며 신라를 비난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러한 변장의 행동은 무분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고구려 당주가 주둔지의 신라인을 징발해 왔던 것을 상기하면 결코 돌발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믿어진다. 도리어 우월의 관계가 분명했던 그간의 양국 관계로 보아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관례적인 행사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관례적 행사가 悉直原 한 곳의 문제였을까. 우곡성의 고구려 당주도 있고 보면, 이런 문제는 고구려와 신라가 대면하고 있던 어느 곳에서나 흔히 목격할 수 있는 풍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던 것이 월경해온 고구려 장수를 하슬라 성주가 살해함으로써 양국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한편 신라 西邊을 공략했던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은 訥祇王이 ‘卑辭’로 사죄의 뜻을 보이고서야 해소되었다. 공손한 말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놀지왕이 보인 행동은 저자세의 그것이었다. 바로 비문의 ‘5월중’에 신라 매금이 저자세로 일관했던 모습이 연상되는 것이다.

55) 시노하라의 ‘修好至歡’의 표현은 신라의 반고구려적 동향이 나온 뒤 다시 양국 간에 수호관계가 수립되었던 사정에서 나온 것이라 보고,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은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이라고 본 바 있다(시노하라 히로카타, 앞의 글, pp.34~35). 한편 ‘孤與大王修好’가 충주에서의 회맹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임기환, 앞의 글, p.429).

56) 사냥에 나선 고구려 장수를, 하슬라의 신라군이 기습해 죽였다는 점에서 이때의 실제 지역은 신라의 영토였다. 468년의 기록에 실적은 신라 영토로 나오고 있다(“春，高句麗與靺鞨襲北邊悉直城”. 『三國史記』卷3 慈悲麻立干 11년).

또한 위의 기록은 매금의 사죄로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된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 변장 살해는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신라의 분위기를 보여준다.⁵⁷⁾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한 대응책 없이 고구려가 매금의 사죄만으로 사태를 봉합했다고 여길 수는 없다. 반면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이 신라의 서변에 가해졌다는 것으로 미루어, 신라가 느낀 위기감은 매우 컸다고 보인다. 놀지왕이 ‘卑辭’로 사죄의 뜻을 보여야 할 정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위기감을 고려하면, 장수왕이 군사적 위협을 내세워 신라 국왕을 중원까지 불러내 회합을 가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위 기록은 바로 비문에 보이는 양국 군주의 회합을 불러온 사안과 그 경과에 해당하게 된다. 이로써 어떤 흐름 속에서 태왕과 매금의 회합이 열리게 되었고, 그 회합에서 어떤 과제를 다루었는가를 대체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그것은 고구려 우위의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고구려 변장의 살해로 드러난 갈등을 풀어내는 방향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신라토내당주의 모인이 ‘5월중’의 사건을 계기로 신라 측의 협조 아래 실시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12월 23일’의 사건)이 이를 말하여 준다.

그러나 그것이 우호 관계의 확인이나 유지 차원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신라의 반고구려적 움직임을 저지하는 방도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태왕이 ‘매금토내제중인’에게 의복을 내려준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우월 관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현장에서 태왕은 우벌성의 현지 세력가들에게 의복을 내려주었던 것이다. 여기서의 의복이 고구려의 관위제와 연동된 것이라고 보면, 이들에 대한 의복 사여는 현지 세력가들에 대한 按撫와 포섭의 일환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즉 고구려는 당주의 주둔지라는 신라 영내의 고구려군 거점을 공고히 하는 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신라 영내에서 친고구려 세력을 확보해 나가려 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신라토내 당주의 모인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던 연유도 짐작할 수 있다. 양국 군주의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은 결코 신라 측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매금토내제중인에 대한 의복 사여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는 신라를 종속시키려 하였다. 이런 점은 신라가 고구려의 세력권에서 벗어날 의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상에서 살핀 비문의 내용을 토대로 이 비의 제작 목적에 대해 살필 차례다. 입비의 의도를 보여주는 문구는 비의 기술내용 가운데에서-적어도 판독 가능한 범위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 비가 세워진 장소에 눈길을 돌려보자.

비가 있는 곳은 國原城 지역으로⁵⁸⁾ 고구려가 남방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다.⁵⁹⁾ 그런 만큼 신라 방면의 정세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이 비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이 비의 제작은 신라 방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던 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⁶⁰⁾

앞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고구려의 남방 경략은 순조롭지 못하였다. 신라토내 당주의 모인 활동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태자 공 등의 군사행동이 이어졌지만, 적어도 비문 상에서 그 성과는 분명치 않다. 이러한 내용들은 고구려의 군사적 우위가 절대적이지 못하며, 신라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57) 鄭雲龍, 1989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35, p.7.

58) “中原京，本高句麗國原城。新羅平之，眞興王置小京。文武王時築城，周二千五百九十二步。景德王爲中原京，今忠州。” 『三國史記』卷35 地理2.

59) 시노하라 히로카타, 앞의 글, p.24.

60) 변경지역과 입비의 관계에 대해, 靑山明의 연구가 도움이 되었다(2019 「邊境に立つ公文書-四川昭覺縣出土 <光和四年石表> 試探-」 『古代東アジアの文字文化と社會』(角谷常子 編), 臨川書店).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원 지역이 이제부터 신라의 공세를 막아서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현지민들은 당연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비가 발견된 立石마을은 鳥嶺을 넘어 신라 방면으로 나아가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였다.⁶¹⁾ 비문의 독자로서 현지의 주민을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⁶²⁾ 이 점에서 여기에 비를 세워야 했던 연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고구려로 보아서 신라의 저항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함께 당장 시급한 일은 현지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었다. 국원성 지역은 본래 백제의 영토였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비문이 양국의 차별적 관계를 거듭 부각하고, 신라토내 당주의 모인 활동이 '5월중'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기술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양국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며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은 신라 측이 합의를 저버렸기 때문임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면에서는 '立碑, 銘記勳績'(<廣開土王碑>)과 같은 문구는 확인할 수가 없다. <좌면>의 상당 부분은 판독이 불가능하지만, 여기에도 관련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광개토왕비>의 서술 구조처럼 입비의 목적을 포함한 비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주된 내용들은 <후면>과 <우면>의 일부에 걸쳐 기술된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이 비는 일종의 布告文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불안해하는 현지민들을 달래기 위한 按撫의 내용과 함께, 남방 경영이 중단없이 진행될 것임을 천명하는 기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돌에 간각했다는 점에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포고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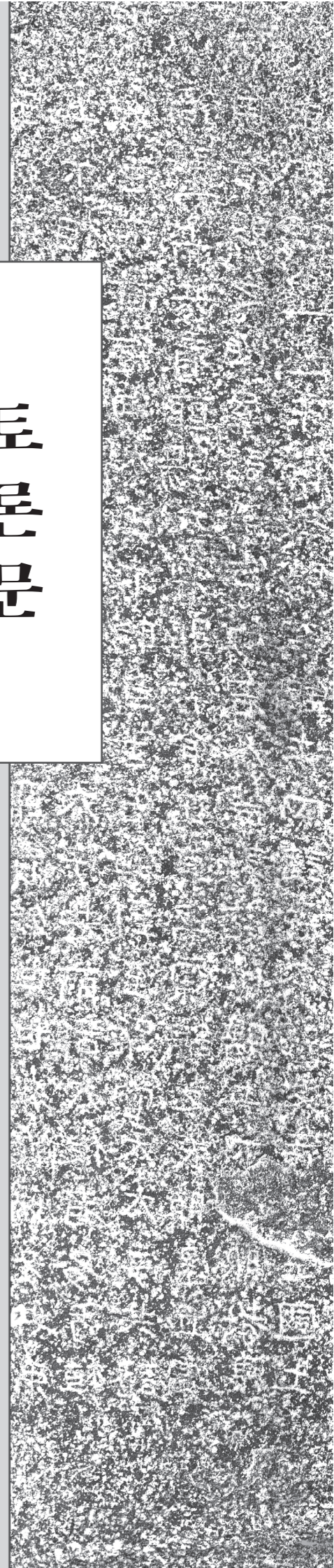
V. 맺음말

61) 鄭永鎬, 1979 「中原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研究展望」 『史學志』13, 16~18쪽; 허의행·장우영, 2019 「충주 고구려비의 고지형과 역사 입지 검토」 『중원고구려비의 어제와 오늘』(중원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62) 이에 대해 주민과 변방민일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이용현, 2000 「중원고구려비와 신라의 제 비」 『高句麗研究』10).

토론문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충주 고구려비 판독을 위한 과학적 조사 방법」에 대한 토론문

안재홍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충주 고구려비를 발견한 후 4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석문을 판독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전통적인 분석 방법을, 때로는 과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당대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문화유산의 기록과 분석에 활용되는 3차원 스캐닝과 Reflectance Transform Imaging(RTI) 기술과 같은 디지털 센서 기반의 기술을 적용했다. 4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진일보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논문은 3차원 스캐닝에 의한 분석을 기술하기에 앞서 석문 판독을 위한 전통적, 과학적 방법을 비교하여 논의하여 그간의 기술적 변화를 잘 정리했다. 우선 전통적 방법인 탁본 기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시각적으로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획득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잘 드러내었다. 이러한 한계는 비문의 글자가 단순한 평면이 아님에도 요철을 흑백으로 찍어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객관성과 입체적 형상 정보를 잃는 문제점에 기인한다. 특히 글자와 마모, 파손 등을 구분하여 인식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형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를 지원하지 못한다. 중요한 자료임에도, 판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판독을 야기할 수도 있다. 과학적 방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거나 뛰어넘는 방향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과학적인 방법의 하나인 근적외선 반사 촬영과 자외선 형광 촬영은 비접촉식 분석 방법으로서 특정한 문화유산 분석에 유용한 장점이 있기는 하나, 형태의 시각적 인지 강화가 중요한 석문 판독 지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한다.

회화에서 숨겨진 이미지 같은 경우와 달리 석문은 시각적으로 모든 부분이 드러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컬러, 형상의 디테일(detail), 텍스처(texture), 조명 환경 등은 인간이 시각적으로 형상 정보만을 인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디지털 센서 기반의 기기를 활용해 구축한 디지털 모델에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형상 분석하는 기법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논문에서 기술한 반사율변환영상¹⁾, 혹은 RTI는 서로 다른 여러 방향에서 조명을 비추면서 고정된 카메라로 이미지들을 획득하고, 구축된 이미지 세트로부터 조명의 위치에 따른 각 픽셀의 컬러를 계산하는 함수를 생성함으로써 사용자가 임의의 위치에 조명을 위치하면서 그에 따른 음영 변화로 세밀한 형상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 방식은 3차원 모델에 대해 빛의 방향을 바꿔서 음영을 생성하는 것과는 다르다. RTI는 비

용, 작업 과정, 운용의 용이성 등에서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스캐닝으로 취득이 어려운 초고해상도 혹은 초소형 대상의 데이터 취득도 가능하다. 또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세부 정보의 손실이 거의 없다. 이러한 여러 장점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표면의 상태 분석, 훼손이나 도구흔(道具痕) 확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RTI의 특성에 기반을 둔 이러한 활용성은 3차원 스캐닝에 의한 3차원 모델 활용과는 다른 장점을 가진다. 그림 1은 충주 고구려비에 대해 RTI를 적용해 구축한 RTI 데이터를 시각화한 결과 이미지이다. 반면 RTI 기술은 완전한 3차원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렌즈 사용에 의한 왜곡이 포함된다. 단점도 있다. 논문에서는 ‘조도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각도로 조명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한 영상에 빛을 비추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음각된 획만 보이는 한계가 있다’고 RTI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일부 수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러 조명 위치에 따른 이미지 세트를 얻기 위해 조명을 옮겨야 하는 점이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이는 대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며, 돔(dome) 방식의 RTI 시스템의 경우 완전 자동화된 작업이 가능하여 수 분 내에 전체 촬영을 자동으로 마칠 수 있다. 또한 ‘빛을 비추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음각된 획만 보이는 한계’라고 지적한 부분은 ‘빛을 비추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음각된 획은 음영이 생기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RTI의 결과는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을 드러내다기보다는,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조명을 움직이는 과정과 다양한 렌더링 모드를 통해 맨눈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부분별로 최적의 광원 위치를 결정하여 적용하는 static multi light, dynamic multi light와 같은 렌더링 모드는 하나의 이미지에서도 음영을 잘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의 렌더링을 통해 비사실적인 렌더링으로 세부 형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²⁾.

논문에서는 정밀하게 획득한 3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석문을 판독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를 추출했다. 이러한 점에서 논문이 제시하는 여러 분석 방법은 석문의 판독 연구 분야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 확장에 3차원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논문에서 그 의미를 서술하였듯이,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선행 판독 결과의 가치를 높이고 기존에 명확히 판독이 되지 못한 석문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였으며 논문에서 제시한 여러 결과 이미지들은 그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 과정을 통해 고정밀 3차원 수치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더욱 발전된 디지털 영상 분석 기술과 접목하여 충주 고구려비 석문 판독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 것도 충분히 타당하다. 국내외적으로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용한 연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만큼, 석문 데이터 아카이브, 판독과 분석, 활용에도 새로운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과 논의를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컨센서스 정립이 필요한데, 이를 다학제적인 연구 토대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둘째, 3차원 스캐닝, 사진측량, RTI 등과 같은 기술은 장단점과 특징점이 있으며, 기술 자체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구축과 이의 분석과 활용이 중요하다. 적합한 기술의 선정과 공동 연구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셋째,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연구는 정보화 기반을 바탕으로 여러 다른 세부 분야의 연구와 기술적, 인적, 학문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한다. 석문 연구에 있어 디지털 기술 활용 측면에서 공통적 특성과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RTI 뷰어에는 이러한 렌더링 모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RTI 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해 이와 같은 시각화가 가능하다.

1) Reflectance Transform Imaging(RTI)의 국문 표기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반사율변환영상’이나, 신소연과 김영민(2013)이 사용한 ‘반사율 변환 이미지’은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다. transform은 형태(form)를 바꾸는 변형이며, imaging은 이미지 혹은 영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로 나타내는 기법을 의미한다. ‘RTI’는 3차원 표면의 반사율을 함수화하여 2차원의 이미지로 나타내는 기술적 방법을 표현한다.

「충주 고구려비의 高麗 太王과 新羅 寐錦」에 대한 토론문

박 찬 흥
국회도서관

이 발표문은 ‘高麗太王’, ‘新羅 寐錦’과 ‘東夷 寐錦’의 차이, ‘寐錦土內’와 ‘新羅土內’의 차이 등에 주목하면서, 충주 고구려비에 나타난 고려 태왕 및 신라 매금의 실체와 역사성을 규명한 논문이다. 특히 ‘東夷寐錦’을 ‘新羅寐錦’에 대한 책봉호로 이해하고, ‘新羅土內衆人’을 ‘新羅土內幢主’와 같이 고구려 출신 인물이거나 고구려에 귀속된 존재로 파악하여 ‘寐錦土內衆人’과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했으며, 寐錦 및 太王과 대비되는 ‘寐錦土內諸衆人’과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를 각각 ‘신라 영역 내의 지방민’과 ‘고구려 영역 내의 지방민’으로 이해하여 충주고구려비에 지방민으로 추정되는 존재들이 등장했다고 파악한 점이 주목된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한다.

1. ‘東夷寐錦’과 ‘新羅寐錦’

‘東夷寐錦’은 ‘新羅寐錦’이 高麗太王에 복속되고 태왕의 奴客으로 규정되는 공식적인 칭호 즉 책봉호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책봉호 ‘東夷寐錦’에서 ‘東夷’의 의미와 대상·범주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이 시점에 ‘東夷寐錦’ 책봉이 이루어진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다. 또 이 이전에도 고구려가 ‘新羅寐錦’에게 책봉호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있었다고 본다면 이 때 다시 ‘東夷寐錦’으로 책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2. ‘祖王公’의 해석

‘高麗大王祖王公口新羅寐錦世世爲願如兄如弟上下相[知]守天東來之’에서, ‘祖王’은 고구려 태왕의 아래에 있는 하나의 신료 내지는 하위의 왕으로 ‘公’은 이름으로 이해했다. 또 이 한 문장에서 ‘高麗太王’과 ‘新羅寐錦’이 서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高麗는 新羅에 상대적인 국호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祖王公’을 太王 아래에 있는 신료 또는 왕으로 본다면 ‘新羅寐錦’에 대응하는 주체가 ‘高麗太王’이 아니라 ‘高麗大王的 祖王 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高麗’와 ‘新羅’ 대응관계가 잘 맞지 않는 듯하다. ‘祖王 公’을 ‘高麗太王’ 아래의 신료 또는 왕으로 이해할 때, 이 문장에서 ‘祖王 公’의 위상과 역할, ‘高麗太王’과의 상호 관계, ‘新羅寐錦’과의 대응관계 등이 궁금하다. 그리고 ‘高麗大王祖王公’을 ‘高麗大王과 祖王 公’으로 해석하는지, ‘高麗大王的 祖王 公’으로 해석하는지 알고 싶다.

3. 인물군의 구분과 성격

발표자는 신라 측 인물군을 新羅寐錦(東夷寐錦), 매금의 신료인 (東夷寐錦)上下, 寐錦土內諸衆人 등 3그룹이 구분하여 당시 신라 측 참가자가 ‘寐錦-上下-衆人’으로 구성된 것으로 고구려 측에서 파악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고구려 측 인물군으로 太子共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貴德,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양측 인물군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듯하다.

신라 측 인물군		고구려 측 인물군
新羅寐錦(東夷寐錦)	寐錦	太子共, 前部大使者 多于桓奴, 主簿 貴德
(東夷寐錦)上下	上下	
寐錦土內諸衆人	衆人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

위 표의 구분과 대응 관계가 발표자의 견해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먼저 (東夷寐錦)上下에 대응하는 고구려 측 인물군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둘째로, ‘教諸位賜上下[衣服]’의 해석이다. ‘(東夷寐錦)上下’는 ‘東夷寐錦上下至于伐城’과 ‘教諸位賜上下[衣服]’을 토대로 설정한 듯하다. 발표자는 ‘東夷寐錦上下’는 東夷寐錦의 신하로 보고, ‘教諸位賜上下[衣服]’에서 諸位는 고구려측, 上下는 신라매금의 신하로 보았기 때문에 ‘(東夷寐錦)上下’라는 인물군을 설정한 듯하다. 그런데 ‘教諸位賜上下[衣服]’에서 上下는 신라 매금의 신하가 아니라 ‘고려 태왕의 신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셋째, 寐錦 및 太王과 대비되는 ‘寐錦土內諸衆人’과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를 각각 ‘신라 영역 내의 지방민’과 ‘고구려 영역 내의 지방민’으로 이해하여 충주 고구려비에 지방민으로 추정되는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비문에 보이는 ‘上下’는 ‘高麗大王祖王公口新羅寐錦世世爲願如兄如弟上下相[知]守天東來之’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하’에 대한 통칭으로 쓰이고 있으며, ‘衆人’의 ‘衆’을 ‘官人’ 또는 ‘많은 신하들의 약칭’으로 보고 ‘人’을 ‘公’·‘臣’ 등의 의미가 격하된 것으로 본다면(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中原高句麗碑』의 釋讀과 內容의 意義』『史叢』51, 10쪽) ‘衆人’ 또한 ‘신하’의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寐錦土內諸衆人’과 ‘太王國土大位諸位上下’ 모두 지방민으로 보기보다는 新羅 寐錦과 高麗 太王의 신하들로 보고, 신라 측 인물군의 (東夷寐錦)上下와 寐錦土內諸衆人을 하나로 합해서 ‘신하’그룹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양국의 만남과 의례 등에서 지방민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문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었을까 하는 점은 의문이다.

4. ‘충주 고구려비는 고려태왕과 신라매금이 회맹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립 목적 자체가 회맹비는 아니며, 고구려와 신라 양국 사이에 벌어진 국경에서의 영역 분쟁이나 군사적 충돌을 다루고 있는 비문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양국 간의 영역 분쟁이나 군사적 충돌’ 정도의 사건 때문에 고려 태왕이 멀리 충주까지 와서 신라 매금을 불러서 ‘회맹’을 가졌을까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정도의 사건이 중시되었을 고구려 측 대외 환경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다.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배경을 검토할 때, 당시의 고구려-신라-백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忠州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에 대한 토론문

정운용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이성제 선생님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한국사 연구 지원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과정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왕성하게 생산하시는 분이다. 특히 고구려와 중국 대륙 여러 왕조와의 關係史는 물론, 금석문 자료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 및 儀禮 관련 업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삼국 관계사의 주요 자료인 ‘충주 고구려비’ 연구에 적임자라 여겨진다.

오늘의 발표문 또한 최근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고대사학회에서 공을 들여 준비한 ‘충주 고구려비’의 새로운 판독을 바탕으로, 衣服의 賜授와 募人 문제에 초점을 두어 새로운 시각에서 ‘충주 고구려비’의 의미를 부각하셨다. 발표자의 견해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토론자로서 별도의 異見을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지, 주어진 소임에 자그마한 부응이나마 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본다.

1. 발표문 제목과 설정 章節의 문제

발표자께서는 본문 서술의 章을 “비의 석독과 주요 내용”, “태왕의 의복 사여와 대상자”, “新羅土內 幢主의 募人 활동과 그 의미”로 설정하셨다. 모두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목적을 살펴보기 위한 발표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章이다. 그런데 정작 제목에서 표방한 “건립 목적과 배경”은 章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건립 목적과 배경”이 특정 章으로 설정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2.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목적과 碑의 성격 문제

기왕의 선행 연구들이 ‘충주 고구려비’의 성격을 拓境碑(定界碑). 巡狩碑, 會盟碑, 功績碑 등으로 규정해 왔다. 그와는 달리, 발표자께서는 ‘충주 고구려비’의 성격을 “일종의 布告文”에 해당하며, “불안해 하는 현지 민들을 달래기 위한 按撫의 내용”과 “남방 경영이 중단 없이 전개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라(12쪽) 이해하고 계신다. 아울러 그러한 점을 목적으로 건립된 碑라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교통로로서의 중앙탐면 입석 부락의 입지를 거론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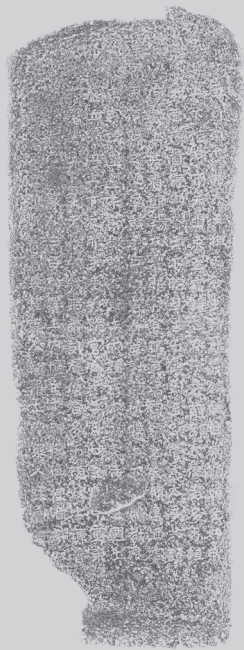
토론자 또한 선행 연구들이 규정한 ‘충주 고구려비’의 성격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왔다. 그런데 발표자께서 ‘충주 고구려비’를 ‘布告碑’ 또는 ‘按撫碑’로 정의하실 경우, 漢文의 可讀性 등을 염두에 둔다면, 해당 碑는 교통의 요지보다는 백성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다면 城門 또는 官家 앞 등이 더 좋은 대상지가 아닐까 여겨진다. 무리하다 여겨지지만, ‘충주 고구려비’를 세울 당시 충

주 일원에서 고구려의 주요 군사·행정 등의 治所는 어느 곳으로 추정이 가능한지 여쭙어보고 싶다.

3. 여러 연대의 추정 문제

발표자께서는 “五月中”과 “十二月廿三日甲寅”을 449년의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다. 아울러 ‘좌면’의 “辛酉年”의 존재 또한 인정하면서, 신유년은 481년으로 이해하고 계신다. 이 경우 449년 고구려의 ‘布告’나 ‘按撫’ 행위가 있는 지 3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것이다. 이는 상황 발생에서 碑의 건립에까지 이르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과 함께, 비문에 포함되어야 할 또 다른 내용의 존재 가능성이나, 비문에 보이는 신라의 “寐鏞”이 놀지마립간·자비마립간·소지마립간의 구분 없이 지칭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나제동맹(433년 또는 455년) 이후 5세기 후반 신라·백제와 잦은 전쟁을 벌이는 고구려의 상황과는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또한 궁금하다.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 450년 고구려 변장 살해 사건을 거론하면서, ‘충주 고구려비’의 고구려 국왕과 신라 국왕의 회동을 “고구려 우위의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고구려 변장의 살해로 드러난 갈등을 풀어내는 방향이었을 것”으로(11쪽) 파악하는 점은 時差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린다.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미근동267) NH농협생명빌딩 서관
TEL. 02-2012-6000 FAX. 02-2012-6175

www.nahf.or.kr